

2024 러시아학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 포스트 이후의 포스트: 포스트 팬데믹, 포스트 워, 그 이후의 유라시아

제3분과 어학/통번역 분과

**일 시**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10:00~18:00

**장 소**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하나스퀘어 강의실 (B119호)

**주 관**  한국노어노문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공동주관**  KRD 사단법인 한러대화  
Korea-Russia Dialogue

**공동개최**  한국 러시아 문학회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KASEUS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lavic Languages

 KASL 한국슬라브어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lavic Languages

이 발표논문집은 2024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단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NRF-2024S1A8A4A0104352411)

# CONTENTS

## 어학/통번역 분과 A 분과주제: 러시아 통번역학의 통시적·공시적 연구

사회: 김성완(계명대)

- 10:15~10:50 ▶ 러시아 통번역사 연구 - 소비에트 시대를 중심으로 ..... 267  
발표자: 유정화(육군사관학교) / 토론: 강동희(한국외대)
- 10:50~11:25 ▶ 러시아 영상 콘텐츠에서 관용어 번역 양상 - 넷플릭스 '메이저 그롬: 플레이그 닥터'를 중심으로 ..... 277  
발표자: 김규형(한국외대) / 토론: 서유경(한국외대)
- 11:25~12:00 ▶ 경찰통역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노트테이킹 ..... 287  
발표자: 홍서연(단국대) / 토론: 정혜린(고려대)

## 어학/통번역 분과 B 분과주제: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 러시아 사회언어학 연구

사회: 한만춘(상명대, 한국슬라브어학회장, 한러대화 문화예술분과 위원)

- 13:00~13:35 ▶ 슬라브어 한정성의 문법화: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 299  
발표자: 정정원(충북대) / 토론: 채유정(한국외대)
- 13:35~14:10 ▶ 프리발티카의 러시아인과 러시아어 상황 ..... 319  
발표자: 정경택(경상국립대) / 토론: 변군혁(한국외대)
- 14:10~14:45 ▶ 교수법의 절충주의적 접근을 통한 '중급러시아어작문' 수업 모델 연구 - 이동동사를 중심으로 ..... 327  
발표자: 이새봄(중앙대) / 토론: 손현익(한국외대)

## 어학/통번역 분과 C 분과주제: 슬라브 언어학의 제문제 연구

사회: 김태진(배재대)

- 15:00~15:35 ▶ 17세기 말 언어 접촉의 증거: Grammatica Russica(1696)의 문법적 간섭현상 연구 ..... 339  
발표자: 한지형(부산가톨릭대) / 토론: 김희연(안양대)
- 15:35~16:10 ▶ 러시아어의 энантиосемия 현상에 대하여 ..... 353  
발표자: 길윤미(경북대) / 토론: 이남경(경상국립대)



어학/통번역 분과

어학/통번역 분과 A:  
러시아 통번역학의 통시적·공시적 연구

사회: 김성완(계명대)

- ▶ 러시아 통번역사 연구 - 소비에트 시대를 중심으로 ..... 267
  - 발표: 유정화(육군사관학교)
  - 토론: 강동희(한국외대)
  
- ▶ 러시아 영상 콘텐츠에서 관용어 번역 양상 - 넷플릭스 '메이저 그룹: 플레이그 닥터'를 중심으로 ..... 277
  - 발표: 김규형(한국외대)
  - 토론: 서유경(한국외대)
  
- ▶ 경찰통역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노트테이킹 ..... 287
  - 발표: 홍서연(단국대)
  - 토론: 정혜린(고려대)



# 러시아 통번역사 연구

## - 소비에트 시대를 중심으로

유정화 (육군사관학교)

### 1920-30년대 번역

- 러시아 혁명 이전 문학번역- 별도 직업아닌 아마추어 활동이라는 인식
- 볼셰비키 정부 – 광범위한 문맹퇴치 캠페인(обширная кампания по ликбезу(ликвидация безграмотности)). ->문학번역 필요성 증가
- 인쇄출판이 번성하면서 번역 전문성 있고 독립적인 지식 분야로 자리매김.
- 1회성, 파편성 번역->체계적 연속성
- 미,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작품 번역
- 소비에트 интернационализм 표방
- 번역규칙에 대한 직관적 인식만 존재, 이론적 배경 부재.
- 1927년 Андрей Венедиктович Федоров '번역의 이론(теория перевода)' 최초 언급.

- 1919년 막심 고리키 '세계문학(всемирная литература)' 출판사 설립->세계문학도서관 시리즈 200편 출간 (발작, 스탄달, 실러, 바이런, 디킨슨, 버나스 쇼, 마크 트웨인 등)

'ACADEMIA' 출판사

- -> 번역기준 제고, 편집자와 번역가의 전문가의식 제고

최초 번역 교재 출판

Корней Чуковский и Николай Гумилёв

«Принципо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да»

1936년



- 모든 출판물 철저히 검열, 출판회의에서 세밀하게 검토- 번역 품질 보장(의미, 형태 등가 추구)

М. Лозинский, Т. Щепкина-Куперник, С. Мрашак, Н.Любимов, Е. Калашникова, Л.Гинзбург, Б.Пастернак, Н. Тихонов

번역가 엄격한 국가 이데올로기속에서 작업, 출판 계획 국가 통제, 작가 및 작품 엄격한 사상 검증-> 텍스트 수정 허용

## 1930-1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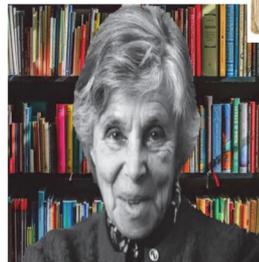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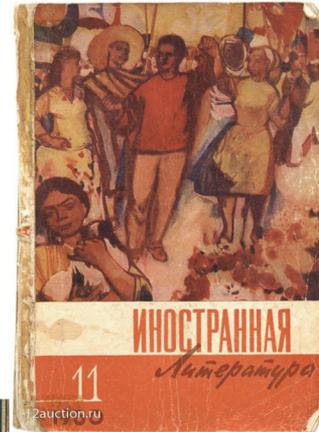
- 민간 및 협동 출판사는 폐지,
- 회의와 총회가 조직- 결의안과 선언 발표.
- 1933년 저널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ая литература' 창간
  - 러, 불, 영, 독어로 출판. 런던, 뉴욕 등 대도시 공산당에 배포.
- 소비에트 번역학파 국제무대에서 인정
- 1934년에 번역을 국가적 중요 문제로 선포
- 1936년 제1차 전 소비에트연맹 번역가 회의.
- 번역가 연맹- 번역 강좌와 워크숍 개설.



문학신문(1936년 1월 10일) 기사

## 1950년대

- 전쟁 후 저널명 'Иностранная литература'로 변경~ 현재까지 발간
- 서구문학 소련밖의 세계를 이해하는 유일한 도구
-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 '호밀밭의 파수꾼'(1951) 번역판 출간(1960년)
- 포크너, 카프카 보거네트 작품 소개,
- 안네프랑크의 일기 번역.



- 문학번역가 - 다른 세계로의 안내자.
- 상하향식 번역 수요-승인받은 서적에 대해 출판사 번역 주문 or 번역가가 번역대상 서적 리스트 제출
- (Главлит)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по делам литературы и издательств
- 노련한 번역가만 선호
- 1934년 이전 다수의 창작 단체 존재, 자유로운 가입
- 반소비에트 단체로 지명되어 폐지. 작가연맹 가입 어려움
- 연맹회원 추천서 및 사무국 절반의 승인 있어야 출판 가능
- 번역 보수 - 시의 경우 한 줄마다 지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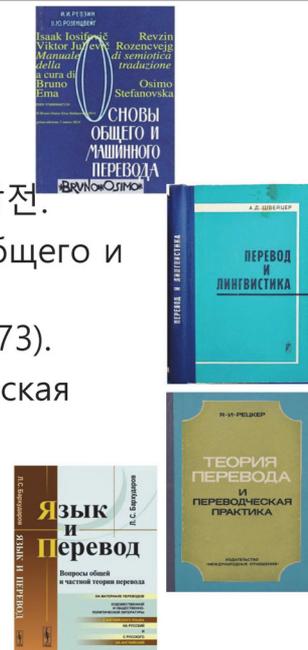
- 1950년대 조지타운 실험 이후 기계번역 관심 증가
- 1955년 소비에트 과학 아카데미 컴퓨터 기계번역 개발위해 2개의 연구 그룹 편성
- 1956년 최초 소비에트 기계번역 고안. 약 2만3천 단어 내장
- 기계번역 대중적 인기 없음



ЭВМ «Стрела»

## 1960-1970년대

- 번역이론은 60년대와 70년대에 특히 급속도로 발전.
1. И. И. Ревзин и В. Ю. Розенцвейг «Основы общего и машинного перевода» (1964).
  2. А. Д. Швейцер «Перевод и лингвистика» (1973).
  3. Я. И. Рецкер «Теория перевода и переводческая практика» (1974).
  4. Л. С. Бархударов «Язык и перевод» (1975).
  5. К. И. Чуковский «Высокое искусство»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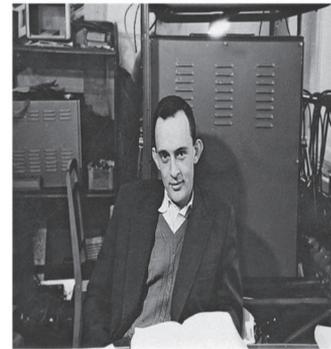


## 1980년대

- 페레스트로이카와 금지 도서
- 페레스트로이카 기간 동안 '금서'번역 급증.

조지 오웰 '1984'(Виктор Голышев и Вячеслава Недошивин)

- 80년대- 원문 일반 대중에게 공개. -> 고품질 번역의 가치가 높아짐.
- 소설 번역은 종교적 이유로 검열. Ирина Гурова의 '제인 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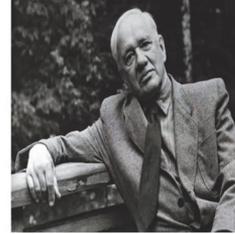
Виктор Голышев во время работы писателем, 1961 год.  
Из личного архива Виктора Голышева

## 1990년대

- 90년대에는 대부분의 번역이 영어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
- 비영어권 작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많은 비전문가들이 번역을 맡게 됨-> 부실한 번역 등장.
- 신생 출판사들은 신작 번역 출시에 급급, 번역 명작을 만드는 데에는 관심이 없음.
- 번역 작업에 대한 보수는 다양한 방식. 다양한 상업 회사 및 합작 투자 회사에서 일하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번역가는 높은 급여(다른 언어 번역가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 특히 이전에 국영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수입을 얻었던 소수 언어 번역가들에 영향)
-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말 러시아의 번역 활동은 그 규모와 사회적 중요성 유지. 교육 기관에서 번역가 교육이 계속되고, 전문 번역가 협회가 만들어졌으며, 번역 작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 번역학 창조에 큰 공헌을 한 러시아 학자들은 인간 활동의 중요한 영역에 대한 연구 계속.

## 소비에트 번역가들

- 1) Корней Иванович Чуковский(1882-1969),  
아동문학가



- 번역가 - Mark Twain, W. Whitman, O. Henry 작품 번역
- 1936년 번역이론서 '번역의 예술' 출간

- 2) Маршак Самуил Яковлевич(1887-1964)

- 극작가, 번역가, 비평가, 아동작가



- 셰익스피어 소네트 번역(스탈린상 수상), 영국 시, 팝송, 민요, 동요 번역, 유대인 작품 번역),  
우크라이나어, 벨로루시어, 리투아니아어, 아르메니아어 및 기타 시인 작품 번역, 마오쩌둥 시 번역

3) Иван Александрович Кашкин(1899-1963)

- 번역가, 문학연구자, 비평가, 문학번역 이론가, 작가연맹 번역가
- 1930년대 문학번역학파 창설(Кашкинцев)-



저널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ая литература'번역작품 게재

- 해외 고전 작품 재번역 및 새로운 작가(제임스 조이스, 칼 스테인벡, 버나드 쇼, 알드리지 등) 소개
- 제임스 알드리지 'The hunter' ->Охотник
- 제프리 초서 켄터베리 이야기, E. Hemingway 및 기타 미 작가 작품 번역
- E. Hemingway-"소련에 카슈킨이라는 젊은, 지금은 늙었을 겁니다만, 남자가 있습니다. 빨간 머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머리가 백발이 됐겠지요. 그는 내가 상대한 모든 비평가와 번역가 중에서 최고입니다"
- Теория реалистического перевода

## 소비에트 번역가들

4) Борис Пастернак - " Намеренная свобода, без которой не бывает приближения к большим вещам "

- 셰익스피어의 여러 희곡, 괴테의 파우스트 등 자신과 경쟁했던 많은 시인의 시를 번역

4) Михаил Леонидович Лозинский (1886~1955) 셰익스피어 및 다른 극작가의 희곡, 단테의 신곡 번역. 브류소프의 방식에 더 가까웠으나 단어대 단어번역 지양.

- 30년대- 민간 및 협동 출판사는 폐지, 문학 및 저널리즘 출판, 과학 및 기술 번역대규모 국영 출판사에 집중.. 이때부터 80년대 후반까지.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번역 출판에 관한 모든 작업은 (70년대~80년대에 점차 악화되기는 했지만) 엄격한 통제 하에 이루어짐. 번역 작품과 번역에 모두 적용.
- 그러나 대형 출판사를 중심으로 번역 및 편집 인력이 집중- 문학 번역의 평균 수준 향상에 일조.
- 다민족 국가로 인한 번역활동 크게 증가 -민족 문학 작품이 상호 교환.
- 그루지야어, 아르메니아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아제르바이잔어 및 기타 민족들의 서사시 번역
- 러시아 작가이자 시인 Михаил Лозинский, Борис Пастернак, Николай Тихонов 등 기여

### 5) М. И. Цветаева(1892-1941)

시인, 번역가

쇼스타코비치 마리나 츠베타예바의 시를 바탕으로  
작품 창작



- 한국경제**  
**마리나 츠베타예바의 초상, 몸짓 언어로 풀이한 천재 시인의 굴곡진 삶**  
 [고재연 기자] 이달 8일까지 서울 동숭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연극 마리나 츠베타예바의 초상' 1949년 러시아 혁명 이후 공황했던 시기, 딸 이리...  
 2015.08.30
- 연합뉴스**  
**연극으로 만나는 러시아 천재 시인 마리나 츠베타예바의 삶**  
 (서울=연합뉴스) 관해진 기자= 20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 마리나 츠베타예바의 굴곡진 삶을 그린 연극이 국내에서 초연된다. 극단 풍경...  
 2015.08.14
- 뉴스1**  
**러시아가 숭상하는 서정시인.. 연극 '마리나 츠베타예바의 초상' 국내 초연**  
 【서울=뉴스1】이재훈 기자= 극단 풍경이 박정희 연출로 마리나 츠베타예바의 초상'을 국내 초연한다. 러시아에서 가장 숭상하는 서정 시인으로...  
 2015.08.21

### 6) Анна Андреевна Ахматова (1889-1966)

- 시인, 번역가
- Голоса поэтов- 외국 시인 작품 번역집
- 고대 이집트 가사 번역
- **Б. Л. Пастернака,, А. А. Ахматова** 등 수많은 뛰어난 작가와 시인의 창작 금지 및 제한- 훌륭한 번역 작품 등장 촉진. 생계를 위한 번역활동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뛰어난 번역작품 제시



## 7) Алексей Михайлович Михалёв(1944-1994)

- 번역가, 성우
- МГУ 아시아 아프리카 학부 페르시아 전공
- 주 아프가니스탄, 이란 소비에트 대사관 번역가
- 외교부 소속 정상회담 통역가
- 페르시아어와 영어 소설 번역
- 영상 번역가 -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영화비평가 세르게이 쿠드랴체프 - “Моцарт синхронного перевода”  
영화감독 안드레이 플라호노프 - “직업적 타협을 외면한채 죽어가는 사람들”

## 정리

-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오래된 번역본에 대한 비판 확대.
- 각색된 외국 작품 등장 - Frank Baum 동화, Hugh Lofting 의 원작보다 볼코프, 추코프스키 각색한 번역이 더 인기 많음.
- 소련 문학 번역 검열, 이념화, 동시에 체계적인 번역 학교가 등장
- 1917년 혁명 이후 문학 번역은 별도의 높은 보수를 받는 직업으로 자리매김.
- 젊은 전문가 양성 시스템 등장, 번역 규범과 표준 등장, 작가 연합 형태의 자체 노동 조합도 등장.
- 90년대에 시장의 상업화가 시작, 비전문가에 의한 새로운 책과 혼란스러운 번역물이 쏟아짐.
- 번역의 시대- 기술발전, 신과학 등장, 유럽어로 쓰인 소수민족문학 등장, 새로운 번역 형태 등장, 번역이론 등장

## 참고문헌

- перевод,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России советского периода  
[https://webkonspect.com/?room=profile&id=2361&labelid=22958#google\\_vignette](https://webkonspect.com/?room=profile&id=2361&labelid=22958#google_vignette)
- **История перевод в 19 веке.**
- [https://studopedia.su/9\\_3077\\_perevodcheskaya-deyatelnost-v-rossii.html](https://studopedia.su/9_3077_perevodcheskaya-deyatelnost-v-rossii.html)
- Нейман Наталия Романовна (2017). Дискуссия о типах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да в Советском переводеведении. *Studia Litterarum*, (2), 190-211.
- Земскова Елена Евгеньевна (2016). Переводчики с языков национальных республик в советской литературной критике середины 1930-х гг. *Новый филолог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4 (39)), 167-177.
- Азов А. Поверженные буквалисты: Из истори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да в СССР в 1920–1960-е годы. М.: Издат. дом Высшей школы экономики, 2013. 304 с.
-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теори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да // Материалы Всесоюзного симпозиума (25 февраля — 2 марта 1966 г.). М., 1967. Т. 1. 353 с. / Т. 2. 341 с.
- Федоров А.В. Основы общей теории перевода. М.: Высшая школа, 1968. 396 с.

# 러시아 영상 콘텐츠에서 관용어 번역 양상

## - 넷플릭스 '메이저 그룹: 플레이그 닥터'를 중심으로

김규형 (한국외대)

### 목차

- 연구 목적
- 관용어 선행연구
  - 정의
  - 분류
  - 유래 기준 분류
  - 번역 전략
- 영상번역 선행연구
  - 용어
  - 연구 동향 추이
  - 자막 번역의 특징
- 분석 방법과 작품 선정
- 영화 소개
- 분석 결과
- 결론
- 참고문헌

### 연구 목적

- 관용어 번역은 번역사들이 고민하는 1순위
- 관용어에 한 민족의 역사, 문화, 풍습 등이 녹아 들어 있음
- 관용어는 축자역이 아닌 속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음
- 영상번역 중 자막은 시간적·공간적·시각적 제약이 있어 시청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짧은 자막을 인식하고 뜻을 파악해야 함

- 예) 

Карман к гробу не пришьёшь.	주머니를 무덤에 꿰맬 수 없다(??)
	죽을 때는 누구나 빈 손이죠. (OK)

- 따라서 시청자들이 자막을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막을 생성해야 함

- 연구질문

영상 콘텐츠에서 관용어 번역 양상은 어떻게 될까?

관용어 번역 전략은 유래에 따라 달라지나?

## 관용어 선행연구

- 정의:

학자	정의
민현식 (2003)	습관적으로 늘 씀
구인환 (2021)	둘 이상의 낱말 결합 → 제3의 뜻
Фразеология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е единицы + Крылатые слова и выражения(фразы)

- 분류:

학자	분류 기준
부르거(2003)	기호의 기능적 관점 → 지시적, 구조적, 의사소통적
보트약(1992)	형식적 및 의미적 관용어
콜롬보(1993), 글릭스버그(2001), 레아 (2015)	투명 및 불투명 관용어
이상혁(2015)	출처의 관점 → 대중문화, 문학작품 및 성경

• 분류 기준 중 하나인 유래

- 이상혁의 관용어 분류기준도 유래로 간주 가능
- Kang, H., Yang, Y.(2022): 중국의 사자상어를 유래별로 분류하여 번역의 문제점 고찰
  - 우화, 신화와 전설, 역사적 사건, 운문, 구전 민속 문학, 차용
- 러시아 관용어의 분류기준
  - 신화와 미신, 문학, 종교, 문화와 풍습, 자연 현상, 역사적 사건, 격언, 상용구, 비속어

• 번역 전략

- 코미사로프(Комиссаров)의 번역 전략
- 대응, 유사, 차용, 일반화 + 생략(축약) ← 영상번역 전략의 특징

전략	예시	한국어 자막
대응	<b>Руки об тебя марать</b> неохота.	네놈 때문에 손 더럽히기 싫다
유사	А иначе весь мир <b>с катушек слетит</b> .	그러면 사회가 탈선한다고
차용	Еще вчера здесь был <b>пир во время чумы</b> .	'흑사병 시대의 축제'가 열렸지
일반화	А что про него думать? Убийца <b>и в Африке</b> убийца.	생각할 게 어디 있어요? 어디서든 살인자는 살인자죠
생략	Потому что мы <b>на хрен</b> стоя!	왜냐면 우리는 한 무리니까요!

## 영상번역(AVT) 선행연구

- 용어: 영상번역, 시청각번역, 자막번역
- 러시아와 동유럽: 보이스 오버(Озвучивание)
  
- 영상번역 동향 추이
- 근 20년간 영상번역 관련 논문 수 꾸준히 증가
- 주로 한<->영(중, 일) 위주
- 러시아 영상 콘텐츠는 영어를 통한 중역인 경우도 존재  
→ 넷플릭스의 경우 직접 번역 비중을 높이며 시청자들의 피드백 반영

## 자막 번역의 특징

- 출발어는 음성, 도착어는 문자
- 제한된 시간, 두 줄의 공간, 짧은 시간에 인식 가능해야 함
- 축약과 생략 번역 전략
  
- 넷플릭스 자막의 특징
  - ‘Timed Text’
  - 외주(lyuno 등)를 통한 자막 제작
  - 한 줄에 최대 16자, 최대 두 줄, 외래어 표기법 원칙 준수
    - <https://partnerhelp.netflixstudios.com/hc/en-us/articles/216001127-Korean-Timed-Text-Style-Guide>

## 분석방법과 작품선정

- 총 자막 수 대비 관용어 비율 (총 자막 수/관용어 수)
- 상영시간 대비 관용어 비율 (관용어 수/상영시간)
- 코미사로프의 관용어 번역 전략에 따른 비율 양상
  - 대응, 유사, 차용, 일반화, 생략
- 관용어 유래별 번역 전략 비중과 그 차이점
  - 신화, 문학, 종교, 문화와 풍습, 자연현상, 역사적 사건, 격언, 상용구, 비속어
- $\chi^2$ 으로 통계적 유의성 고찰

## 영화소개

- Майор Гром: Чумной доктор(메이저 그롬: 플레이그 닥터)

• 평점: 3.8/5 Отзывик 7.7/10 Кино-Театр.Ру 4.2/5 IRecommend



## 분석 결과

### • 총 자막 수 및 상영시간 대비 관용어 비율

총 자막 수	상영시간	관용어 수	총 자막 수 대비 관용어 비율(%)	상영시간 대비 관용어 비율(분)
1496	138	62(3)	4.3	2.1

### • 번역 전략별 비중



대용	유사	차용	일반화	생략	오역	합계
5	17	5	35	2	1	65

### • 유래별 비중



신화	문학	종교	문화와 풍습	자연현상	역사적 사건	격언	상용구	비속어	합계
0	7	1	27	5	0	5	1	19	65

유래	개수	예시	한국어 자막
신화·미신	0	∅	∅
문학	7	Еще вчера здесь был <b>пир во время чумы</b> .	'흑사병 시대의 축제'가 열렸지
종교	1	<b>И видит Бог</b> , я слишком долго всё это терпел.	난 네게 고통을 준 그 모든 사람을 기억해 이미 참을 만큼 참았다고
문화와 풍습	27	А ты всё время в одиночку <b>на рожон лезешь!</b>	계속 혼자만 강한 척하잖아
자연 현상	5	Он как к нам попал, так они с Сережей стали сразу прям <b>не разлей вода</b> .	여기 온 첫날부터 이 둘은 꼭 붙어 다녔죠
역사적 사건	0	∅	∅
격언	5	<b>Карман к гробу не пришьёшь</b> .	죽을 때는 누구나 빈손이죠
상용구	1	Но, как говорится, <b>рано или поздно</b> все эти...	하지만 옛말처럼 결국 그런 개자식들...
비속어	19	А я потом <b>твою жопу прикрываю</b> .	뒤처리하는 다 내 몫이고
합계	65		

• 유래별 전략 비율 (오역 제외)

		교차표							
빈도		유래							
		문학	종교	문화와풍습	자연현상	격언	상용구	비속어	전체
VAR00001	대응	2	0	2	0	1	0	0	5
	생략	0	1	0	0	0	0	1	2
	유사	1	0	11	0	2	0	3	17
	일반화	3	0	12	5	0	1	14	35
	차용	1	0	2	0	2	0	0	5
전체		7	1	27	5	5	1	18	64
카이제곱 검정									
Pearson 카이제곱	값	60.803	자유도	24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000				
우도비		40.138		24	.021				
유효 케이스 수		64							

• P<0.05이기 때문에 유래별로 관용어 번역 전략의 차이가 있다.

## 결론

1. 관용어 번역 전략별 비중: 일반화가 다수
2. 관용어 유래별 비중: 문화와 풍습이 다수
3. 관용어 번역 전략은 그 유래별로 차이가 있음

교육적 관점	문화적 관점
1. 영상번역과 관용어의 특성 파악 및 이해 2. 통시적, 공시적 관용어가 혼재하기 때문에 양국 문화를 잘 이해하도록 교육	1. 'K-culture'가 부상하는 요즈음 아웃바운드 영상 번역에도 적용 가능 2. 포스트 워 시대 가장 먼저 교류될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 → 영상 콘텐츠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번역과 번역사의 중요성 증대

## 참고문헌

- 김규형 (2023). 영상 번역에 나타나는 러시아 관용어 번역 연구 -넷플릭스 '국민의 일꾼 더 무비'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7(1), 25-47.
- 김태진 (2018). 러시아어 욕설 연구. *러시아학*, 16, 35-68.
- 민현식 (2003). 관용 표현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재고. *한국어 의미학*, 12(0), 17-50.
- 박지수 (2016). 한영 속담 번역에서의 은유 처리 - 관용적 등가로서의 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8, 31-55.
- 박현지 (2021). 러시아 관용어에 나타난 '산'의 개념 연구. *노어노문학*, 33(1), 53-76.
- 서유경 (2011). *한국어 관용 표현의 러시아어 번역전략에 관한 실증적 연구*. 미출판 박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서울.
- \_\_\_\_\_ (2020). 러시아 영화 자막의 중역 문제 고찰. *통번역학연구*, 24(1), 96-126.
- 성승은, 한유진, 임현경 (2022). 넷플릭스의 중역을 통한 다국어 번역 현황. *번역학연구*, 23(1), 45-80.
- 이상빈 (2022). 우리는 번역학 용어를 제대로 쓰고 있는가? -'컬텍스트', '화면해설', '통역사' 등을 기반으로-. *통역과 번역*, 24(3), 125-150
- 이상혁 (2015). 영어 관용어의 유래와 특성에 관한 연구. *신영어영문학*, 61, 265-286.
- 조성은 (2014). 영상 번역 연구의 동향과 전망. *번역학연구*, 15(2), 205-224.
- Burger, H. (2003). *Phraseologie. Eine Einführung am Beispiel des Deutschen*. Berlin: Erich Schmidt Verlag
- Colombo, L. (1993). Comprehension of Ambiguous Idioms in Context. *Idioms: Processing, Structure and Interpretation*. New York. 163-167
- Glucksberg, S. (2001). *Understanding figurative: From metaphors to idioms*. Oxford: Oxford Univ. Press, 144
- Holmes, J. (1988/2000).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In L.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pp.172-185). London & New York: Routledge.

- Kang, H., & Yang, Y. (2022). A study on English translation of Chinese four-character idioms: Strategies and problems. *Linguistics and Culture Review*, 6(1), 200-213.
- Leah, C. (2015). *Idioms - Grammaticality and figurativeness*. University of Oradea. URL: [http://www.theroundtable.ro/Current/Language/Claudia\\_Leah\\_Idioms\\_Grammaticality\\_and\\_Figurativeness.pdf](http://www.theroundtable.ro/Current/Language/Claudia_Leah_Idioms_Grammaticality_and_Figurativeness.pdf)
- Виноградов, В.В. (1977). Об основных типах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х единиц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Лексикология и лексикография*. -М., (140-161)
- Ухтомский, А. В. (2007). *Приемы и методы перевода фразеологизмов*. Неопубликованная кандидатская диссертация. Во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МО РФ, Москва.
- Шанский, Н. М. (1996). *Фразеолог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языка* (4-е изд., испр.).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Специальная литература.
  
- 정수정 (2019). *관용구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Díaz-Cintas, J., & Remael, A. (2021). *Subtitling Concepts and Practic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Wotjak, B. (1992). *Verbale Phraseolexeme in System und Text*. Berlin/New York: Max Niemeyer Verlag.
- Комиссаров, В. Н. (2011). *Современное переводоведение* (2-е изд., испр.). Москва: Р. Валент.



# 경찰통역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노트테이킹

홍서연 (단국대)

## 연구 배경

- 노트테이킹은 순차통역 시 발화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Gonzalez 2012), 효율적인 노트테이킹은 통역사들이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스킬 중의 하나임(Chmiel 2010: 233).
- 노트테이킹은 통역인이 자주 노출되는 텍스트의 형태와 내용에 영향을 받기(Chmiel 2010: 248)때문에, 회의 순차통역을 다룬 선행연구 결과를 경찰통역에 적용하기 어려움. 경찰통역은 법률, 의료, 기술용어 등 전문 용어와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세밀한 행동 묘사가 포함되고,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대화통역이므로 회의 통역과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 러시아어 경찰통역은 대부분의 경우가 결혼이주여성임. 현업이 있으면서 수요 발생 시 경찰통역에 응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경찰청에서 통역인들을 위한 통역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통역인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통역실습 시간은 2년간 12시간(이지은 2021:220)에 불과함.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경찰통역인들이 얼마나, 어떻게 노트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상'에 주목하고자 함. 타인의 노트테이킹 경험은 통역인에게 도움이 되고(임세인, 이주연, 임향옥 2022: 130; Orlando 2010), 연구결과를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경찰통역인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 수행 절차
  - ✓ 1단계 (본 연구): 현상 연구. 경찰통역인들의 노트테이킹의 분량, 방법 관련 고찰
  - ↓
  - ✓ 2단계 (후속 연구): 경찰통역 담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찰통역의 노트테이킹 기법 개발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러시아어 경찰통역인을 대상으로 2024년 2월 구글폼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 총 14명이 응답함.
  - 경찰통역 시 '노트테이킹을 하는지', '노트테이킹이 통역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노트테이킹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객관식 질문에 전원(100%)이 '그렇다'라고 응답함.
  - 노트테이킹 관련 자유 의견
    - “메모가 생각보다 빨리 되지 않고, 나만의 방법을 찾고 싶다”
    - “약어와 기호 및 기타 기술이 있다면 배우고 싶다” (2명)
    - “기본적인 노트테이킹 수업을 듣고 싶다” (3명),
    - “다른 사람들의 노트테이킹 경험을 알고 싶다”
    - “통역할 때 노트테이킹을 하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노트에 의존하여 통역에 방해가 될 때가 있다. 효율적으로 노트테이킹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 선행 연구

- 노트테이킹 언어
  - 1) SL vs. TL
    - Rozan (1956), Seleskovitch (1975) : TL로 노트. 생산을 촉진하고, 수신되는 정보처리를 자연스럽게 함
    - Alexieva (1994), Gile (2009) : SL로 노트. 원발화 청취 노력 최소화, 전체 발화 내용 파악 용이(Szabo 2006)
  - 2) 모국어
    - Dam (2004) : 발화의 청취 및 분석 노력 최소화
  - 3) 경제적인 언어로 노트
    - Szabo (2006) : 헝가리어와 영어 중에서 더 경제적인 영어로 노트하는 경향
    - Błaszczuk & Hanusiak (2010) - 영어와 폴란드어 통역 실험에서 영어와 스웨덴어로 노트, 경제성 원리 기반함.
  - 4) 영어로 노트
    - Chen (2020) - 목표 및 원천언어와 관계없이 영어를 선호, 경제성 원리 기반

## 선행 연구

○ 노트테이킹 기법

- 1) Rozan(1956) : 아이디어 기록, 약어 사용, 연결어 사용, 동사 부정형 표시, 강조 표시, 수직성, 내용 구분
- 2) Seleskovitch(1975) : 고유명사, 숫자, 전문용어, 리스트, 아이디어, 연결어, 첫 문장과 스피치의 마지막 문장, 독특한 표현
- 3) Jones(2014) : 대각선 노트, 좌측 여백, 수직 정렬, 약어와 기호 사용, 자주 등장하는 개념, 연결어, 시제, 강조, 화살표, 접미사, 괄호, 숫자
- 4) 이상빈(2012) : 대각선 노트, 세로 배치, 모호하지 않은 심볼 및 기호 사용. 고유명사, 숫자, 전문용어, 아이디어, 동사, 연결어

## 선행 연구

○ 어떻게 노트할 것인가?

수직성 / 계단형 / 약어 / 기호

○ 무엇을 노트할 것인가?

Rozan (1956)	Seleskovitch (1975)	Jones (2014)	이상빈 (2012)
	고유명사		고유명사
	숫자	숫자	숫자
	전문용어		전문용어
	나열	나열	
	연결어	연결어	연결어
동사(부정형 표시)		동사(시제, 범조동사)	동사(시제, 조동사)
			주어
			목적어
	메시지의 첫문장		
	스피치의 마지막 문장		
	독특한 표현		

<그림>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노트테이킹 핵심요소

## 연구 문제

○ 연구 문제

첫째, 경찰통역인은 **어떻게** 노트하고 있는가?

- 수직성, 계단식 배열, 내용 구분 등의 형식 / 언어, 기호, 숫자 등

둘째, 경찰통역인은 **얼마나** 노트하고 있는가?

- 원문 대비 노트레이킹의 분량

## 연구 방법

- 연구참여자 모집 : 네이버 밴드(서울경찰청이 수사통역관과 소통을 위해 개설) 공지
- 참여 희망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 개인정보 수집 관련 내용을 구두 및 서면으로 고지
- 실험연구 진행
  - 화상회의 포맷 Zoom 활용
  - 사전에 녹음된 경찰통역 담화를 들려주고, 참여자들이 통역하는 방식으로 진행
- 참여자 정보

<표> 참여자 정보

모국어(공용어)	명수	성별	연령대	경찰통역 횟수
러시아어	6명	여성	30대~50대	연간 약 10회~30회
한국어	2명	여성	30대~40대	연간 약 5회~25회

## 연구 방법

### ○ 통역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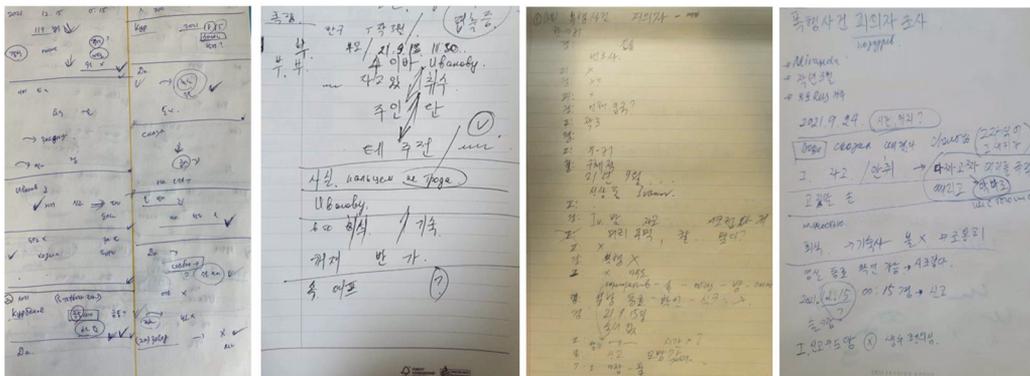
- '민간인 수사통역요원 전문화 교육 - 수사통역 통합교재(러시아어 버전)'에 수록된 경찰과 피의자 대화에 기반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
- 피의자 권리 고지, 인정신문, 사건 조사 내용 포함
- 법률 및 의학용어를 포함하는 전문용어, 고유명사, 숫자 등 포함
- 텍스트는 총 3개, 경찰의 질문과 피의자(피해자)의 대답 21개 쌍으로 구성

<표> 통역 자료

통역 자료	녹음 시간	단어 수	
		한국어	러시아어
폭행 사건	3분 15초	122	139
금품피해 사기 사건	1분 56초	40	120
성추행 사건	3분 10초	103	313
총합계	8분 21초	265	572
		총 837	

## 분석 결과

### ○ 연구문제 1 - 경찰통역인은 어떻게 노트하는가? (수직성, 계단형, 내용 구분)



<통역인 K2>

<통역인 R3>

<통역인 R5>

<통역인 R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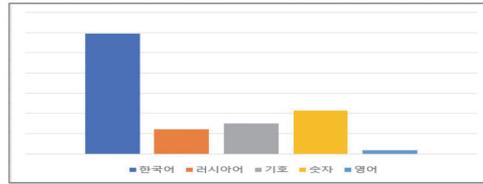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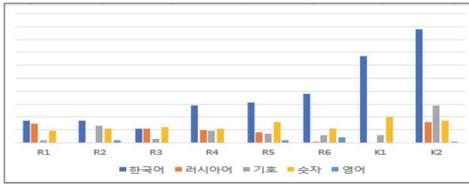
- ⇒ 경찰의 질문과 피의자(피해자)의 대답을 구분한 통역인 2명
- ⇒ 수직성, 계단형 노트테이킹 사례가 많지 않음

## 분석 결과

○ 연구문제 1 - 경찰통역인은 **어떻게** 노트하는가? (한국어, 러시아어, 기호, 숫자, 영어)

<표> 한러 노트테이킹 방식

	R1	R2	R3	R4	R5	R6	K1	K2	합계
한국어	17	17	11	29	31	38	67	88	298
러시아어	15	0	11	10	8	1	0	16	61
기호	2	13	3	9	7	6	6	29	75
숫자	9	11	12	11	16	11	20	17	107
영어	0	2	0	0	2	4	0	1	9
합계	43	43	37	59	64	60	93	151	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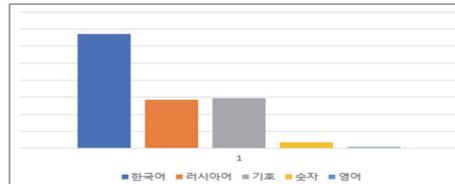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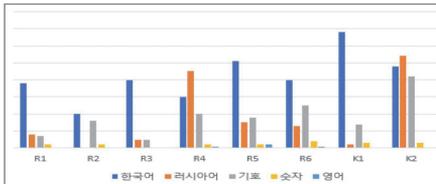
- ☞ 한러 통역의 경우 러시아어보다 한국어로 노트하는 경향
- ☞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노트테이킹 비율이 높게 나타남
- ☞ 기호 사용은 제한적(→ (인과관계, 시간 흐름), — (동사 생략), ? (질문), X (부정), ○ (긍정))
- ☞ 영어로 고유명사(이름), 국가를 표시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음

## 분석 결과

○ 연구문제 1 - 경찰통역인은 **어떻게** 노트하는가? (한국어, 러시아어, 기호, 숫자, 영어)

<표> 러한 노트테이킹 방식

	R1	R2	R3	R4	R5	R6	K1	K2	합계
한국어	38	20	40	30	51	40	68	48	335
러시아어	8	0	5	45	15	13	2	54	142
기호	7	16	5	20	18	25	14	42	147
숫자	2	2	0	2	2	4	3	3	18
영어	0	0	0	1	2	1	0	0	4
합계	55	38	50	98	88	83	87	147	646



- ☞ 러한 통역의 경우에서도 한국어 노트테이킹의 비율이 높음
- ☞ 통역인 K2의 경우 단어보다는 약어 혹은 단어의 첫 글자 사용

##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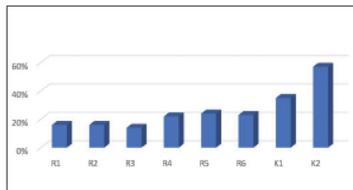
### ○ 연구 문제 2 - 얼마나 노트하고 있는가?

<표> 원문 대비 노트테이킹 분량(한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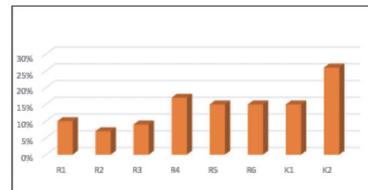
R1	R2	R3	R4	R5	R6	K1	K2
43	43	37	59	64	60	93	151
16%	16%	14%	22%	24%	23%	35%	57%

<표> 원문 대비 노트테이킹 분량(러시아어)

R1	R2	R3	R4	R5	R6	K1	K2
55	38	50	98	88	83	87	147
10%	7%	9%	17%	15%	15%	15%	26%



<그림> 원문 대비 노트테이킹 분량(한국어)



<그림> 원문 대비 노트테이킹 분량(러시아어)

- ☞ 평균 노트테이킹 분량 한국어 26%, 러시아어 14%
- ☞ 대체로 한국어 모국어 통역인의 노트테이킹 분량이 많음

## 분석 결과

### ○ 어떻게 노트하는가?

- √ 경찰과 피의자(피해자)의 질문과 대답의 구분이 없는 경우가 다수
- √ 한국어 : 통역인의 모국어와 관계없이 노트가 수월한 한국어로 노트하는 경향 (Szabo 2006)
- √ 러시아어 : 고유명사(이름, 지명, 전문용어(성추행, 척추협착증 등)), 관용표현(и пальцем не трогал)
- √ 기호 : → (인과관계, 시간 흐름), — (동사 생략), ? (질문), X (부정), ○ (긍정)
- √ 숫자 : 날짜, 시간, 금액
- √ 영어 : 국가명(K, R), Miranda, 고유명사(Ivanova, Iv), 문자(SMS) (Błaszczuk & Hanusiak 2010)

### ○ 얼마나 노트하는가?

- √ 평균 노트테이킹 분량 한국어 26%, 러시아어 14%
- √ 대체적으로 한국어 모국어 통역인의 노트테이킹 분량이 많음
- √ 노트테이킹 분량 관련 개인차가 큼. 많게는 4배가 차이 남

## 기대 효과

- 러시아어 경찰통역 교육에 활용
  - √ 선행연구에 제시된 노트테이킹 전략, 기법 등 소개
  - √ 실제 통역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기법 사례 소개(언어, 특수 기호, 숫자, 영어 등)
  
- 경찰통역 노트테이킹 기법 개발
  - √ 경찰통역 시 자주 사용되는 용어 및 표현
    - 경찰의 질문(미란다원칙, 인정신문 등)
    - 전문용어(혐의명, 법률명, 의료용어 등)
    - 사건발생 경위 묘사(사건발생 시간 순서, 인과 관계 등 기호, 사건 묘사를 위한 그림, 이모티콘 활용)
  
- 노트테이킹은 통역인 개인적 선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Dam 2007; Lim 2006; Szabo 2006),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노트테이킹 기법 및 전략, 경찰통역인들의 노트테이킹 사례를 제시하여 자신만의 노트테이킹 기법 개발을 위한 안으로 제시

## 참고 문헌

- 경찰청. (2020). 수사통역 통합 교재. 경기도: 은학사.
- 이상빈. (2012). 노트테이킹 핵심기술. 서울: 한국문화사.
- 이지은. (2021). 경찰 통역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에 관한 소고: 통역 교수자의 관점에서. 번역학연구, 22(2), 211-241.
- 임세인, 이주연, 임향옥. (2022). 구성주의적 노트테이킹 수업 경험에 관한 연구. 통역과 번역, 24(2), 111-142.
- Alexieva, B. (1994). On teaching note-taking in consecutive interpreting. In Teach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2 (p. 199). John Benjamins.
- Błaszczyc, P., & Hanusiak, D. (2010). The Choice of Language Note-taking for Consecutive Interpreting: A Polish Perspective. In MikaEL Kääntämisen ja tulkkauksen tutkimuksen symposiumin verkkojulkaisu. Electronic proceedings of the KäTu symposium o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Vol. 4).
- Chen, S. (2020). The process of note-taking in consecutive interpreting: A digital pen recording approach. Interpreting, 22(1), 117-139.
- Chmiel, A. (2010). How effective is teaching note-taking to trainee interpreter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4(2), 233-250.

## 참고 문헌

- Dam, H. V. (2004). Interpreters' notes: On the choice of language. *Interpre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in Interpreting*, 6(1), 3-17.
- (2007). What makes interpreters' notes efficient?. *Doubts and directions in translation studies*, 19.
- Gile, D. (2009).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1-299.
- González, M. A. (2012). The language of consecutive interpreters' notes: Differences across levels of expertise. *Interpreting*, 14(1), 55-72.
- Jones, R. (2014). 회의통역해설. 광중철, 홍설영 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Lim, H. O. (2006, January). A post-mortem of note-taking. In *FORUM. Revue internationale d'interprétation et de traduction/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Vol. 4, No. 2, pp. 89-111). John Benjamins.

## 참고 문헌

- Rozan, J. F. (1956). *La prise de notes en interprétation consécutive*, Genève. Georg et Cie.
- Seleskovitch, D. (1975). *Langage, langues et mémoire: étude de la prise de notes en interprétation consécutive* (Vol. 2). Lettres Modernes Minard.
- Szabó, C. (2006). Language choice in note-taking for consecutive interpreting. *Interpre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 Practice in Interpreting*, 8(2).



어학/통번역 분과

어학/통번역 분과 B: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 러시아 사회언어학 연구**

사회: **한만춘**(상명대, 한국슬라브어학회장, 한러대화 문화예술분과 위원)

- ▶ **슬라브어 한정성의 문법화: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 299
  - 발표: **정정원**(충북대)
  - 토론: **채유정**(한국외대)
  
- ▶ **프리발티카의 러시아인과 러시아어 상황** ..... 319
  - 발표: **정경택**(경상국립대)
  - 토론: **변군혁**(한국외대)
  
- ▶ **교수법의 절충주의적 접근을 통한 ‘중급러시아어작문’ 수업 모델 연구  
- 이동동사를 중심으로** ..... 327
  - 발표: **이새봄**(중앙대)
  - 토론: **손현익**(한국외대)



# 슬라브어 한정성의 문법화:

##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정정원 (충북대 러시아·알타이지역 연구소)

### I. 들어가며

한정성(definiteness, определенность)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한정성의 본질을 크게 두 가지, 즉 친숙성(familiarity) 또는 유일성(uniqueness)으로 본다(Czardybon 2017, Hawkins 1991, Ionin 2006, Löbner 2011, Ortmann 2014, Roberts 2003 등). 친숙성은 특정 명사구가 지시하는 대상이 청자에게 이미 알려진 것임을 의미하며, 선행 문맥에서 이미 언급되거나 암시된 대상이 언급될 때 이러한 친숙성에 기반한 한정성을 획득한다. 유일성은 특정 문맥에서 특정 표현이 유일한 개체를 가리킴을 의미하며, 일반 사회나 특정 언어공동체에서 유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천체, 통치자, 대표자, 가족, 신체부위 등을 지시하는 표현이 선행 문맥과 무관하게 유일성에 기반한 한정성을 획득한다. 이러한 한정성은 고유명사, 인칭대명사, 지시사, 격, 동사 상, 어순, 문장 강세 등 다양한 언어 단위와 방법을 통해 드러나며, 대부분의 유럽어에는 한정성만을 특별하게 표현하는 관사(article)가 독립된 단어나 표지로 존재한다. 후자의 경우 규칙적, 필수적으로 명시되는 한정성은 그 언어에서 별도의 품사 또는 문법범주가 되고, 후자가 없이 전자의 방법만으로 한정성이 부차적으로 표현될 경우, 그 언어의 한정성은 의미범주가 된다.

대부분의 언어에서 정관사(definite article)는 청화자와 대상의 거리를 가리키는 지시사의 공간 의미가 텍스트 혹은 담화표지로 발전하면서 파생되었고(Heine & Kuteva 2002:109-110), 슬라브어에서 문법화가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한정성 표지도 모두 지시사에서 형태적, 의미적으로 파생되었다.

한편 비한정성(indefiniteness)은 단순히 한정성이 부재함을 의미하거나 또는 특정성(specificity)으로 환원되기도 하는데, 특정성은 청자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고, 화자는 알고 있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하나의 개체를 가리키는 표현에서 드러난다. 이에 특정한 비한정적 대상은 문장에 처음 등장하며, 대부분의 유럽어에서 부정관사(indefinite article)는 ‘하나’를 의미하는 단어와 형태가 동일하거나, 그 단어에서 파생된다. 슬라브어에서도 ‘하나’를 의미하는 단어가 부정관사처럼 사용되는

데, 어떤 슬라브어에서도 그 사용이 규칙적, 필수적이지 않아 아직 문법화가 완료되지는 않았다.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의 ‘하나’를 나타내는 표현에서 발전된 부정관사는 다른 슬라브어에 비해 더 널리, 더 활발하게 사용된다(Mladenova 2007: 196-209, Naylor 1981/1982:533, Naylor 1983: 211-214, Станков 1995:87-150, Тополињска 1981/1982)<sup>1)</sup>.

또한 슬라브어 중에서는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가 정관사를 독립적 표지로 가지고 있다. 나머지 여러 슬라브어 표준어와 방언에서는 한정성과 비한정성 모두 별도의 독립적 표지와 그 표현의 필수성이 부재하지만, 현재 각각 다른 수준에서 문법화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성이 높은 수준으로 문법화된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몇 가지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II.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한정성 문법화의 주요 논점

### 2.1.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명사구 한정성의 문법화

특정 상황에서 특정 명사구가 지시하는 대상의 한정성을 표현하는 명시적 문법 수단인 정관사는 620개 언어 중 34.8%인 216 언어에서 독립적 형태로, 11.1%인 69 언어에서 지시사와 동일한 형태로 존재하고, 39.2%에 해당하는 243개 언어에 부재한다(Dryer 2015a). 부정관사는 534개 언어 중 19.1%인 102 언어에서 독립적 형태로, 20.9%인 112 언어에서 ‘하나’를 지시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55.4%에 해당하는 296개 언어에 부재한다(Dryer 2016b). 즉 언어 전반적으로 정관사가 부정관사보다 더 많이 문법화된 상태인데, 이는 슬라브어에서도 대체로 그러하다.

그렇다면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와 같은 관사 있는 슬라브어와 나머지 관사 없는 슬라브어를 구분하는 한정성의 기준은 무엇인가? 지시사가 직시성을 잃어 의미 퇴색(semantic bleaching)이 발생할 때(Lyons 1999:331), 지시사가 총칭(generic)으로 사용될 때(Krámský 1972:33,62), 연상적 대용(associative anaphora)과 선행 맥락 없이 의미적으로 유일한 개념을 표현할 때(Himmermann 2001: 831-841, De Mulder et als 2011:531), 화제(topic)적 대용 표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강세를 받지 않을 때(Diessel 1999: 118-128) 등으로 다양한 기준을 상정할 수 있다. 비교적 한정성의 문법화가 많이 진행된 서슬라브어, 즉 체코어, 폴란드어, 슬로바키아어, 고지/저지 소르브어 표준어와 방언들은 이 기준들을 부분적으로 통과하며,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정관사는 이 기준을 모두 만족시킴과 동시에, 형태적으로도 지시사와 구별된다. 문법화 과정 중 하나인 음운적 마모(attrition) (Lechmann 1985)를 통해 정관사의 길이가 지시사보다 짧아졌기 때문이다.

1) 모라비아 공국 시절 초기 체코어 문헌에서 jedin이 некий, етерь를 대신하여 사용되었고, 이것을 모라비아니즘(Moravianism)으로 보기도 한다(Flier 1974: 145, Львов 1966: 97-98). 하지만 그것이 현대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까지 계속 이어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린버그(Greenberg 1978:61-74)는 한정성의 문법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1) 0단계 (지시사) → 1단계 (정관사) → 2단계 (정관사/부정관사의 특정(specific) 용법) → 3단계 (명사 표지) (Greenberg 1978)

우선 0단계에서 1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시사의 의미 상실이 일어나 직시적 기능 이상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화용적 한정성 이외에 의미적 한정성도 표현해야 한다. 화용적 한정성은 선행 담화에서 이미 언급된 대상을 친숙성에 기반하여 다시 언급할 때, 의미적 한정성은 맥락 없이 청자가 알 수 있는 대상의 유일성에 기반하여 그것을 언급할 때 드러난다.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연상적 대응, 즉 선행 담화에서 언급된 대상과 연관된, 하지만 그 자신은 담화에서 처음 언급되는 대상 표현에 정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관사가 당연한 형태가 되어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한정성과 관계없는 자질을 표시해야 한다(De Mulder & Carlier 2011).

이러한 기준들을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에 적용해 보면, 관사 없는 슬라브어는 0단계에 머물러 있고,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는 1단계를 넘어 2단계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예문 (2)는 한정성 1단계의 중요한 특징인 의미적 한정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두 언어 모두에서 유일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신체 부위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는 선행 담화 등장 여부에 관계없이, 정관사를 동반한다. (3)은 한정성 문법화 2단계의 특징인 연상적 대응의 예시이다. (3a)의 불가리아어 예문에서 пилет(닭)이라는 단어는 첫 등장하는 단어 птицеферма (조류 사육장)에, 그리고 선행문맥과 управител(매니저)라는 단어에서 드러나는 회사라는 공간은 вход (입구)라는 단어에 후치정관사를 부여하고, (3b) 마케도니아어 예문에서 누군가가 아픈 상황은 그 다음 문장에 첫 등장하는 лекар (의사)에 후치정관사를 부여한다.

- (2) a. бл. **Сърцето** ме боли, когато го гледам това. (그걸 보면, 내 마음이 아프다)  
 b. 마. **Срцево** ме боли кога го гледам тоа. (Topolinjska 2014:179)
- (3) a. бл. (...) новият управител закупи два кафеза с живи пилета от птицефермата и ги постави пред входа. (Mladenova 2007: 61)(새 매니저는 조류사육장에서 산 닭이 든 상자 두 개를 사서 그것을 입구 앞에 놓았다.)  
 b. 마. Еден од војниците беше болен. **Лекарот** му се доближи на болницот. (Topolinjska 2014:181) (군인들 중 하나가 아팠다. 의사는 환자에게 다가갔다.)

다른 한정성 위계에서도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관사의 문법화가 매우 높은 정도임이 드러난다. 한정성을 유일성 자질로 환원시켜 만든 유일성 등급(Scale of Uniqueness) (Löbner 2011:320)<sup>2)</sup>을 실제 언어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수정한 (4)의 유일성 등급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유일성이 낮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일성이 높아지는데, 불가리아어와 마케도니아어는 어휘적 IN/FN까지, 즉 태양, 왕, 머리, 심장 등을 나타내는 단어에까지 정관사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 (4) 직시적 SN < 대응적 SN < 관계절 피수식 SN < 관계적 연상 대응 < 부분-전체 연상 대응 < 비-어휘적 FN < 어휘적 IN/FN < 고유명사 < 인칭대명사 (Ortmann 2014: 194)

필수적이진 않지만 (5)와 같이 유일성 위계에서 좀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고유명사에 후치정관사가 붙는 경우도 있으며,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과 달리, (6)처럼 소유형용사에도 후치정관사가 붙는 규칙성도 드러낸다<sup>3)</sup>. 정관사의 경우, 그 밖의 여러 환경에서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정관사보다 더 자주 발견되고, 더 널리 사용된다. 'A는 B이다'라는 구조에서 주어와 총칭의미를 표현할 때에도 (7)처럼 영어, 독일어에서 무관사로 표현하는 추상명사까지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에서는 항상 정관사로 표현하는 규칙성을 보인다.

- (5) a. **불. Росицата** али си дошлала? (Mladenova 2007: 188)<sup>4)</sup> (그 로시차는 집에 왔어?)  
 b. **마. Ми здодеа Скопјево!** (Topolinjska 2014:179) (나는 이 스코페가 지겹다.)  
 (6) a. **불. Моят** приятел се казва Карлос.  
 b. **마. Мојот** пријател се вика Карлос. (Topolinjska 2014:180) (내 친구 이름은 카를로스다.)  
 (7) a. **불. Човекът** е смъртен. **Любовта** е сладка. **Пушенето** е забранено.  
**마. Човекот** е смртен. **Љубовта** е слатка. **Пушењето** е забрането.  
**영. Man is mortal. Love is sweet. Smoking is prohibited.**

(Naylor 1981/1982, Naylor 1983: 215)

- 2) ‘개념유형과 한정성(Concept Types and Determination)’이론에 따르면, 명사는 내재적 유일성과 관계성(Relation) 유무에 따라 (a)의 4범주로 나눌 수 있다. (Löbner 2011: 307)

(a)

	[-]유일성	[+]유일성
[-]관계성	SN (Sortal Nouns) : stone, book...	IN (Individual Nouns) : moon, weather, Maria...
[+]관계성	RN (Relational Nouns) : sister, leg...	FN (Functional Nouns) : father, head, age...

이때 오른쪽 IN, FN와 같이 내재적 유일성이 있는 단어가 표현하는 한정성은 의미적 한정성, 왼쪽 SN, RN와 같이 내재적 유일성이 없는 단어가 대화나 텍스트에서 획득하는 한정성은 화용적 한정성이다. 가로축의 SN, IN는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RN, FN는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전제한다.

한편 본문 (4)에서 ‘어휘적 IN/FN’은 특정 단어 자체가 유일성을 갖는 경우이고, ‘비어휘적 FN’은 수사, 최상급과 같이 다른 어휘와 결합하여 비단일 어휘의 형태로 유일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

- 3) 친족명의 경우 예외적으로 불가리아어와 마케도니아어에서 후치정관사 사용이 제한된다. 마케도니아어에서 (b)의 후치정관사 표현이 감정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면(Topolinjska 2014: 180), 불가리아어에서 (c)의 후치정관사 표현은 모욕적이어서 잘못된 어법으로 간주된다(Mladenova 2007: 112).  
 (b) **마. мајка ми - мајката ми**  
 (c) **불. майка ми - \*майката ми**  
 4) 불가리아어에서 고유명사에 후치정관사가 붙는 경우는 구어체나 중부 발칸 방언, 남부 로도피 방언 등 일부 지역 방언에서 특징적이다. (Mladenova 2007: 189)

이렇게 불가리아, 북마케도니아에서 사용되는 표준어와 방언들 이외에 두 나라와 국경이 맞닿는 세르비아 남동부, 코소보, 알바니아, 루마니아 일부, 북마케도니아 북부, 불가리아 북서부에서 사용되는 토를락(Torlak) 방언에도 중립 -ѣт, -та, -то, 근칭 -ѣв, -ва, -во, 원칭 -ѣн, -на, -но의 삼원적 후치정관사가 존재한다.

발칸반도 밖에서는 독일 동부에서 사용되는 슬라브어인 소르브어의 기존 지시사 *tón, ta, te/to*가 *tu*(여기)가 앞에 붙거나, *-ne*가 뒤에 붙는(*tóne, tane, tene*) 등의 변화를 통해 길어지며, 형태적으로 강화되는 한편, *tón, ta, te/to* 자체는 직시 의미를 상실하고, 문장 강세도 받지 않는 정관사로 문법화되었다(Heine & Kuteva 2006: 113, Ortmann 2014: 307). 소르브어와 더불어, 폴란드 남부 고지 실레시아 방언의 지시사 *tyn, ta, te*도 수사, 최상급, 관계사의 선행사, 연상적 대응(*associate anaphora*)에서 사용되는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문법화가 진행된 상태이다(Ortmann 2014: 307-314). 슬로베니아어 구어의 강세 없는 *ta*도 수사, 최상급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며(Marušič & Žaucer 2007), 체코어 구어의 거리중립 지시사 *ten*도 연상적 대응, 최상급 및 유일성을 드러내는 어휘 앞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고, 총칭 표현에서도 가끔 사용되는 등(Cummins 1998, Kresin 2002, Dvořák 2020) 정관사의 문법화가 꽤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관사 없는 슬라브어 중에서도 관사 있는 언어인 독일어와 수세기간 직접 접촉하면서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슬라브어에서는 다른 나머지 무관사 슬라브어보다 정관사의 문법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같은 이유로,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와 국경을 마주하는 이탈리아 우디네(Udine) 지역의 슬로베니아어 레시아(Resia) 방언의 *te*도 원칭지시사 *itě*의 파생 형태로 정관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Runić 2013), 이탈리아 남부 몰리세(Molise)에서 사용되는 크로아티아어에서도 지시사를 주제적 대응(*thematic anaphora*)의 정관사로 사용하고 있다(Heine & Kuteva 2006: 113)고 보고된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어 북부방언의 *-от, -та, -то, -те*를 슬라브어 정관사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단어 뒤에 붙는 그 형태가 남슬라브어 후치정관사와 형태적으로 유사한 것에 많은 학자들이 집중하며, 슬라브어가 분화되기 전, 후기 원슬라브어에서부터 정관사가 시작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기도 한다(Гъльбов 1962: 106-107, Мирчев 1978: 198). 유형학적으로 북게르만어나 우랄-알타이어인 페름어의 정관사와 연관된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Касаткина 2008: 305, 310, 318). 하지만 러시아어 북부방언의 곡용하는 *-то*는 통사적으로 명사뿐 아니라 대명사, 형용사, 수사, 동사, 부사, 그리고 전치사 뒤에도 붙고, 기능적으로 강조 및 감정이입을 할 때 사용되어,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와의 형태적 유사성에서 불구하고 통사적, 의미적 관점에서 정관사라 보기 어렵다(Гъльбов 1962:101, Касаткина 2008:310-319). 다른 러시아어 방언과 표준어의 *-то*와 같은 소사(*particle*)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한편, 인접한 관사 미사용 지역의 영향으로 후치정관사 사용이 제한되는 불가리아어 방언도 있다. 세르비아와 국경을 접한 비딘(Видин) 지역 노보셀로(Ново Село) 방언에서는 다른 불가리아어 방언과 달리 명사에 후치정관사가 붙지 않고, 인칭대명사 단형의 반복으로 대신하며, 형용사에만 붙는 후치정관사는 중립지시사 *тъ*가 아닌 원칭지시사 *онъ*에서 파생된 형태이다(Гъльбов

1962: 108, Mladenova 2007: 91-각주 49, 321).

## 2.2.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명사구 한정성 표지의 삼원성

불가리아어 표준어에서 명사의 한정성 표지는 남성 -ът/ят, 여성 -та, 중성 -то, 복수 -те이고, 남성의 경우 사격에서는 명사 뒤에 -а/-я가 붙는다. (8a), (8c)가 그 예시이다. 이러한 명사 앞에 형용사, 소유형용사 등 수식어(modifier)가 오면 한정성 표지는 명사 어말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수식어 어말로 이동하고, 형태적 표지는 남성 -ият, 여성 -та, 중성 -то, 복수 -те, 남성 사격은 -ия가 된다. (8b), (8d)가 그 예시이다.

- (8) a. 불. Къде е прозорец**ът**/учител**ят**/книгата**та**/леглото**то**? Къде са моливите**те**? (어디에 창문 / 선생님 / 책 / 침대 / 연필(들)이 있어?)
- b. 불. Къде е тво**я**т прозорец / учител / тво**я**та книга / тво**е**то легло? Къде са твоите**те** моливи? (어디에 너의 창문 / 선생님 / 책 / 침대 / 연필(들)이 있어?)
- c. 불. Виждам прозорец**а**/учител**я**/книгата**та**/леглото**то**/моливите**те**. (난 창문 / 선생님 / 책 / 침대 / 연필(들)이 보여.)
- d. 불. Обичам сво**я** прозорец / учител / сво**я**та книга / сво**е**то легло / своите**те** моливи. (난 내 창문 / 선생님 / 책 / 침대 / 연필(들)을 좋아해.)

한편 표준 마케도니아어 정관사는 지시사와 마찬가지로 삼원적이다. 거리 중립적인 т 어간 후치정관사, 즉 남성 -(и)от<sup>5</sup>), 여성 -та, 중성 -то, 복수 -те, 가까운 대상의 한정성을 표시하는 в 어간 후치정관사, 즉 남성 -(и)ов, 여성 -ва, 중성 -во, 복수 -ве, 좀 더 먼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н 어간 후치정관사, 남성 -(и)он, 여성 -на, 중성 -но, 복수 -не가 그것이다.

어원적으로 연관된 마케도니아어 삼원적 지시사, 즉 화자에게 가까운 대상을 지시하는 근칭 ов oj, 화자에게 멀고 청자에게 가까운 대상을 지시하는 중간 тој, 화자와 청자에게서 모두 먼 대상을 지시하는 원칭 оној의 삼원적 지시사 체계에서 마케도니아어 정관사가 생겨났고, 정관사가 이러한 지시사의 삼원체계까지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 마케도니아어 표준어는 ‘삼원적 지시사 - 삼원적 정관사’ 체계가 되었다.

이러한 관사의 직시성 때문에 (9)의 마케도니아어 문장들은 어색한 문장으로 간주된다(Конески 1953/1967: 229). (9a)에서는 근칭 후치정관사 -ва가 대상이 나의 영역 안에 있음을 표시하는데, 그 영역 밖 청자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모순이며, (9b)에서는 원칭 후치정관사 -на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먼 대상의 한정성을 드러내는데, 그 영역 밖 화자가 청자에게 그 대상을 주는 것이 모순이기 때문이다. (10a), (10b)처럼 후치정관사를 맞바꾸면 그 모순은 해결된다. 또한 거리

5) “남성 -(и)от”은 명사 다음에는 -от, 형용사 다음에는 -иот이 음을 표현한다. -(и)ов, -(и)он도 마찬가지다.

중립적인  $\tau$  어간 후치정관사는 그러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 (9) a. 마. ? Дај ми ја книгава. (?나에게 (이) 책을 줘.)  
 b. 마. ? На ти ја книгана. (?자, 너에게 (저) 책.) (Конески 1953/1967: 229)
- (10) a. 마. Дај ми ја книгана/книгата. (나에게 (저/그) 책을 줘.)  
 b. 마. На ти ја книгава/книгата. (자, 너에게 (이/그) 책.)(Конески 1953/1967: 229)

마케도니아어 삼원적 정관사는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감정적, 인지적 거리를 드러낼 수도 있다. 즉 대상이 물리적으로 화자의 공간 밖에 존재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것으로 상정되거나 감정이 입 되면, (11)처럼 근칭 후치정관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Конески 1949: 269). 물론 그 반대로 물리적으로 가까운 것을 멀리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 (11) a. 마. Милувам секој ден род твојов прозорец. (Sonnenhauser 2009: 123) (항상 난 (이) 너의 창문 밑을 지나가.)  
 b. 마<sup>6)</sup>. Шо да се праж со чокоф? (Конески 1949: 269). ((이) 사람은 어떻게 하지?)

더 나아가 불가리아어 방언의 삼원적 정관사는 시제나 증거성(evidentiality) 등 문법범주를 표현하기도 한다. 불가리아, 그리스 북동쪽, 튀르키예 북서쪽 무슬림이 사용하는 불가리아어 포막(Pomak) 방언에서는 (12)와 같이 과거를 화자원칭-청자근칭  $\tau$  어간 정관사, 미래를 청화자원칭  $\eta$  어간으로 표현하고(Adamou 2011:876-877), 포막 방언과 불가리아 남부 로도피 방언에서는 (13)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전해들은 내용을 표현할 때 청화자원칭  $\eta$  어간 사용이 지배적이다(Adamou 2011:878-879, Каневска-Николова 2005:17-18).

- (12) 불-포. a. na 'sfadba-ta beh sas tfer'ven-et fu'stan (결혼식에서 난 빨간 드레스 입었다)  
 b. na 'sfadba-na fe 'nadena-m tfer'ven-en fu'stan (결혼식에서 난 빨간 드레스 입을거다)  
 c. na 'sfadba-sa sam. 'ima 'mnogo i'nsan (난 (지금) 결혼식에 있다. 사람이 많다.)

(Adamou 2011: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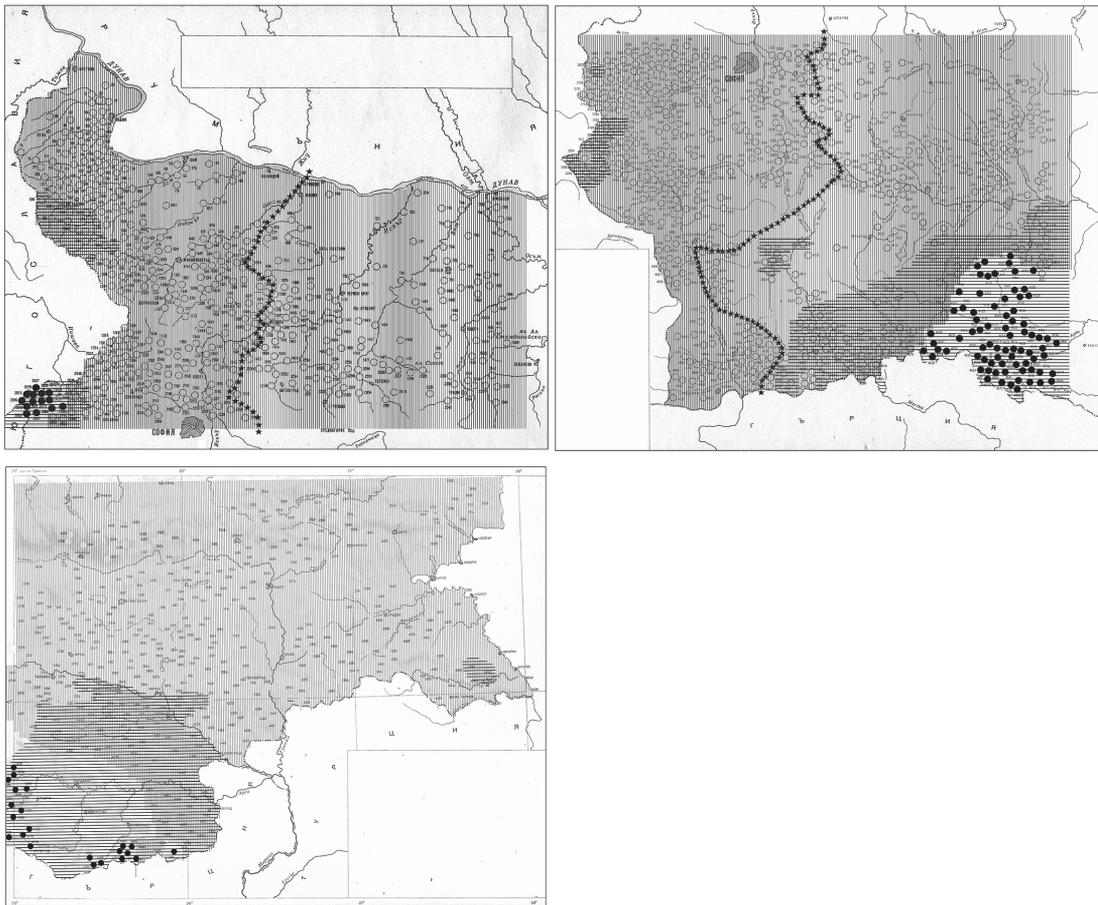
- (13) 불-로. порукали и момчно. Дали му писмоно и го испело. Патрикана го попитал: Ти хубаве испе писмосо, ами оти не каза владикусму право? (Каневска-Николова 2005:17)

(12), (13)에서도 보듯, 이러한 삼원적 후치정관사가 마케도니아어 표준어만의 특징은 아니다. 마케도니아어 방언을 동방언과 서방언으로 크게 나누었을 때, 삼원적 후치정관사는 마케도니아어 서방언의 특징이며, 마케도니아어 표준어가 바로 이 서방언에 속한다. 여기에 덧붙여 북마케도니

6) 북마케도니아 중부 프릴레프(прилеп) 방언의 예시.

아 북쪽 스코페 츠르나고라(Скопска Црна Гора) 방언, 쿠마노보(Куманово) 방언의 정관사는 표준어 후치정관사의 모음 o가 ъ로 대체된 -ъв, -ът, -ън의 삼원 체계이다. 또한 불가리아어에서도 삼원적 후치정관사가 관찰되는데, 세르비아와 인접한 불가리아 북서쪽 트린(Трѣн) 방언, 불가리아어 서방언의 정관사는 -ъв, -ът, -ън의 삼원 체계이고, 불가리아어 남쪽 로도피(Родопи) 지역의 방언은 근칭이 в 어간이 아니라 с 어간이 되는, -ъс, -ът, -ън의 삼원 체계이다.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어 국경 너머, 세르비아 남동부 토를락어 중 티모크-자플란(Тимок, Заплан) 방언의 정관사도 -ъв, -ът, -ън의 삼원 체계이다. 또한 북마케도니아 서방언, 즉 북쪽에서 서남쪽으로 이어지는 테토보(Тетово) - 벨레스(Велес) - 비톨라(Битола) - 데바르(Дебар) - 오흐리드(Охрид) - 스트루가(Струга) - 프레스파(Преспа) 방언과 인접한 알바니아, 그리스 지역에서 사용되는 마케도니아어에도 삼원적 후치정관사가 나타난다(Mladenova 2007: 317-318, Гълъбов 1962:63, Конески 1957: 26, Стойков 2002: 232, Тополињска 2006)7).

(14) 불가리아어 정관사 지도 (Mladenova 2007: 434-436, 세로선(1)이 일원적 정관사, 가로선(-)이 삼원적 정관사)



7) 이 외에 이원적 후치정관사 체계를 가진 불가리아어 방언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불충분한 데이터 분석에 따른 잘못된 정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Mladenova 2007: 319, 각주 10).

이와 같은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삼원적 후치정관사의 분포는 불가리아어와 마케도니아어가 형성하는 방언적 연속성을 반영한다.

마케도니아어와 불가리아어가 어떻게 이러한 두 종류의 후치정관사 체계, 즉 마케도니아어 표준어와 서방언, 불가리아어 일부 방언들에 특징적인 삼원적 후치정관사, 그리고 불가리아어 표준어와 대부분의 방언, 마케도니아어 동방언의 일원적 후치정관사를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

우선 삼원적 지시사에서 발전한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는 원래 모두 삼원적 체계였는데, 몇몇 방언에서 점차  $\tau$  어간 중심의 일원적 체계로 통합되며 발전했다는 주장이 있다(Гълъбов 1962: 63-65, Колев 1991: 67, Конески 1957: 26, Мирчев 1978: 204 등). 삼원적 지시사는 15세기 중세 불가리아어 문헌과 그 이전 고대 불가리아어 유물에도 등장한다(Гълъбов 1962:64). 영어, 러시아어처럼 근칭  $\tau\text{ози}$ , 원칭  $\text{онзи}$ 의 이원 구조인 현대 표준 불가리아어 지시사와 달리, 불가리아어 서북, 서남 방언 중에는, 지시사는 아직도 삼원 체계이면서, 관사는  $\tau$  어간 일원 체계인 방언들이 남아 있고, 현재 일원적 정관사를 가진 방언들에서 남성형 후치정관사가  $\tau$ ,  $\nu$ ,  $\text{н}$  등의 자음 없이 모음  $-a/\text{ъ}$ 만 남아, 대화 참여자와 대상의 거리를 표시하지 않는 정관사가 등장하는 옛 문헌들이 발견된다(Гълъбов 1986, Колев 1991: 66-67). 이에 역사적으로 그러한 전이적 단계를 거쳐서 대부분의 불가리아어 방언이 현재의 ‘이원적 지시사 - 일원적 정관사’ 상태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Колев 1991: 67).

또 다른 학자들은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는 현대 불가리아어와 같이 원래 일원 체계였으며, 몇몇 지역어에서 예외적으로 삼원 체계가 등장한 것이라고 본다(Mladenova 2007: 319-325, Šaur 1975: 238-239). 이때 그러한 삼원 체계 등장의 동력은 화자가 공간 속 대상의 위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중심이 되는, 화자의 자기중심 원칙의 발현이다(Колев 1991: 65-66).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이러하다. 대부분의 불가리아어 정관사 삼원 체계에 등장하는  $\tau$ ,  $\text{н}$ ,  $\nu$  어간 중 근칭  $\nu$  어간이 고대슬라브어의  $\text{с}$  어간을 대신해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이 15-16세기 세르보크로아티아어부터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의 주장처럼 15-16세기 이전에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정관사가 자리잡았다면, 당시 근칭은  $\text{с}$  어간이 주류였을 것이다. 이에 근칭  $\text{с}$  보다 한참 뒤에 세력을 넓힌 근칭  $\nu$  어간이 포함된 삼원 체계가 현재처럼 삼원적 후치정관사 체계에서 주류로 자리잡지 못했으리라는 것이다(Šaur 1975: 238-239).

하지만 (14)의 지도에서 보듯이, 적어도 불가리아어 방언들의 삼원적 정관사 체계에서는 근칭 후치정관사  $\text{с}$  어간(지도 남쪽 가로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근칭 후치정관사  $\nu$  어간(지도 군데군데 진한 가로선으로 표시된 부분)보다 더 넓게 분포되어 있다.

위 두 관점 중에는 전자가 더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지시사에서 기원한 후치정관사가 초기에 삼원적 체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발생과정처럼 보이며, 인간의 언어가 화자의 자기중심성에 기반한 것은 오래된 언어의 전통인데 갑자기 그것으로 인해 삼원적 후치정관사 체계가 등장한다는 설명에 설득력이 약하다고 판단되

어, 본 연구자도 전자의 관점을 지지한다.

### 2.3.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명사구 한정성 표지의 정체성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한정성 표지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도 있다. 명사나 형용사 뒤에 붙는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는 접미사(suffix), 소사(particle), 어미(ending), 접어(clitic), 형태소(morpheme)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Elson 1976: 277, 각주 2).

이 중에서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한정성 표지가 후치접어(enclitic)인가 접미사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논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명사적 지시의 문법화 과정에서 위치가 유동적인 접어 상태였던 것이 접사로 발전하여, 통사적 변이성을 상실하는 fixation(고정)의 과정을 겪는데 (Lehmann 1985), 스칸디나비아어, 즉 북게르만어의 후치정관사들도 문법화 과정에서 후치접어에서 접미사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8)</sup>.

발생학적으로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는 명사 앞에 위치했던 몇몇 지시형용사가 명사 뒤에 놓이다가 음운론적 침식(phonological erosion)이라는 마모 과정을 통해 접어로 기능했다. 예를 들어 15세기 판본부터 존재하는 13세기 저술 문헌 “이반 릴스키의 민중적 삶(Народно житие на Иван Рилски)”은 (15a)와 같이 기술되었다. (15b)의 현대 불가리아어 번역과 비교하면 당시에는 한정성 표지가 따로 분리된 접어(мѣсто то)로 기능하며 명사에 맞춰 격변화했으며, 사격(камени, бога)이 아직 남아 있었고, 현대 불가리아어에서 정관사 및 정관사의 잔재가 붙는 표현(където, светият)에 정관사가 부재함을 알 수 있다.

(15) a. **불.** И придошъ на **мѣсто то**, идеже стоаше на камени **сты** отць Иоаннь, молж бога.

b. **불.** И дойдоха на **мястото, където светият** отец Иван стоеше на камък, молейки **бога**.  
(Мирчев 1973:203) (그들은 성스러운 사제 이반이 바위 위에서 서 있던 그 장소에 와서 하느님께 기도했다.)

접어는 본질적으로 강세를 받지 않는 독립적 단어이지만,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에 선행하는 명사에서 어말무성음화가 일어나지 않아, 선행 명사가 후행 정관사와 하나의 단어처럼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뒤에서 세 번째 음절(antepenult)에 강세가 오기 때문에 후치정관사가 강세를 가질 수 없는 마케도니아어와 달리, 불가리아어 후치정관사는 град**ы**(도시), памет**та**(기억), седем**те**(일곱개) 등에서 강세를 받기도 한다. 이에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를 접어라고 하기 어렵다(Elson 1976: 273-277).

8) 히멜만(Himmelmann 2001:835-836)은 영어 정관사(예, **the** three little boys)는 전치접어(proclitic), 발리어 정관사(예, karanjang gede **ne** ‘lit. 바구니 큰 [정관사]’)는 후치접어(enclitic), 덴마크어, 루마니아어 정관사(예, hus-et ‘집’, lup-ul ‘늑대’)는 접미사로 규정하고, ‘매우 드문’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정관사는 제2위치 접어(second position clitic)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단일 명사와 선행 수식어가 첨가된 명사구에서 위치가 달라지고, 명사구 가장 첫 단어 뒤라는 원칙에 따라 유동적으로 위치를 바꾼다는 점 때문에(예 (8) 참고),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는 접사라 볼 수도 없다(Scatton 1980: 209). 영미권 언어학자들은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를 접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 접어지만 접미사라 불릴 수 있다거나(Lunt 1952: 41), 어원적으로는 접어지만, 현재는 접사로 취급된다(Friedman 2001: 20)는 타협점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다.

현대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문법에서 후치정관사는 독립된 품사가 아니다. 대신 한정성이 명사의 문법범주 또는 명사류의 문법범주 또는 형태론적 범주(불. *именна морфологична категория*)로 간주된다(Бояжиев et 1999: 469-474, Усикова 2000:75-82 등). 이에 따르면 한정성이라는 명사, 형용사의 형태론적 범주를 표현하는 후치정관사는 형태소가 된다.

단어의 새로운 어휘 의미를 형성하는 접미사와 달리, 후치정관사는 단어의 문법적 특징을 표시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서로 다르지만, 접미사가 형태소의 일종인 걸 생각하면,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언어학자들이 보는 후치정관사는 접어보다는 접사에 가깝다. 현대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는 단순한 접어 상태를 넘어 더 많이 문법화된 상태이기도 하다.

한편 마케도니아어의 삼원적 한정성 표지에 대한 논쟁도 존재한다(Бороникова 2010: 60).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학자들을 위시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케도니아 삼원적 한정성 표지를 정관사로 보는 경향이 강하지만(Гълъбов 1962: 63-65, Колев 1991: 67, Конески 1957: 26, Мирчев 1978: 204, Усикова 2000:75-82, Цивъян 2005:139-151, Friedman 2001: 20, 27, Мladenova 2007: 319-325, Naylor 1981/1982: 533, Šaur 1975: 238-239 등), 몇몇 학자들은 마케도니아어 삼원적 한정성 표지를 정관사가 아니라 삼원적 지시사 단형으로 보기도 한다(Lunt 1952: 41-43, Тополинска 2006 등).

미국 언어학자 런트(Lunt 1952: 41)에 따르면, 명사구에 붙는 마케도니아어 삼원적 접어가 삼원적 지시사가 약화된 단형 지시대명사이며, 마케도니아어 장형 지시사가 대화참여자나 대상 간 거리를 가리킨다면, 단형 지시사는 선행 명사가 앞서 언급되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임을 보여준다.

폴란드 출신 언어학자 토폴린스카(Тополинска 2006: 13, Topolinjska 2014: 179)는 -от만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이고, -ов, -он은 관사가 아니라, 지시사의 접어(clitic) 또는 지시소(демонстративен член)라고 본다. 이 두 그룹의 가장 큰 차이는 직시 의미의 유무이다. 문법화의 중요한 과정이 탈의미화(desemanticization)이기 때문이다. 불가리아어 화자원칭-청자근칭 지시사에서 기원한 -от는 그 직시적 기능을 상실하고, 명사구가 가리키는 대상을 청자가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화자근칭, 청화자원칭 지시사 овај, онај에서 기원한 -ов, -он은 직시 의미를 상실하지 않아, 청자가 대상을 식별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대상에 대한 화자의 물리적, 감정적 거리감을 드러낸다. 이러한 이유로 고유명사 뒤에 잘 나오지 않는 -от과 달리, -ов는 고유명사 뒤에도 자주 등장하고(위 예문 (5)), 정관사 문법화의 높은 수준에서 가능한 총칭의미는 -от만 표현하고(위 예문 (7) 참고), -ов, -он은 표현하지 못한다<sup>9)</sup>.

9) 이것은 삼원적 후치정관사 모두에 적용되는 특징은 아니어서, 불가리아어 남부 로도피 방언에서는 т 어간 뿐 아니라,

즉, 마케도니아어 삼원적 후치정관사 -от, -ов, -он 모두 친숙성과 유일성 표현이라는 정관사의 기능은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ов, -он에 추가적으로 덧붙여진 직시적 의미가 삼원적 지시사를 연상시켜, 지시사에서 정관사로의 문법화가 아직 완벽하게 종결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품게 하기 때문에, 그것의 정관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을 불리일으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마케도니아어 한정 표현 -ов, -он이 한정성 표현이라는 정관사의 기능을 수행하여 지시사와 구별될 뿐 아니라, (1), (4)의 한정성 위계에서도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от뿐 아니라 -ов, -он도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 2.4.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명사구 한정성 표지의 기원

유럽어에서는 2세기 고대 그리스어에서 정관사가 처음 등장했고, 다른 유럽어의 정관사는 이후 고대와 중세 사이 유럽 민족들의 대이동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Mladenova 2007: 2, Heine & Kuteva 2006: 100).

불가리아어와 마케도니아어에서 후치정관사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최소 13세기 이전에 이미 지시사가 후치정관사로 전환되었다(Сване 1961, 1962, Мирчев 1978: 201-203)고 보는 관점이 우세한데, 그 근거로 삼는 자료들이 원본 저작 이후 몇 세기가 지난 15세기, 16세기의 카피본인 경우들이 많다. 이에 15-16세기에 다른 언어의 영향으로 시작되었다는 견해도 있다(Мирчев 1978: 198). 한편 키릴, 메토디우스 시대 테살로니키 방언에는 정관사가 발견되지 않으나, 10C Codex Suprasliensis, 총독 요한(Йоан Екзарх)의 저술들과 같은 고대 불가리아어 기념비들 속 다른 방언들에서는 대응적 기능을 하는 후치 지시대명사가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시작은 그보다 앞서 10-11세기로 보기도 한다(Мирчев 1978: 198-199, Dimitrova-Vulchanova & Vulchanov 2012). 또한 불가리아어 다른 언어변화와의 상관관계에 기반한 추론을 통해 11세기 초에는 모든 불가리아어 방언에 정관사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Гълъбов 1962: 72). 즉 불가리아어에서 10-11세기 약화모음의 상실이 시작되는데, 현대 불가리아어 남성 후치정관사 형태는 불가리아어 한정성 표지 등장 이후 약화모음 상실이 일어났음을 보여준다(Гълъбов 1962: 65). 옛 문헌에서 рабъ ть ‘(그) 노예’와 같은 형태가 발견되고, 현대어에서는 그것이 рабът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소 분절이 일어나, 과거 명사의 어미였던 -ъ가 후치정관사의 모음으로 재정립된다. 만약 약화모음 상실 후 한정성 표지가 등장했다면 현대 불가리아어 남성 후치정관사가 여성 та, 중성 то, 복수 те처럼 т가 되어야 했을 것이다.

불가리아어와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중요한 논쟁거리이다. 앞서 언급한 러시아어 북부방언의 소사 -то와 불가리아어 후치정관사가 기원을 같이 한다고 보고, 개별 슬라브어로 구분되기 전 후기 원슬라브어에서 그 본원을 찾으며(Гълъбов 1962: 107-108), 불가리아어 내부에서 관사가 독립적으로 자생했다거나, 후치정관사는 불가리아어만의 특징으로 그것이

н 어간 후치정관사도 총칭으로 사용된다(Каневска-Николова 2005:21).

알바니아어, 루마니아어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도 있으나(Асенова 2002: 124),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는 이웃 언어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견해가 보다 우세하고,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리스어의 영향이라는 주장과 루마니아어의 영향이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정관사가 가장 먼저 발생한 그리스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라틴보다는 그리스 문화 영향을 많이 받은 소위 이레체크 선(Jireček Line) 남쪽 불가리아, 마케도니아의 명사구 한정성 표지도 그리스어의 영향으로 생겼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Mladenova 2007:345). 이에 따르면 그리스어로 쓰인 성경을 번역하던 불가리아인들이 그리스어 정관사를 불가리아어로 번역하면서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에도 정관사가 생겼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가리아어 내부에서는 남쪽의 로도피 방언에서 관사가 처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어는 발칸어 중에서 유일하게 관사가 명사 앞에 놓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그리스어와 비슷한 어순을 유지하는 불가리아어 번역본이 관사의 경우 그리스어와 달리 ‘명사 + 후치지시대명사’의 어순을 유지한다는 점(Мирчев 1978:198-199)은 그리스어 기원설에 의구심을 품게 한다. 이에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가 다른 발칸어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하는데, 후치정관사를 가진 발칸어 사용 지역 중에서, 원슬라브어적 특징인 삼원적 후치정관사가 아직까지 제한적으로 남아있는 불가리아어 남서쪽 지역과 거리가 가장 멀어, 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적었을 루마니아어의 영향이라는 주장(Гълъбов 1962: 63-64, Асенова 2002: 126)이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불가리아어 내부에서는 정관사가 북동쪽 모이시아 방언(Мизийски говори)에서부터 다른 지역으로 점차 퍼져나간 것이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 특정 이웃국가의 영향보다는 발칸 언어연합(Sprachbund) 전체의 맥락, 그 중에서 상호 유사성의 정도가 높은 루마니아어, 알바니아어와의 관계 속에서 불가리아어 정관사를 바라보기도 한다. 특정 언어가 다른 언어들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가 보다는 개별 원시어(proto-language)에서 계승한 특징들, 서로 다른 곳에서 비롯된 영향들, 이웃 언어 모델의 모방, 발칸어들 사이의 다방면에 걸친 상호작용 등 복합적인 요소의 작용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Асенова 2002: 126).

이러한 발칸어 관사의 공통된 특징(Ревзин 1977: 211-217)으로는 첫째, 한정적 명사구만 가능한 구조와 비한정적 명사구만 가능한 구조가 존재한다. 불가리아어를 예로 들면 (16)의 테마, 재귀대명사구, 반복적 여격대명사가 한정적 명사구만 가능한 구조, (17)의 존재문이 비한정적 명사구만 가능한 구조이다.

(16) a. **불. Момчето** / Ион / Той / \***Момче** е на мене. (소년/이온/그/소년은 내 아이다.)

b. **불. При цялата си стромност Петър** / той / **студентът** / \***студент** / \***един студент** не успя да премълчи. (자신의 겸손함으로 페터르/그/대학생/대학생/한 대학생은 침묵할 수 없었다.)

с. **불.** Какво му е на Петър / него / момчето / момче? (페터르 / 그 / 소년 / 소년에게 무슨 일이야?) (Ревзин 1977: 211-212)

(17) Имаше един човек стопанин. (Ревзин 1977: 212) (한 주인이 있었다.)

둘째, 비한정적 격 형태의 수가 한정적 격 형태의 수를 넘어설 수 없다. 격이 거의 사라진 불가리아어의 경우에도 후치정관사에는 남성형에 제한적으로 사격과 주격을 구별하는 형태적 표지가 남아 있다(위 (8) 참고). 즉 남성은 비한정적 격 형태가 하나인 반면 한정적 격 형태가 둘이 되는 것이다.

셋째, 총칭 표현에서 보편적 총칭(универсальное значение)일 경우 정관사가 필수적이지만, 제한-일반적 총칭(ограничено-обобщенное значение)일 경우 정관사 사용이 선택적이다. (18a)가 전자의 예, (18b)가 후자의 예이다.

(18) a. **불.** **Заякът** е животно. (토끼는 동물이다.)

b. **불.** **Заякът** / Заяк, който е ранен, е лесна прячка за кучетата. (상처 입은 토끼는 개들의 쉬운 먹잇감이다.)

역사적 문헌을 분석한 결과, 불가리아어 내 방언들 사이에서도 동북쪽의 모이시아 방언은 화용적 한정성 혁신이 두드러졌고, 남쪽의 루도피 방언은 이후에 의미적 한정성 혁신에서 더 두각을 나타냈다(Mladenova 2007: 367). 즉 어떤 하나의 외부적 영향의 작용으로 불가리아어 정관사가 발생하거나 발전했던 것은 아니라, 그것들의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 2.5.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명사구 한정성 표지와 격 표지

화용적 한정성 표지의 등장과 명사류의 격 상실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Lyons 1999: 324) 또한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명사구의 한정성에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고전 그리스어, 독일어처럼 격변화 형태와 정관사가 공존할 수도 있지만, 여러 게르만어, 로망스어에서는 한정성 표지 등장이 명사류의 격변화 체계 상실을 동반했고, 불가리아어도 마찬가지였다(Mladenova 2007: 134-135, 243).

물론 불가리아어 명사류의 격변화 상실이 한정성 표지 등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문헌을 살펴보면 불가리아어에서는 복수가 단수보다, 중성, 여성이 남성보다, 비활성이 활성보다 더 먼저 격을 상실했고(Mladenova 2007: 134), 13-14세기 복수어미의 성이 사라지기 전에 불가리아어 정관사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Мирчев 1978: 202). 물론 이것은 기존 규범을 지키는 문어의 보수성이 발휘되었기 때문이고, 실제 언중들의 언어생활은 이와 크게 거리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저작되거나 발견된 고대, 중세 불가리아어 문헌에서 꽤 오랫동안 선행 명사와

후치정관사는 격변화된다(Гълъбов 1962, Мирчев 1978, Сване 1962, Dimitrova-Vulchanova & Vulchanov 2012 등의 예문 텍스트 참고).

또한 현대 불가리아어에도 아직 격변화 형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우선 현대 불가리아어 표준어와 다른 방언에는 주로 활성 명사에 사용되었던 호격은 명사에 남아 있다. 그 밖의 격 형태도 몇몇 방언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현재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격 형태는 과거 남성 활성 단수를 표시했던 어미 -a로, 소피아 인근 피르도프(Пирдоп)부터 그 동쪽 방언들과 중앙 발칸 방언에서 주로 인간을 지시하는 명사에서 발견된다. 서남 방언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서쪽 방언에서는 여성 대격 어미 -y가 부분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Стойков 2002: 228-229).

발칸어에서 관사와 격의 상실은 서로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긴 하다. 불가리아어 명사구의 한정성 표지가 형태론적 격의 상실로 대표되는 분석어화 과정과 직접적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석어화된 언어체계에서 한정성 표지가 문장 내 통사적 관계를 표현하기 때문이다(Асенова 2002: 124), 즉 어순과 더불어 관사가 격의 기능을 대신하며 통사적 중의성을 제거한다(Асенова 2002: 137). (19a)에선 후치정관사 있는 단어가 어순에 관계없이 주어가 되고, (19b)에서 정관사 있는 단어는 직접 목적어, 정관사 없는 단어는 간접 목적어가 되며, (19c)에서 정관사 있는 형태는 수식적 형용사만 되지만, 정관사 없는 형태는 비한정 수식 형용사뿐 아니라 부사도 될 수도 있다.

- (19) a. **Бл.** **Кучето** е артист. - **Куче** е артист**ът**. (개는 예술가이다. - 예술가는 개다.)  
 b. **Бл.** **Индианца** го рисувам. - **Индианец** го рисувам. (난 인디안을 그린다. - 난 그를 인디안으로 그린다.)  
 c. **Бл.** По ливадата **тича босо** дете. - По ливадата **тича босото** дете. (아이가 풀밭을 맨발로 뛰어다닌다.- 맨발의 아이가 풀밭을 뛰어다닌다.)(Асенова 2002: 137)

이에 비록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여러 슬라브어에서 격의 상실 및 통합, 또는 분석어화가 한정성 문법화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흥미로운 연구 과제이다.

## 2.6.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명사, 형용사의 한정성 vs. 동사의 한정성 표지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의 “한정적인”을 의미하는 형용사 *определенен*는 명사, 형용사의 한정성을 나타낼 때만 사용되지 않는다.

불가리아어 *ня* (някой, някакъв 등), *еди-* (еди-кой, еди-какъв 등), *-годе* (кой-годе, какъв-годе 등), *да е* (кой да е, какъв да е 등)이 붙은 대명사는 *неопределителни местоимения*(비한정 대명사)라고 불린다. 대응적 기능으로 특화된 품사인 대명사는 본질적으로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정 대명사는 따로 없다.

불가리아어 및 마케도니아어 4개의 과거시제, 즉 아오리스트(aorist), 미완료시제(imperfect), 완료시제(perfect), 대과거(pluperfect) 중 완료시제는 불가리아어로 минало неопределено време(비한정 과거)라고 불린다. 아오리스트(Минало свършено време, 예, четох)는 구체적 과거 시간에 수행된 행위, 과거에 한번 수행한 행위를 지시하고, 미완료(Минало несвършено време, 예, четях)는 일정한(=한정적) 과거의 과정적 행위, 과거의 동시적인 행위들, 과거의 습관적이고 반복된 행위를 지시하고, 완료시제(예, чел съм)는 수행 시간이 일정하지(=한정적이지) 않은, 발화시간 이전의 행위, 발화 시간에 결과가 존재하는 시간적으로 비한정적인 과거의 행위, 일반적 사실을 나타내는 시간적으로 비한정적인 과거의 행위를 지시하며, 대과거(Минало предварително време, 예, бях чел)는 과거의 다른 행위에 선행한 행위나 그 행위 결과를 지시한다.

이 중 대과거는 다른 차원의 시제라고 할 때, 아오리스트와 불완료시제는 온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한정적 과거가 된다. 즉 사건이 시간축 상의 특정한 시점을 차지하는 아오리스트, 불완료는 한정적 과거, 그렇지 않은 완료시제는 비한정 과거인 것이다. 이에 마케도니아어에서는 아오리스트를 ‘한정적 완료 과거’(минато определено свършено време), 미완료 시제를 ‘한정적 미완료 과거’(минато определено несвършено време)로 부르기도 한다.

또한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에는 증거범주도 있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동사 형태로 표현하지만, 간접 경험한 것은 완료 시제형(예, чел съм)이나 Renarrative(예, чел) 형태로 따로 구분해서 표현한다.

이러한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동사의 특징은 명사의 한정성과 상호작용하기도 한다. 불가리아어 예문 (20a)은 부정관사 една를 통해 청자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화자는 알고 있는 특정한 여자의 행위를 표현하고, (20b)는 특정하지 않은 여자, 즉 남자가 아닌 그냥 어떤 여자의 행위를 표현한다. 이때 (20a)의 동사는 ‘한정적 완료 과거’인 아오리스트, (20b)의 동사는 화자의 직접 경험이 아니라 추론을 나타내는 완료 시제형으로 표현되었다.

(20) a. 불. Това стихотворение го написа една жена. (Heine & Kuteva 2006: 129)

b. 불. Това стихотворение го е написала жена. (이 시를 어떤 여자/여자가 썼다.)

한편 (21)의 예문은 동일한 마케도니아어 동화를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 진하게 표시한 것은 동사(즉, 완료시제)와 명사구의 비한정 표지이고, 진하게 표시하고 밑줄을 덧붙인 것은 동사(즉, 아오리스트)와 명사구의 한정 표지인데, 명사구의 한정성과 동사의 한정성이 항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1a)에서는 주어-동사쌍 4 중 1 경우, (21b)는 주어-동사쌍 4 중 1 경우, (21c)는 주어-동사쌍 4 중 3경우가 명사구와 동사의 определенност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21) a. ма. Си **бил**, **некој**, си цар турски. Царо<sub>s</sub> турски Сулејман се **викал**. **Имал**, ена ќерка царов<sub>s</sub> турски. Ќерка му од царо<sub>t</sub> турски **е побарал**, Црна Арапина, да ја земат за жена...(어

떤 튀르크 왕이 있었다. 튀르크 왕의 이름은 슬레이만이었다. (이) 튀르크 왕에게는 (저) 딸이 있었다. 검은 아랍인이 (그) 튀르크 왕에게 그의 딸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했다.)

- b. 마. Е, **беше**<sub>v</sub> **некој**<sub>s</sub> цар турски. Царов<sub>s</sub> турски **имаше**<sub>v</sub> ена ќерка... Е, арно, ама **е суми**<sub>v</sub> Црна Арапина<sub>s</sub> оту царон<sub>s</sub> турски Најубаа ќерка **имал**<sub>v</sub> во светов... (어떤 튀르크 왕이 있었다. 이 튀르키예 왕에게는 (저) 딸이 있었다. 하지만 검은 아랍인은 (저) 튀르크 왕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이 있다고 생각했다.)
- c. 마. Си **беше**<sub>v</sub> царот<sub>s</sub> турски, с' **имаше**<sub>v</sub> ена ќерка. Сулејман цар. Арно, ама ќерка му му **е побарал**<sub>v</sub> **некој**<sub>s</sub> Арап. Побарвејње Арапот<sub>s</sub> и таа, **велела**<sub>v</sub>... ((그) 튀르크 왕이 있었고, (저) 딸이 있었다. 슬레이만 왕. 하지만 어떤 아랍인이 그에게 그의 딸을 달라고 했다. (그) 아랍인은 피부색이 좀 어두웠고, 그녀는 말했다.) (Цивьян 2005:149)

한편, (21c)에서는 직시성이 강한 **н**, **в** 어간 후치정관사가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고, (21b)에서는 3번 다 직시적 **н**, **в** 어간 후치정관사가 사용되었고, (21c)에서는 근칭적 **в** 어간 후치정관사가 1회 사용되었다. 즉 (21c)에서는 화자가 지시 대상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21b)에서는 좀 더 강한 감정을 드러낸다. 한편 아오리스트가 사용되지 않은 (21a)에서는 좀 더 옛날이야기 느낌이 강하고, 아오리스트로 시작하는 (21b), (21b)는 현실적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이와 같이 명사구의 한정성과 동사구의 한정성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화자 또는 서술자와 청자 혹은 독자, 그리고 이야기 속 등장인물 사이의 거리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층위의 한정성이 발칸어에 특징적인 “자아와 타자의 복잡한 직조”(Цивьян 2005: 141)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III. 나오며

본고에서는 한정성이 높은 수준으로 문법화된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한정성의 문법화와 관련된 중요한 논점들을 다방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현대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후치정관사의 문법화에 대한 논의는 후속논문에서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과 비교를 통해 진행 하겠다.

## 참고문헌

- Adamou, Evangelia(2011), “Temporal uses of Definite Articles and Demonstratives in Pomak (Slavic, Greece)”, *Lingua*, 121(5), 879-889.
- Chvany, Catherine V. (1983), “On ‘Definiteness’ in Bulgarian, English and Russian”, *American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Slavists / American Committee of Slavists*. 71–92.
- Czardybon, Adrian (2017), *Definiteness in a Language without Articles – A Study on Polish*. Düsseldorf: Düsseldorf University Press.
- Cummins, George M, III. (1998), “Definiteness in Czech”, *Studies in language* 22, 567–596.
- De Mulder, Walter & Anne Carlier(2011), “The grammaticalization of definite articles”, In Heiko Narrog & Bernd Heine (eds.), *The Oxford handbook of grammaticalization*, Oxford: Oxford Univ. Press. 522-535.
- Diessel, Holger(1999), *Demonstratives. Form, function, and grammaticaliz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Dimitrova-Vulchanova, Mila & Valentin Vulchanov (2012), “An article evolving: The case of Old Bulgarian”, D. Jonas, J. Whitman, A. Garrett (eds.), *Grammatical Change. Origins, Nature, Outcomes*, Oxford, 160-178.
- Dixon, R. M. W. (2003), “Demonstratives: A cross-linguistic typology”, *Studies in Language* 27(1): 61-112.
- Dryer, Matthew (2015a), “Feature 37A: Definite Articles.” In: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nline* (WALS). (<http://wals.info/feature/37A#2/25.5/148.2>)
- Dryer, Matthew (2015b), “Feature 38A: Indefinite Articles.” In: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nline* (WALS). (<http://wals.info/feature/38A#2/25.5/148.2>)
- Dvořák, Jan (2020), “The emerging definite article ten in (informal spoken) Czech: a further analysis in terms of semantic and pragmatic definiteness”. *Naše řeč*, 103, č.4, 297–319.
- Elson, Mark J. (1976), “The Definite Article in Bulgarian and Macedonian”, *The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Vol.20, No.3 (Autumn,1976), pp.273-279.
- Flier, Michael S. (1974), *Aspects of Nominal Determination in Old Church Slavic*, The Hague/Paris: Mouton.
- Friedman, Victor (2001), *Macedonian*, SEELRC.
- Greenberg, Joseph (1978), “How Does a Language Acquire Gender Markers?”, In: Greenberg, Joseph (ed.):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Word Structure*. Vol.3.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pp.47–82
- Hanks, Williams. F. (2011) “Deixis and indexicality”. In W. Bublitz & N. Norrick (Ed.), *Foundations of Pragmatics*, Berlin, New York: De Gruyter Mouton. (pp.315-346).
- Hawkins, John(1991), “On (in) definite articles: implicatures and (in) grammaticality prediction”, *Journal of Linguistics* 27, No2. 405–442.
- Heine, Bernd & Kuteva, Tania (2002), *World Lexicon of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 Press.
- Heine, Bernd and Kuteva, Tania (2006), *The Changing Languages of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immelmann, Nikolaus P. (1996). "Demonstratives in narrative Discourse: A Taxonomy of Universal Uses." In Barbara Fox (ed.), *Studies in Anaphora* ,205–254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Himmelmann, Nikolaus (2001), “Articles”, In: Haspelmath, Martin; König, Ekkehard; Oesterreicher, Wulf; Raible, Wolfgang (eds.).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s*. de Gruyter. Berlin/NewYork. 831–841.
- Ionin, Tania (2006), “This is Definitely Specific: Specificity and Definiteness in Article Systems”, *Natural*

- Language Semantics*, 14(2), 175–234.
- Krámský, Jirí(1972), *The Article and the Concept of Definiteness in Language*. The Hague. Paris :De Gruyter Mouton.
- Kresin, Susan C. (2002), “Demonstratives, Definite Articles and Clines of Grammaticalization: Evidence from Russian and Spoken Czech,” in *Where One’s Tongue Rules Well, A Festschrift for Charles E. Townsend*, ed. Laura A. Janda, Ronald Feldstein, Steven Franks. Indiana Slavic Studies, Vol. 13, 63-73
- Marušič, Franc and Rok Žaucer(2007), “On the Adjectival Definite Article in Slovenian”. *Pismo* 5(1), 102-124.
- Lechmann, Christian (1985), “Grammaticalization: synchronic variation and diachronic change”, *Linguistica* 20(3), 303-318.
- Löbner, Sebastian (2011), “Concept types and determination”, *Journal of Semantics*, 28(3), pp. 279–333.
- Lunt, Horace G. (1952), *A Grammar of the Macedonian Literary Language*. Skopje.
- Lyons, Christopher (1999), *Definiteness*.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 Mladenova, Olga M. (2007), *Definiteness in Bulgarian: Modelling the Processes of Language Change*. Walter de Gruyter.
- Naylor, Kenneth E. (1981/1982), “The Use of the Articles in Macedonian and English”, *Македонски Јазик XXXII/XXXIII*, 533-539.
- Naylor, Kenneth E. (1983), "On expressing "definiteness" in the Slavic languages and English", in: M. S. Flier (ed.), *American Contributions to the 9th International Congress of Slavists* (Kiev 1983) Vol.1: Linguistics, Columbus, Ohio: Slavica ,203-220
- Ortmann, Albert (2014), “Definite article asymmetries and concept types: semantic and pragmatic uniqueness”, In: Thomas Gamerschlag – Doris Gerland – Rainer Osswald – Wiebke Petersen (eds.), *Frames and Concept Types :Applications in Language and Philosophy*. Basel: Springer, 293–321.
- Roberts, Craige (2003), “Uniqueness in definite noun phras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6(3). 287–350.
- Runić, Marija(2013), “The ‘definite article’ in the Slovene dialect of Resia”, *Atlante Sintattico d'Italia*, n.16. 91-106.
- Scatton, Ernest A. (1980), “On the Shape of the Bulgarian Definite Article”, Christine Chvany, Richard Brecht D. (eds). *Morphosyntax in Slavic*. Slavica Publishers, Inc. 204-211.
- Sonnenhauser, Barbara (2009), “The Macedonian tripartite article: a discourse-oriented account”, *Македонски Јазик LX* 123–136.
- Šaur, Vladimír(1975), „O významu zajmenného základu OV- a jeho vztahu k bulharskému a makedonskému členu”, *Slavia* 44/3: 233–239.
- Topolinjska, Zuzanna (2014), “Definiteness (Synchrony)”, In: Kempgen, Sebastian; Kosta, Peter; Berger, Tilman; Gutschmidt, Karl (eds.). *The Slavic Languages*. de Gruyter. Berlin/New York. pp. 176–187.
- Асенова, Петя (2002), «Задпоставен определителен член», *Балканско езикознание*. Велико Търново: Фабер. 123-140.
- Бороникова, Наталија(2010), «За така наречените „двојноопределени“ именски синтагми во современиот македонски јазик», *Македонски јазик LXI*, 59-72.
- Бояжиев, Тодор и Иван Куцаров, Ђордан Пенчев(1999), *Съвременен български език*. София: «Петър Берон».
- Гак, В.Г. (1988/2016), «Определенность и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ь. Артикль», *Русский язык в сопоставлении с*

- французским*, М.:URSS. 27-51.
- Головачева, А.В. (1979), «Идентификация и индивидуализация в анафорических структурах», *Категория определенности–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в славянских и балканских языках*. М.:Наука. С.175–203.
- Гълъбов, Иван (1962), *Проблемът за члена в български и румънски език*, София: Българската академия на науките.
- Гълъбов, Иван (1986), «Някои въпроси, свързани с непълната членна форма за мъжки род единствено число», *Избрани трудове по езикознание*, София: Наука и изкуство, 338-343 / (1979), *Изследования върху историята и диалектите на българския език (Сборник в паметна чл.-кор. Кирил Мирчев)*, София, 115-119.
- Каневска-Николова, Елена (2005), «Към въпроса за обусловността на тройното членуване в родопските говори», *Български език*, 2005/2,15-22.
- Касаткина, Р.Ф. (2008), «Артикли, предартикли и псевдоартикли в славянских языках», *Славянское языкознание: XIV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ъезд славистов, Охрид, 10-16 сентября 2008г.: доклады росси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Москва: Индрик. 305-321.
- Колев, Георги (1991), «Наблюдения върху членната форма в българските народни говори», *Език и литература*, XLVI, 4, 63-72.
- Конески, Блаже (1949), «Прилепскиот говор». *Годишен зборник на Филозофскиот факултет* 2.1, 245-301.
- Конески, Блаже (1957), “Тројниот член”, *Македонски Јазик* VIII, 26-28.
- Конески, Блаже (1953/1967), *Граматика на македонскиот литературен јазик*. Скопје: Култура, 225-236.
- Львов, Андрей Степанович(1966), *Очерки по лексике памятников старославян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Москва : Наука.
- Мирчев, Кирил (1978), *Историческа граматика на българския език*, София: Наука и Изкуство.
- Ревзин, И. И. (1977а), «Вопросы структурно-типологического подхода к категории определенности в балканских языках», *Балканский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208-219.
- Ревзин, И. И. (1977b), «Анкета по категории определенности-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Балканский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М.: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220-242.
- Сване, Гуннар (1961), «О синтаксическом применении болгарского члена в XVIII веке. А. Чергедские тексты», *Scando-Slavica* 7, 233-251.
- Сване, Гуннар (1962), «О синтаксическом применении болгарского члена в XVIII веке. Б. Добрейшово евангелие», *Scando-Slavica* 8, 224-238.
- Станков, Валентин (1995), «Семантични особености на категорията неопределеност на имената в българския език», *Проблеми на граматичната система на българския език*. София: Академично издателство «Проф. Марин Дринов». 87-150.
- Стойков, Стойко (2002), *Българска диалектология*, София: Акад.изд. "Проф. Марин Дринов", 231-232.
- Тополињска, Зузана (1981/1982), “Мак. еден – неопределет член?”, *Македонски Јазик* XXXII/XXXIII, 705-715.
- Тополињска, Зузана (2006), «Тројниот член: Да или нет?», *Јужнословенски филолог* 62.7-15.
- Усикова, Рина П. (2000), *Македонски јазик: граматическиот очерк, тексты для чтения с комментариями и словарем I* Скопје: Филолешки факултет "Блаже Конески".
- Цивьян, Т. В. (2005), *Модель мира и ее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е основы*, Москва: URSS.

# 프리발티카의 러시아인과 러시아어 상황

정경택 (경상국립대)

## I. 들어가는 말



〈그림1〉 프리발티카

발트 연안(Прибалтика) 3국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로 1939년 8월 23일 모스크바에서 소련과 나치독일이 상호 불가침 조약(Пакт Молотова-Риббентропа)을 맺어 소련이 폴란드 동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현재의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일부에 해당하는 베사라비아를 얻었고 9월의 두 번째 밀약에서 리투아니아까지 얻었다. 1939년 9월 1일에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며 제2차 세계 대전을 시작하자, 소련은 1939년 9월 17일에 폴란드를 침공하여 동부 지역을 점령했고 이어 1940년 6월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의 부코비나와 베사라비아까지 점령하여 소련의 영토로 만들었다. 그렇지만 1941년 6월 22일에 독일이 소련을 침공함으로써 독소불가침조약은 파기되었고, 양국은 전쟁에 돌입하여 발트3국은 1944년 10월까지 독일의 지배를 받았다.

소련이 2차 대전에 승리하여 발트 3국은 다시 소련에 편입되어 연방공화국으로 존속하다가

1990년 3월 리투아니아, 5월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가 독립한 이후 3국은 러시아의 소련의 14개 연방공화국 중에서 가장 반 러시아 정책을 펴오고 있다.

특히 라트비아는 14개 연방공화국 중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러시아인의 비율이 높아 1989년 소련의 마지막 인구센서스 당시 총인구의 34%에 달했고, 에스토니아도 30%에 달했는데, 다만 리투아니아는 9.4%였다.

발트 3국의 러시아인과 러시아어는 러시아에서 보기에 차별을 받고 있음이 분명하다. 2022년 2월 특별군사작전 이후 이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이를 3국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 II. 3국의 언어 상황

### 1. 소련 시기 3국에서의 러시아인의 증가와 러시아어의 사용 확장

2차 대전 후 소련에 병합되면서 발트 3국으로 러시아인들이 대규모 이주했지만, 이의 강도는 달랐다. 즉 리투아니아는 국가 틀을 일찌감치 갖추고 경제도 비교적 발전되었기에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가장 작았고, 2021년 현재 러시아인의 수와 비율도 가장 낮다. 이에 반해 라트비아는 숙청당한 라트비아인들을 대체하여 러시아인들이 들어왔다. 즉 1940~1941년 약 1년 동안 라트비아인 약 43,000명이 살해되거나 행방불명되었는데, 특히 1941년 6월 13~14일 이틀 동안에만 약 1만 명 이상의 라트비아인들이 시베리아로 강제 추방되었고, 이 중에서 약 25,000명은 반혁명 혐의를 씌워 우랄산맥의 수용소에 가두었다. 결국 1941~1949년에 러시아로 강제 이주한 라트비아인이 15만 명에 달했다. 에스토니아도 1941-1951년 사이 대숙청의 결과로 에스토니아인 약 33,000명이 에스토니아에서 쫓겨났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6년에 비해 1959년의 러시아인의 수가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표1> 발트 3국의 시기별 러시아인의 수와 비율(천 명, %)

	1795년	1858년	1897년	1917년	1926년	1959년	1989년	2021년
리투아니아	27	36	139	175	67	231	344	141
	3.1	2.0	5.10	5.9	2.6	8.5	9.4	5.0
라트비아	27	72	155	228	194	556	906	463
	3.1	6.0	8.00	9.6	10.3	26.6	34.0	24.5
에스토니아	4	19	38	47	38	240	475	315
	0.8	2.6	3.94	4.2	3.8	20.1	30.0	23.7

소련식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본격화하자 전통적인 소규모경제는 와해했고, 농업 집단화와 군수 산업을 포함한 새로운 산업(화학, 전자 기계, 설비구축, 석유화학 등)이 육성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노동력을 지원하기 위해 소련 여러 지역으로부터 러시아인을 비롯한 러시아어 사용

자들이 들어온 것이다. 이들의 증가는 곧 러시아어 사용 확장으로 이어졌고 전면적인 러시아화(Русификация)를 동반했다.

그러나 소련의 해체로 인해 발트 3국에서는 러시아인의 감소와 러시아어의 사용 영역 축소, 더 나아가 공공활동 영역에서의 사용 금지까지 나아갔다.

## 2. 독립 이후 3국의 민족-언어정책과 러시아어

발트 3국은 독립과 함께 토착주도민족의 언어를 국어로 정하고 민족 간 의사소통어로서의 러시아어의 지위를 박탈했는데, 이는 헌법, 언어법(또는 국어법), 교육법, 국적법, 매스컴 법등의 제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 1) 헌법

에스토니아는 1992년 헌법 6조에서, 역시 라트비아도 1992년 헌법 4조에서, 리투아니아도 1992년 헌법 14조에서 각각 에스토니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를 국어로 정했는데, 러시아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 2) 언어법(국어법)

에스토니아는 2011년 개정 언어법 3조, 라트비아는 1999년 국어법 3조, 리투아니아는 2002년 개정 국어법 2조에서 각각 에스토니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를 국어로 정했다. 특히 에스토니아는 언어법 5조에서 에스토니아어 외의 소수 민족어는 모두 외국어일 뿐이라고 정하고, 라트비아도 5조에서 북부지역의 토착어 리브어<sup>1)</sup> 외 다른 언어를 모두 외국어로 간주한다. 리투아니아는 25조에서 국어법 시행을 “리투아니아어 국가위원회 언어검열국”을 통해 통제할 것임을 밝혔다. 이 국어법에 따라 사실상 러시아어가 공식적인 지위를 상실하고 공화국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수단에서도 배제되었는데, 소수 민족어의 언급이 있긴 하지만, 러시아어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 3) 교육법

에스토니아는 1992년 채택하고 수 차례 개정한 교육법에서 교육 언어로서의 에스토니아어의 사용 영역 확장과 러시아어의 사용 영역 축소 더 나아가 완전한 배제를 목표로 한다.

4조 2항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학교와 대학교육에서 에스토니아어로 교육받을 가능성을 보장하고 3항에서는 모든 외국어 사용 교육기관에서 에스토니아어로 교육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인데, 바로 러시아어 학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독립 두 달 전인 1991년 6월 교육법을 채택한 라트비아도 교육 현장에서 러시아어의 사용 축소,

1) 핀-우그르어에 속하는 리브어는 북부 발트 리보니아 원주민 리브인의 모어이다. 리브어 사용자 수는 약 19만 명 정도로 실생활에서는 그리 쓰임새가 크지 않고 다만 대학에서 학술연구대상으로 교육되고 있다.

더 나아가 완전한 축출에 목표를 두었다.

9조 1항: 국립 및 지방자치 교육기관에서는 국어가 교육 언어이다.

3항: 초·중등학생은 국어를 익히고 국어 시험을 치른다.

4항: 전공 자격증 시험은 국어로 치른다.

5항: 학위 취득에 필요한 논문은 국어로 작성하고 방어한다.

41조. 3항: 교육부가 소수민족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국어로 익히는 교과목을 정한다.

50조. 3항: 국공립 교육기관에서 최고 등급의 국어 구사 자격증이 없는 자는 교사가 될 수 없다.

리투아니아는 1991년 6월 채택한 최초의 교육법에서는 소수민족어 교육도 용인했지만, 2006년 6월 개정 교육법에서는 교육 언어로서의 국어의 역할을 더 강화했는데, 즉 28조 6항에서 모든 행정 단위는 모든 정규, 비정규학교의 학생에게 국어로 배울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정하여 국어교육을 전 방위적으로 확대했다.

더욱이 2009년 4월 제정한 고등교육법의 49조에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언어는 국어인 리투아니아어라고 규정했다.

2011년의 개정 교육법은 리투아니아식 교육(Литوانيристиче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sup>2)</sup>이라는 개념을 내세우고 있을 뿐 국내에서 국어인 리투아니아어 교육을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아 교육언어로서 리투아니아어의 지위와 역할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 3. 특별군사작전 이후 러시아인과 러시아어의 탄압

특별군사작전 이후 에스토니아 정부는 러시아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동부 지역의 친러시아 기운의 심각성을 우려했고, 이의 예방과 반전, 반러시아 차원에서 1970년 나르바(Нарва)에 세워진 소련군 T-34탱크 기념물을 2022년 8월 16일 철거했다.



〈그림2〉 소련군 탱크 기념물 철거

2) 리투아니아식 교육은 리투아니아어, 리투아니아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고 리투아니아의 현대를 알게 하고 외국에서 리투아니아어로 자기표현을 위한 여건의 조성이다.

특히 러시아인들이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나르바와 러시아 접경 도시들에서 러시아와 러시아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증가했다.

12월 12일 의회가 교육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2030년 사이에 모든 학교에서 완전한 에스토니아어 교육 전환을 정했고, 러시아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2024년부터 모든 교사는 일정 수준의 에스토니아어 구사를 증명해야 한다.

2023년 8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러시아어 교육 폐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에스토니아 외교부는 이것이 국제법의 규범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라트비아도 특별군사작전 이후 반러시아 정책을 더욱 심화시켰다. 즉 2022년 9월 의회가 3년 기한으로 교육 전 부문에서 라트비아어로 전환하는 법안을 채택하여 러시아어는 오직 소수 민족 어로서만 교육받을 수 있게 했다. 2023년 6월 26일부터 라트비아는 더는 러시아 국민으로부터의 모든 유형의 비자 신청을 받지 않고 러시아와의 국경을 더욱더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2년 8월 정부가 A2 성적으로 국어 시험을 통과해야만 영주권을 러시아인들에게 주는 법을 채택하였고 2023년 8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6천여 명의 러시아인들이 9월에 시행하는 국어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나라를 떠나라는 통지를 받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그러나 9월 14일 의회는 국내에 영주권을 얻기 위한 국어시험 합격 기한을 2년 연장하는 최종 개정안 심의를 압도적 다수로 확정했다. 2024년 1월 초 “국적 및 이주 업무국”이 영주권을 얻기 위한 국어 시험에 불합격한 러시아 국민 1,167명이 라트비아부터 추방될 것임을 밝혔는데, 이전부터 라트비아 정부는 32,000명 이상의 러시아인에게 영주권 기한이 종료되고 2023년 11월 30일까지 라트비아를 떠나야 함을 통보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2월 24일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이 시작되자마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는 주로 남서부의 칼리닌그라드주, 동부의 벨라루스 접경지역, 그리고 중남부 수발크회랑(Сувальский коридор)에서 발효되었다.

9월부터 러시아 국민의 리투아니아 입국을 금지했고 12월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민이 리투아니아 비자와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강제 양케이트를 실시하여 크림의 소유 국가와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도록 했다.

또한 2022년 2월 특별군사작전 시작부터 그해 10월까지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범죄를 구실로 많은 수의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소련군 기념물을 철거했는데, 예를 들어 7월에 클라이페다(Клайпеда)<sup>3)</sup>의 소련군 묘의 기념비를 해체했다.

3) 리투아니아 서쪽 발트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 남쪽의 칼리닌그라드와 가깝다. 러시아인이 많아 약 16만 명의 인구 중 러시아인이 약 24,000명(15%)을 차지한다.



〈그림3〉 소련군 기념물 철거

2024년 1월에는 약슈타스(Гинтаутас Якштас, Gintautas Jakštas) 교육부 장관이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처럼 학교에서 러시아어 교육을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고 곧바로 교육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다. 이는 소수민족 학교, 특히 러시아인 학교와 유치원을 없애려는 집권 다수당의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러시아인 학교의 폐교는 특정 소수민족의 소외를 초래할 뿐이라며 반대했고 3월 초에는 폴란드계 주민 3천 명 이상이 소수민족 학교 보호 집회 개최를 열었다. 또한, 러시아어의 인기가 줄어들어도 불구하고 2022/23학년도에 6-11학년의 제2외국어 과목 중에서 러시아어 약 15,000명, 독일어 4,765명, 프랑스어 1,800명이 선택하여 러시아어가 가장 인기가 많았다.

그렇지만 쉬모니테(Ингрида Шимоните, Ingrida Šimonytė) 총리는 학교에서 폴란드어를 러시아어 대신 가장 인기 많은 제2외국어로 만들기를 원했다.

2024년 4월에 폴란드계인 도브로볼스카(Эвелина Добровольска) 법무부 장관이 2010년에 폐기된 소수민족법을 부활하여 러시아학교를 폐교하고 의회 선거 전에 리투아니아의 주요 소수민족인 폴란드계와 러시아계를 분리하려는 계획을 드러냈다. 즉 폴란드학교만이 국가 차원에서 보전되고 러시아 및 벨라루스학교는 지방정부가 결정할 것이라는데, 이미 1월 빌뉴스시가 9월 신학년부터 6학년 학생에게 러시아어를 제2외국어로서 추천하지 않고 제2외국어는 유럽연합의 공식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III. 나가며

발트 3국은 반러시아 정서가 강하고 이를 정책으로 추진하여 러시아인을 동화시키거나 쫓아내고 러시아어의 지위 박탈, 학교 교육에서 사용 제한, 공공활동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상황이다. 이는 독립 이후 시작했지만, 2014년 러시아의 크림병합과 2022년 2월 특별군사작전으로 절정에 달하고 있다.

특히 에스토니아인과 라트비아인으로의 동화, 아니면 동화를 거부하는 러시아인의 추방 조치, 그리고 모든 활동 영역에서의 러시아어의 전면적인 사용 금지는 발트 3국 국민이 보기에는 당연하지만,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인에게는 민족 정체성의 상실로 이의 보전은 이들의 최우선 과제이다. 또한, 러시아인들이 다수인 동부의 러시아 접경지역과 대도시에서의 러시아어 사용은 여전하지만, 현재와 같은 반러시아 정책이 계속 강화되면 러시아연방이 러시아인과 러시아어 보호를 내세워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조치를 펴는 상황도 올 수 있다.

## 참고문헌

- Жен, Ген Тэк (2013), “Исследование влияния языковой политики в Эстонии”,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славянским языкам № 18-2. 139-157. Сеул.
- 정경택, “라트비아의 언어정책과 민족 간 갈등 연구,” 슬라브어 연구, 제17권, 제2호. 2012.
- \_\_\_\_\_, “발트 3국의 언어정책,” 슬라브研究, 제30권, 제4호. 2014.
- Колосов В.А. Гнополит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России: представление иреальность. Москва: Арт-Курьер, 2000. 148-149.



# 교수법의 절충주의적 접근을 통한 ‘중급러시아어작문’ 수업 모델 연구 - 이동동사를 중심으로 -

이새봄 (중앙대)

## I. 들어가는 말

우리는 제 2외국어의 사용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다. 해외에서는 k-pop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한국 문화가 지닌 소프트파워(soft power)가 상당해져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수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졌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여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자연스레 관련 학계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특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연구 활동이 관련 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외국어 교수법 관련 연구는 한국어와 영어 교육에 적용된 교수법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세계 각지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국제 언어이자 제 2의 언어이기 때문에 영미권의 수많은 언어학자들과 언어교육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외국어 교수법들이 연구되어 왔고, 이들에 의해 다양한 교수법 이론들이 탄생했다.

18세기 라틴어와 희랍어 교육을 위해 최초로 탄생한 ‘문법·번역식 교수법(Grammar Translation Method)’을 시작으로 21세기 현대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탄생한 ‘테크놀러지를 활용한 교수법’에 이르기까지 외국어 교수법들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꾸준히 연구·발전되어 왔다.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로 범용되고 있는 교수법들은 주로 영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영어 교수법은 꾸준히 연구되어 왔고, 또 현재도 끊임없이 진행 중이다. 이에 반해 러시아어를 대상으로 교수법을 적용한 사례와 연구는 상대적으로 현저히 부족하다. 사실 국내에서 제 2외국어로서의 영어와 러시아어의 입지와 위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는 이상할 것도 없고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필자는 2018년 2학기부터 6년간 진행해오고 있는 A대학의 ‘중급러시아어작문’ 수업에서 적용한 언어교수법들을 되돌아보며 어떤 식의 교수법 접근(pedagogic approach)이 특히 러시아어 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이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언어교수법이론

21세기를 올라오며 수많은 언어교수법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교수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중급러시아어작문’ 수업 시간에 적용한 언어교수법 이론이기도 하다.

### 2.1. 문법·번역식 교수법(Grammar Translation Method)

외국어 교수법 중에서 가장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교수법으로 알려진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독일 학문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프러시아 교수법(Prussian Method)으로 알려졌다.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한마디로 외국어를 해당 언어의 유창성 유무에 관계없이 번역이라는 방법으로 언어를 배우는 교수법이다.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말하기, 듣기 위주의 직접식 교수법(Direct Method)과 달리 말의 유창성보다는 문법 규칙의 정확성을 강조한다. 또 언어 학습이 문장 단위로 이루어지며, 주로 격변화 및 어형 변화 등 문법 규칙과 어휘 암기, 번역과 쓰기 등에 집중한다. 따라서 해당 교수법을 활용한 외국어 수업은 모국어로 진행되어 학습자가 외국어로 의사소통할 기회는 거의 없으며, 수업에서 활용되는 텍스트는 그 내용보다는 문법적 분석이나 번역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언어교육의 혁신과 이에 따른 다양한 교수법들이 등장하였으며,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교수법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 2.2. 직접식 교수법(Direct Method)

직접식 교수법(Direct Method)은 19세기 말에 등장하였으며 글(written language)에 집중하는 문법·번역식 교수법과는 반대로 말(spoken language)의 훈련이 목적이다. 왜냐하면 의사소통 능력 발달이 외국어 학습의 최종 목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하는 외국어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직접식 교수법을 적용한 수업 교실에서는 ‘인물’, ‘성격’ 등 특정 주제와, ‘상점’, ‘카페’ 등의 특정 상황을 설정하여 이 안에서의 언어사용을 통한 어휘 습득을 강조한다. 문법은 귀납적으로 접근하여 예문을 먼저 보고, 학습자가 예문들로부터 규칙을 스스로 이해하도록 하는 학습 전략을 추구한다.

직접식 교수법에서 교수자가 새로운 어휘나 어휘 구를 제시할 시 몸짓, 실물예시, 그림을 사용하여 그 의미를 전달한다. 이때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모국어로 번역해주지 않으며 수업 시간에는 모국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선형성(1990)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지적하였다. “비교적 준비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이 말을 하면 부정확한 말을 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성인이 된 외국어 학습자는 유아가 모국어를 배우는 것과는 다르다. 성인은 모국어의 장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선형성: 1990)

### 2.3. 청화식 교수법(Audio-Lingual Method)

청화식 교수법(Audio-Lingual Method)은 명칭 그대로 듣기(Audio)와 말하기(Lingual) 교육을 중시하는 지도법이다. 구조주의 언어학의 영향을 받으며 행동주의 심리학의 이론적 배경 위에 발달한 교수법이다. 행동주의 심리학에 따르면 언어습득이란 반복적인 강화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이는 언어는 모방에 의한 습관형성을 통해 학습된다는 원리이다. 목표어(외국어)의 pattern practice, 즉 문형 반복 연습을 통해 목표어를 습득한다는 것이다. 반복하고 암송하는 과정을 중시하며, 언어 능력은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는 입장이다. Larsen-Freeman은 청화식 교수법의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언어학습은 습관 형성의 과정이다. 어떤 것을 되풀이하여 반복하면 할수록 습관이 되어 학습의 효과가 커진다.(Larsen-Freeman. 2011. 83p)” 즉, 수많은 반복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경험을 학습의 도달점으로 보는 것이다.

청화식 교수법도 직접식 교수법과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목표어만 사용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패턴에만 의존한다는 비판과, 패턴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위험은 무시하고,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한다는 행동주의에 입각하여 학생들에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통제된 입력(controlled input)을 주입하여, 자동적으로 대답하도록 연습하기 때문에 자칫 ‘잘 훈련된 앵무새’처럼 보이는 단점이 있다.

### 2.4. 참여중심교수법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를 중요시하는 교수법이다. 수업의 주제는 교실 내부가 아닌 학습자가 직접 교실 밖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여러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학습자들이 목표어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중시한다. 외국어 학습이라는 틀을 떠나 더 넓은 의미에서 토론 및 토의 수업 형식이 이 참여중심교수법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참여중심교수법에서는 학생들이 학습 자료를 직접 만들게 하고, 학습 자료는 다른 학생들의 언어학습을 위한 교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참여중심교수법의 목적은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점차적으로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학습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있다. 이것은 참여중심교수법이 제시하는 학생들이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느끼게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직접식 교수법과 청화식 교수법과는 반대로 학습자의 모국어를 중요시한다. 목표어를 학습할 때 모국어가 경시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 III. ‘중급러시아어작문’ 수업 전개

해당 수업은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총 2학기에 걸쳐 진행한다. ‘이동동사를 활용한 러시아어 작문(김근식, 2013)’을 수업 교재로 사용하며 매주 15개의 문장 번역을 목표로 총 320개의 문장을 번역한다. 번역의 관점에서 SL(Source language)은 학습자들의 모국어인 한국어가 되며, TL(Target language)은 러시아어가 된다. 러시아어 이동동사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커리큘럼은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단계 1에 앞서 수업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학습자들에게 수업에 대한 진행 방식을 알려 학습자들이 커리큘럼에 맞게 학습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돕는다. 단계 1에서는 교수가 이동동사의 기본적인 개념을 전달하며, 학습자들은 작문(번역)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동동사의 개념을 정리하게 된다. 1단계에서의 작문은 평이었다면, 2단계에서 부터는 작문의 난이도가 높아진다.

2단계에서는 접두사 부가에 따른 의미 파생 구조에 관한 주제로 진행되며, 번역을 통해 의미 차이를 학습자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교재의 예문을 통해 *уйти*와 *выйти*의 공간적 의미 차이를 잘 느낄 수 있다.

155. 업무가 끝나서 동사무소 담당 직원이 퇴근한 줄 알았는데 그는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라고 했다. → Рабочий день кончился и посетитель подумал, что дежурный работник мест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ушел**. Но говорили, что он **вышел**.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접두사 부가 불완료상(НСВ) 이동동사의 과거 시제에서의 다양한 공간적 의미구조 활용을 연습하게 된다. 이 단계의 특징은 학습자들이 과거시제 속 접두사 부가 다방향 동사들의 의미 및 공간적 개념을 혼동하기 시작하며, 예를 들어 *ходить*와 *приходить*등의 직시성에 관련된 질문들이 나온다. 교수는 언어의 직시성과 더 나아가 러시아어 직시동사에 대한 설명으로 정리를 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명령형에서의 이동동사 상의 의미적 차이에 대한 주제도 더불어 학습한다.

단계	주제	문장 번호	교수자	학습자
1	이동수단 및 방향	1~136	-이동수단에 따른 동사 소개 -방향에 따른 구조 도식화	-136개 문장의 한노 번역을 통해 이동동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며 반복 학습.
2	접두사 부가	137~155	-접두사 부가에 따른 의미적 파생 전달	-약 20개 문장의 번역을 통해 접두사 부가에 따른 다양한 공간적 의미 파생 원리 학습.
3	상의 형성	156~320	-접두사 부가에 따른 이동동사 상의 형성 및 의미 설명	-이동동사의 모든 접두사들을 접하고 한노 번역을 통해 상의 의미 차이 터득. -번역을 통해 상의 활용 반복. -동사의 직시성으로 연결, 직시성에 대해 학습

#### 〈수업 전개〉

#### IV. '중급러시아어작문'의 절충주의적 수업 모형 설계

언어교육의 시각에서 필자는 절충주의(eclecticism)는 오로지 한 가지의 언어 교수법 이론 및 학습 전략만 바라보고 그 원리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교수법의 원리들을 모아 접목하여 교수자가 실제 수업 교실 환경과 학습자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교수자의 판단 하에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실제 수업에서는 다양하면서도 넓은 관점을 가지고 교수법들의 관계가 상보적인 입장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필자가 중급러시아어작문 수업에 적용한 학습전략 교수 모형은 크게 '문법·번역식', '직접식', '청화식', '참여중심' 모델의 교수법이라고 볼 수 있다.

문법·번역식 교수법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작용은 번역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목표는 실제 중급러시아어작문 수업 안에서 적용한 학습 과정이다. 수업 현장에서 한국어에서 러시아어로의 작문(번역) 행위라는 큰 틀 안에서 학습자들의 언어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필자는 러시아어를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아닌 해당 능력 뿐 아니라 러시아어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과 문법적 분석이 고등교육을 받는 대학생 이상의 학습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전통적 접근 방법의 문법·번역식 교수법을 배제하고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수업 모형에 적용하였다. 해당 언어에 관한 언어학적 접근은 학습자의 지적 능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문법번역식 교수법에서는 규범문법(Prescriptive Grammar)적 입장에서 문법규칙에 접근하고 이를 분석한다. 규범문법에서는 문법은 규정된 법칙 안에서 쓰야하고 규범에 벗어난 것은 틀린 문법이라고 정의하며 규칙을 엄격히 다룬다. 하지만 러시아어 문법 체계는 해당 시각에서만 보면 안된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 예. 1. Завтра ты **пойдешь** к ней?  
2. Завтра ты **идешь** к ней?

위의 두 문장에서 술어로 쓰인 이동동사 모두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시제를 표현한 것이다. 일방향 동사(정태동사)에 접두사를 부가하여 인칭변화하여 표현하는 것은 러시아어 이동동사의 미래시제에 관한 규칙이다. 반대로 접두사가 없는 일방향동사를 인칭변화하여 사용하면 이는 현재시제를 뜻한다. 이것은 순전히 규범문법에 입각한 러시아어 이동동사의 시제 관련 규칙이다. 하지만 실제 대화 상황에서는 두 번째 문장도 미래시제로 쓰인다는 것이다.

실제 중급러시아어작문 수업 현장에서 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게 된다.

69. В воскресенье вечером посол с семьёй едет на балет в Национальный театр.

<이동동사를 활용한 러시아어 작문 中 >

규범문법의 반대 개념인 **기술문법(Descriptive Grammar)**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법을 가리킨다. 이는 언어를 죽어있는 것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객체로 보기 때문에 언어는 변화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전통적인 문법 규칙만이 옳다고 하지 않으며, 규칙에 어긋나도 실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이는 옳은 것이다.

예를 들어, 외래어 кофе는 러시아어에서 남성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현대 러시아어에서는 어휘가 중성어미를 갖는다고 하여 중성으로도 혼용해서 쓰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예. моё горячее кофе

중급러시아어작문 교재에서도 이에 대한 예를 찾아볼 수 있었다. 실제 수업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112. Сержант вёл солдат по широкой улице.

<이동동사를 활용한 러시아어 작문 中 >

남성명사 солдат는 복수생격과 복수대격에서 무형어미를 갖는다. 이는 무형어미 주격 남성명사의 격변화 규칙에 벗어난 현상이다. 처음 문장을 접할 때 학습자들은 눈치를 채지 못한다. 이때 교수가 문제 제기를 한다. 비로소 학습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다. 문법·번역식 교수법이 고수하는 규범문법(PG) 입장에서 이는 문법의 오류라고 정의내릴 것이다.

그럼 수업 현장에서 문법·번역식 교수법에 의거해 이는 문법의 오류라고 정의내릴 것인가? 아니다. 기술문법(DG) 입장에서 이는 실제 상황에서 쓰여 오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받아들인다. 학습자에게는 언어는 살아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설명하며 기술문법적 입장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알려주어야 한다.

관련 학자들에 의해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최대 단점으로 평가받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습득 즉, 의사소통 능력 습득 부족에 대한 우려는 수업 현장에서 ‘직접식교수법’과 ‘청화식교수법’의 원리를 동시에 적용하여 보완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이동동사의 정태, 부정태 개념은 직접식 교수법의 원리를 활용하여 교수자가 몸짓, 그리고 그림과 실물예시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교수자가 몸짓으로 모든 방향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그림 자료를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p>1) </p>	<p>2) </p>
<p>Солдат <b>ползёт</b> по земле. &lt;교수자가 제시한 그림을 통한 응용작문&gt;</p>	<p>86. Вор лез на забор. &lt;수업 교재 中&gt;</p>

〈수업 현장에서 교수자가 제시한 그림 예시〉

수업 현장에서 많은 학습자들이 의미적으로 헷갈려 했던 이동동사 ползти와 лезть의 의미적 차별성은 그림을 통해 시각적으로 제시하였고, 이후 확실히 학습자가 설명으로만 듣는 것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청화식교수법’의 pattern practice를 통한 목표어의 문형 습득 원리는 수업 현장에서 문법적 패턴을 학습 하는데 매우 유용한 전략이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학습자는 수업 교재 209번과 210번 작문을 통해 화자의 희망사항을 표현하는 ‘과거 술어형 + бы’를 학습하였다. 교수자는 응용작문을 미리 준비하여 학습자들에게 제시, 응용이라는 자극을 통해 그들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학습자들이 이를 반복 연습하여 목표어의 표현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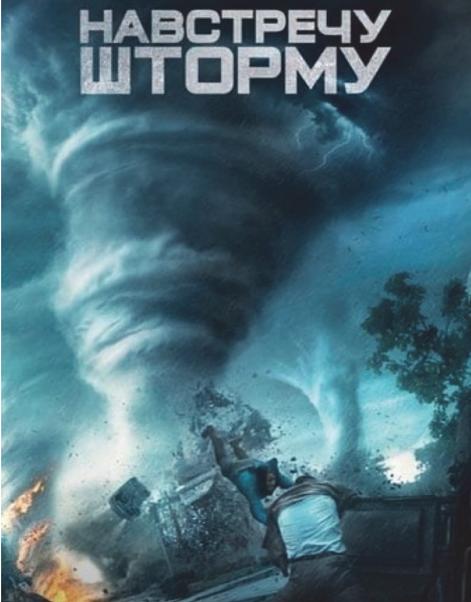
이동동사를 활용한 러시아어 작문 교재 中	
209. 우리는 오디오 세트와 최신 모델의 세탁기를 새 아파트로 옮겼으면 한다. Мы <b>отвезли бы</b> аудио-аппарат и стиральную машину последней модели в новую квартиру.	
210. 나는 이 식기세척기를 어머니 댁으로 실어갔으면 한다. Я <b>отвёз бы</b> эту посудомоечную машину к матер.	



응용 작문을 통한 패턴 연습	
야외로 나갔으면 좋겠다! Поехал бы загород!	
너랑 같이 저녁 먹고 싶다! Пужинала бы с тобой!	

〈패턴 반복 모형〉

- 1) [https://yandex.ru/images/search?img\\_url=https%3A%2F%2Fkonspekta.net%2Fstudopediainfo%2Fbaza1%2F983990177863.files%2Fimage032.jpg&lr=10635&p=5&pos=26&rpt=simage&text=%D1%81%D0%BE%D0%BB%D0%B4%D0%B0%D1%82%20%D0%BF%D0%BE%D0%BB%D0%B7%D0%B5%D1%82%20%D0%BA%D0%B0%D1%80%D1%82%D0%B8%D0%BD%D0%BA%D0%B0](https://yandex.ru/images/search?img_url=https%3A%2F%2Fkonspekta.net%2Fstudopediainfo%2Fbaza1%2F983990177863.files%2Fimage032.jpg&lr=10635&p=5&pos=26&rpt=simage&text=%D1%81%D0%BE%D0%BB%D0%B4%D0%B0%D1%82%20%D0%BF%D0%BE%D0%BB%D0%B7%D0%B5%D1%82%20%D0%BA%D0%B0%D1%80%D1%82%D0%B8%D0%BD%D0%BA%D0%B0) (검색일: 2021.04.19)
- 2) [https://yandex.ru/images/search?img\\_url=https%3A%2F%2Fstihi.ru%2Fpics%2F2018%2F11%2F18%2F7342.jpg&lr=10635&ogl\\_url=https%3A%2F%2Fstihi.ru%2Fpics%2F2018%2F11%2F18%2F7342.jpg&p=4&pos=16&rtl\\_url=https%3A%2F%2Fi.yti mg.com%2Fvi%2F0XCsnwdgROk%2Fmaxresdefault.jpg&rpt=simage&text=%D0%BB%D0%B5%D0%B7%20%D0%BD%D0%B0%20%D0%B7%D0%B0%D0%B1%D0%BE%D1%80%20%D0%BA%D0%B0%D1%80%D1%82%D0%B8%D0%BD%D0%BA%D0%B0](https://yandex.ru/images/search?img_url=https%3A%2F%2Fstihi.ru%2Fpics%2F2018%2F11%2F18%2F7342.jpg&lr=10635&ogl_url=https%3A%2F%2Fstihi.ru%2Fpics%2F2018%2F11%2F18%2F7342.jpg&p=4&pos=16&rtl_url=https%3A%2F%2Fi.yti mg.com%2Fvi%2F0XCsnwdgROk%2Fmaxresdefault.jpg&rpt=simage&text=%D0%BB%D0%B5%D0%B7%20%D0%BD%D0%B0%20%D0%B7%D0%B0%D0%B1%D0%BE%D1%80%20%D0%BA%D0%B0%D1%80%D1%82%D0%B8%D0%BD%D0%BA%D0%B0) (검색일: 2021.04.19 )

영화 포스터 제목의 러시아어 번역을 통한 이동동사 방향성 응용	영화 포스터를 활용한 전치사와 격지배
<p>3)</p> 	<p>4)</p> 

〈‘직접식’과 ‘청화식’을 접목한 교수법 예시〉

‘직접식 교수법’의 실물 예시 제시 원리와 ‘청화식 교수법’의 문형 패턴 연습을 함께 접목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위 표는 실제 수업에서 적용한 예로, 첫 번째 포스터는 이동동사 идти의 일방향성과 이동행위의 목적은 바로 뒤 동사의 미정형을 써서 표현할 수 있다는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실물 예시이다. 해당 영화는 러시아어로 “А Теперь я иду встретиться с тобой.”로 번역되었다. 학습자가 포스터를 통해 두 가지 문법 주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두 번째 영화 포스터는 수업 교재 작문 3번 “경찰들이 우리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 Полицейские шли навстречу нам.”에 나타난 전치사 навстречу의 의미와 격 지배 패턴에 대한 반복 학습을 위해 활용하였다. 학생들은 포스터에 나타난 시각적 자극을 통해 전치사의 쓰임새를 보다 명확히 흡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참여중심교수법’에서 언어활동은 학습자들이 교실 밖 실제적인 현장에서 마주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나누며 토의를 하는 것이다. ‘중급러시아어작문’의 수업 커리큘럼 특성상 이러한 수업 관찰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참여중심 교수법이 지닌 ‘학생들이 직접 자료를 만들어 와서 다른 학

3) <https://yandex.ru/images/search?from=tabbar&text=%D0%B0%20%D1%82%D0%B5%D0%BF%D0%B5%D1%80%D1%8C%20%D1%8F%20%D0%B8%D0%B4%D1%83%20%D0%B2%D1%81%D1%82%D1%80%D0%B5%D1%82%D0%B8%D1%82%D1%8C%D1%81%D1%8F%20%D1%81%20%D1%82%D0%BE%D0%B1%D0%BE%D0%B9%20%D1%84%D0%B8%D0%BB%D1%8C%D0%BC%202018> (검색일: 2022.03.21)

4) <https://yandex.ru/images/search?from=tabbar&text=%D0%BD%D0%B0%D0%B2%D1%81%D1%82%D1%80%D0%B5%D1%87%D1%83%20%D1%88%D1%82%D0%BE%D1%80%D0%BC%D1%83> (검색일: 2022. 02.19)

생들과 공유,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며, 지식 공유'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학습자가 직접 수업 시간에 발표 전 주에 본인에게 할당된 수업 교재 속 작문을 미리 연구, 해당 학습자는 발표 당일 교수가 되어 동료 학습자들에게 지식을 공유하며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한다. 해당 교수법은 교수법 중 동료교수법(Co-Teaching)의 개념으로도 설명 할 수 있는데, 학습자가 직접 교수가 되어 동료 학생들을 가르침으로서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학습(cooperative learning)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 V. 나가며

가장 효과적인 단 하나의 교수법이 존재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문법체계가 복잡한 러시아어의 경우 어린아이의 모국어 습득 과정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직접식교수법'과 '청화식교수법' 같은 교수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모국어를 완전히 배제한 듣기, 말하기 식 중심의 교수법들은 영어 교육에서도 한계점이 발견되는데, 필자는 수업 경험들을 통하여 러시아어 교육에 있어서도 이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느낀다.

또한 문법·번역식 교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수업은 중급 수준의 작문 교육, 특히 러시아어 이동 동사 교육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문법·번역식 학습 없이는 골격이 튼튼한 언어 능력의 발전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소 지루하고 딱딱한 방법일 수도 있는 문법·번역식 모델에 다른 교수법들을 절충하는 것은 학습자의 흥미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학습자도 능동적인 수업의 주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중급러시아어작문' 수업 경험을 통해 느낀 바이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법·번역식은 낡고 소위 트렌디하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해당 교수법이 지닌 특징을 기반으로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과 그 활용 방안이 계속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Diane Larsen-Freeman. “언어교수법의 이론 및 실제” (2016)
- Rivers, Wilga M.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 London. (1981)
- 김근식, “이동동사를 활용한 러시아어 작문” (2013)
- 선형성, “외국어교육에서 문법·번역식 교수법” (1990)
- 채은혜, “문법번역식교수법의 활용이 영해독해력 및 정의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2) 언어  
과학연구, 109집. (2024)
- 홍순서, “영문법: 기술문법을 중심으로” (1997)
- 한갑수, “교수법” (2019)
- 이대균, 서윤정, “발음중심 교수법과 총체적 언어 접근법을 병행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2005)

어학/통번역 분과

어학/통번역 분과 C:  
슬라브 언어학의 제문제 연구

사회: 김태진(배재대)

- ▶ 17세기 말 언어 접촉의 증거: Grammatica Russica(1696)의 문법적 간섭현상 연구 ..... 339
  - 발표: 한지형(부산가톨릭대)
  - 토론: 김희연(안양대)
  
- ▶ 러시아어의 энантиосемия 현상에 대하여 ..... 353
  - 발표: 길윤미(경북대)
  - 토론: 이남경(경상국립대)



# 17세기 말 언어 접촉의 증거

## - *Grammatica Russica*(1696)의 문법적 간섭 현상 연구 -노트레이킹

한지형 (부산가톨릭대)

### I. 들어가는 말

17세기 말,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언어적 교량 역할을 한 하인리히 빌헬름 루돌프(Heinrich Wilhelm Ludolf, 1655~1712)의 *Grammatica Russica*(1696)는 언어 접촉의 생생한 증거이자 당대 러시아어 연구의 독특한 창구이다. 본 발표문은 *Grammatica Russica*에 나타난 언어 접촉과 간섭 현상을 살펴봄으로써, 당대 러시아어의 실제 사용 양상과 외국인의 러시아어 인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문법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 첫째, 미시적 차원에서 제정 러시아의 양층언어 상황(Diglossia)에서 교회슬라브어와 러시아어의 관계를 조명한다. 둘째, 거시적 차원에서는 러시아어와 유럽의 여러 언어들 간의 대조언어학적 관점을 제시한다.<sup>1)</sup> 그러나 본 문헌이 루돌프 개인의 언어 경험을 통해 기술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개인적 한계를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핵심은 외국인의 관찰과 모국어 프레임을 통해 기술된 러시아어 문법에서 나타나는 간섭 현상을 분석하여, 17세기 말 러시아어의 본질적 특성을 추출하는 데 있다. 특히 루돌프의 언어적 배경인 독일어와 당시 학문적 라틴어(Academic Latin)가 러시아어 기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문법적 간섭 현상의 원인과 양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Grammatica Russica*(1696)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근접한 *Dictionnaire Muscovite*(1586)나 *Russian-English Dictionary-Diary of Richard James*(1618-1619)와 같은 다른 외국인 기술 문헌 연구에도 적용 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16세기 말부터 17세기 말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러시아어 발전 과정과 유럽인들의 러시아어 인식 변화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한지형, “*Grammatica Russica*(1696)의 형태론: *Грамматики Славенския правильное Считанма*(1619)와 비교의 관점에서,” *러시아학* 2022. 24: 89.

한편, 본 발표문은 언어학과 사회언어학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언어 접촉 개념을 다루기보다는 루돌프라는 개인의 언어 경험에 기반한 러시아어, 라틴어, 독일어 간의 구체적인 언어 접촉 현상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집단적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의 언어 접촉 연구로, 17세기 말 러시아어와 유럽 언어 간의 접촉 양상을 미시적으로 조명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본 연구는 *Grammatica Russica*에 나타난 문법적 간섭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17세기 말 러시아어의 언어적 특성과 당시의 언어 접촉 상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역사언어학적 관점에서 러시아어의 발전 과정을 조명하고, 외국인에 의해 기술된 언어 자료의 해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II. *Grammatica Russica*에 반영된 언어 접촉과 간섭 현상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Grammatica Russica*에 나타난 문법적 간섭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17세기 말 러시아어의 실제 사용 양상과 외국인의 러시아어 인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나 문법적 간섭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루돌프의 러시아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음성·음운적 측면에서 가장 잘 드러나며, 이러한 특징들은 루돌프의 문법 기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Grammatica Russica*에 나타난 음성·음운적 특징은 루돌프의 언어적 배경과 당시 러시아어의 표기 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현상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첫째, 러시아어의 유·무성 자음의 구별에 있어 루돌프는 대체로 정확성을 보여주었으나, 일부 사례에서 오류가 관찰된다.

- (1) a. домали твои хослинь?<sup>22)</sup> (p. 48)

당신의 주인은 집에 있나요?

- b. челомъ бью. а починаль пить про здоровіе хослина. (p. 51)

감사합니다. 나는 주인의 건강을 위하여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 (2) A: ужели ты изъ вбѣдны.

B: та сударь, а еше вса служба не скончалася, по тому что причастіе у насъ севодни. (p. 68)

A: 벌써 너는 예배에서 돌아왔니?

B: 네, 나리. 하지만 예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성찬식이 있거든요.

- (3) барень, малецъ, поди въ поварну и позови ивановну. <...> барень налси пиво, а прежде выплощай

2) 본문 내 *Grammatica Russica*의 인용 및 발췌 시, 원본의 언어적 특성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원문의 표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는 당시의 독특한 철자법, 대소문자 사용, 특수 기호, 문장 부호 등을 포함한다. 또한, 원본에서 사용된 이탤릭체나 기타 글자체의 변화도 가능한 한 원래의 모습 그대로 재현하였다.

штеканъ, крушку. (p. 50)

애야, 애야, 부엌에 가서 이바노브나를 불러 오세요. <...> 애야, 맥주를 따라라, 하지만 먼저 잔과 술 용기를 씻도록 해라.

상기에서 관찰되는 ‘хослинь, та, барень’의 표기는 루돌프의 러시아어 유·무성 자음 대립 인식에 일관성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хослинь’(хозлинь의 오기)에서는 강세 음절 앞 어중 위치의 유성 치경 마찰음 /z/가 무성음 /s/로 표기되어, 이 환경에서의 유성음 인식 오류를 드러낸다. ‘та’(да의 오기)의 경우, 어두의 유성 폐쇄음 /d/가 무성음 /t/로 표기되어 유·무성 대립 인식 난점을 시사한다. 반면 ‘барень’(парень의 오기)에서는 앞선 두 경우와 달리 어두의 무성음 /p/가 유성음 /b/로 표기되어, 루돌프의 유·무성 대립 인식의 비일관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오류 패턴은 외국어 학습자가 목표어의 음운 체계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흔히 겪는 어려움을 반영하며, 특히 루돌프의 경우 어중과 어두 위치에서의 유·무성 대립 인식이 불안정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한 청각적 인식의 오류일 수 있으나, 동시에 당시 독일어와 차별되는 러시아어 유·무성 자음 발음의 특성이나 방언적 요소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표기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 가능성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말 위치의 자음 표기에서 러시아어의 음성학적 특징과 표기 관행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

(4) a. Adamas - алмасъ - Demant. ‘다이아몬드’ (p. 84)

b. Merula - дръсть черна - Amsel. ‘검은 지빠귀’ (p. 88)

특히 ‘алмасъ’(алмазь의 오기)와 ‘дръсть’(дроздь의 오기) 같은 예시는 러시아어의 어말 무성음화 현상을 정확히 인지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음성학적 관찰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러시아어의 형태음운론적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나타낸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루돌프의 모국어인 독일어에도 유사한 어말 무성음화 현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러시아어에서 이를 형태음운론적으로 바르게 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몇 가지 중요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먼저, 자신의 모국어인 독일어의 표기 원칙을 러시아어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가 두 언어를 별개의 체계로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러시아어를 주로 청각적으로 인지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그가 러시아어를 체계적인 문법 구조보다는 개별적인 음성 현상으로 접근했음을 암시한다.

셋째, 어말 위치에서 연음성(мягкость)의 표기 방식은 17세기 말 러시아어 표기 관행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루돌프는 일반적으로 어말 위치의 ‘예리(ерь)’를 표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모스크바의 서적과 필사본에서 예리의 표기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동사 어미의 표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동사의 미정형 어미는 대체로 ь 없는 위첨자 т로 표기되었으며, 현재시제 3인칭 단수 어미 역시 같은 방식으로 ь 없이 위첨자 т로 표기되었다. 이에 대해 루돌프는 독특한 접근을 보여주는데, 모든 동사의 미정

형 어미를 ‘-ть’로 일관되게 기록하였다.<sup>3)</sup> 이는 당시의 표기 관행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자신만의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려 했음을 시사한다.

명사의 어말 자음 표기에서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 관찰된다. 특히 ъ와 ѣ의 사용에서 일관성과 변이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는 17세기 말 러시아어 표기법의 과도기적 특성을 반영한다.

- (5) Bos - быкъ - Bull. ‘황소’ (p. 89)
- (6) Lунх - рысь - Luchs. ‘살쾡이, 스라소니’ (p. 89)
- (7) a. Equus - лошадь - Pferd. ‘말’ (p. 89)
- b. лошадь (p. 45)
- (8) Pardus - барсь - Leopard. ‘표범’ (p. 89)

이러한 표기에서 관찰되는 ъ와 ѣ의 혼용은 단순한 오류로 치부하기보다는 당시 러시아어의 음운론적, 형태론적 특성과 표기 관행의 복합적 작용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ъ와 ѣ는 고대교회슬라브어 및 초기 고대러시아어에서 발음과 문법적 기능을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였으나, 17세기에 이르러 그 사용이 점차 변화를 겪고 있었다. ѣ는 어말 자음의 경음성(твердость)을 강화하는 기능을, ъ는 연음성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분이 모호해졌다. 라린(Ларин Б. А.)이 제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표기의 일부가 인쇄 과정에서 추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up>4)</sup> 그러나 이러한 해석만으로는 전체적인 패턴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러한 변이는 17세기 러시아어 표기법이 아직 완전히 표준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음성·음운적 특징들을 토대로, 이제 *Grammatica Russica*에 나타난 문법적 간섭 현상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문법적 간섭 현상은 언어 접촉 상황에서 보다 복잡하고 체계적인 양상을 보이며, 루돌프의 언어적 배경과 러시아어 인식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다. 본 발표문에서는 이러한 문법적 간섭 현상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고찰한다. 첫째, 전치사 및 격 형태의 간섭 현상, 둘째, 부정문의 간섭 현상, 셋째, 인칭대명사의 간섭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기타 양상들을 추가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17세기 말 러시아어와 유럽 언어 간의 접촉 양상을 더욱 명확히 파악하고, 나아가 당시 외국인 학자들의 러시아어 인식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 2.1. 전치사 및 격 형태의 간섭 현상

### 2.1.1. 가장 두드러진 문법적 간섭 현상 중 하나는 독일어 전치사의 직접적 이식이다. 이는 루돌

3) Ларин, Б. А.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Лудольфа (Оксфорд, 1696)*. переизд., пер., вступ. статья и прим. Ларина Б.А. (Л.: Ленинградский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Языкознания, 1937) 30.

4) Там же, 30.

프의 모국어인 독일어의 문법 구조가 러시아어 기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특히 독일어 전치사 ‘mit + 여격(Dativ), fur + 대격(Akkusativ), auf + 여격, aus + 여격, von + 여격’이 러시아어에서 각각 ‘съ + 조격, за + 대격, на + 대격, съ + 생격, в + 생격’의 형태로 대응되는 양상은 주목할 만하다.

(9) A: <...> чемъ тебѣ потчиватьъ. ‘무엇으로 대접할까요?’

B: съ пивомъ, <...> ‘맥주로 부탁드립니다.’ (p. 50)

lat. Cerevisia,

ger. Mit bier,

(10) A: какъ тамошніе люди проклажать сл.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즐기나요?’

B: со всѣческими играми. ‘온갖 종류의 게임으로 즐깁니다.’

lat. Variis ludis.

ger. Mit allerhand spielen. (p. 61)

대화문 (9)와 (10)에서는 독일어 전치사 ‘Mit’의 직접적 번역으로 인한 오류가 관찰된다. 러시아어에서는 ‘Пивомъ’과 ‘Всѣческими играми’로의 조격 형태만으로 충분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전치사 ‘съ’가 동반되었다.

(11) мало забавы за инноземца. ‘외지인을 위한 오락은 적습니다.’

lat. Parum recreationis extero obvenit.

ger. Da ift wenig zeit vertreib fur einen frembden. (p. 61)

예문 (11)에서는 독일어 전치사 ‘fur’(현재의 für)를 ‘для’ 대신 ‘за’로 직역한 결과가 나타난다.

(12) буди здоровъ, на твоѣ здоровіе. ‘건강하세요,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lat. Propino tibi, in salutem tuam.

ger. Ich bringe es euch, auf euere gesundheit. (p. 51)

예문 (12)는 러시아어에서의 일반적인 표현 ‘за твоѣ здоровіе’ 대신 ‘на’는 독일어 ‘auf’의 직접 번역으로 인한 오류의 결과이다.

(13) A: давноли ты съ москвы. ‘모스크바에서 온 지 얼마나 되었어요?’

lat. Diune è Mofcovia difcessifti?

ger. Wie lange ift es daſs ihr aus der Mofcau kommen.

B: вчѣрасъ онъ в нова города приѣхаль.

lat. Heri ille Novogorodio advenit.

ger. Gestern ist er von Novogrod kommen. (pp. 43~44)

대화문 (13)에서는 독일어 ‘aus’와 ‘von’의 영향으로 인해 전치사 선택 오류가 나타난 사례이다.

**2.1.2.** 전치사 사용에서 나타난 간접 현상과 더불어, 러시아어 ‘조격(творительный)’의 사용에서도 흥미로운 양상이 관찰된다. 루돌프는 러시아어의 조격을 교회슬라브어의 특징적인 격으로 인식하고, 이를 라틴어의 ‘Ablativus Instrumenta’(수단의 탈격)에 대응하는 것으로 설명한다.<sup>5)</sup> 이러한 접근은 그가 러시아어의 조격을 라틴어의 탈격(Ablativus) 및 독일어의 여격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격으로 이해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 관계는 러시아어의 복잡한 격 체계를 완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루돌프가 이 대응 관계를 기준으로 러시아어 격 표현을 선택하는 경향이다. 즉, 라틴어에서 탈격을, 독일어에서 여격을 사용하는 구문에서는 러시아어 본래의 문법 규칙과 무관하게 조격을 선택하는 반면, 이와 다른 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러시아어에서 조격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다른 격 표현을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14) живѣть за городѣ. ‘그는 도시 밖에 살고 있어요.’

lat. Habitat extra urbem.

ger. Er wohnt aufferhalb der stadt. (p. 46)

상기의 예에서 러시아어는 ‘за городом’과 같이 조격을 요구하지만, 라틴어 ‘extra’가 대격(Accusativus)을, 독일어 ‘aufferhalb’가 속격(Genitiv)을 지배하는 탓에 루돌프는 오늘날의 전치격에 해당하는 탈격(Ablativus, 즉 сказательный)<sup>6)</sup>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15) Между хослина и слуги. ‘하인과 주인 간의 대화.’

lat. Inter Dominum & Servum.

ger. Zwischen dem Herrn und Knecht. (p. 54)

예시 (15)는 본 문법서의 대화 텍스트 제4장의 제목으로, 러시아어 ‘между’가 조격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라틴어 ‘inter’의 대격 지배와 독일어 ‘zwischen’의 여격 지배 영향으로 생격 형태가 사용되었다.

반면, 다음 예문들은 루돌프의 대응 원칙이 역으로 작용한 경우를 보여준다.

5) Ludolf, H. W. Grammatica Russica quæ continet non tantum præcipua fundamenta Russicæ linguæ, verum etiam Manuductionem quandam ad Grammaticam Slavonicam (Oxonii: Theatro Sheldoniano, 1696) 14.

6) Ibid. 2.

- (16) Ѧ не нужень твоимъ совѣтомъ, здѣлаи что Ѧ прикажу. ‘네 조언이 필요하지 않으니, 내가 명령한 것을 해라.’

lat. Non indigeo tuo confilio, fac quod jubeo.

ger. Ich bedarf deines raths nicht, thue was ich dir befehle. (p. 57)

- (17) Ѣ ѣствомъ и питїи. ‘음식과 음료에 관한 대화’

lat. De Cibo & Potu.

ger. Von Effen und Trinken. (p. 48)

예문 (16)에서 적절한 러시아어 표현은 ‘мнѣ не нужень твои совѣтъ.’이지만, 라틴어의 탈격 ‘tuo confilio’와 독일어의 속격 ‘deines raths’ 사용으로 인해 조격 형태가 선택되었다. 그리고 대화 텍스트 제3장의 제목 (17)에서도 루돌프가 인지한 라틴어의 탈격과 독일어의 여격 대응 관계로 인해, 러시아어에서 전치격을 요구하는 상황임에도 조격이 사용되었다.

2.1.3. *Grammatica Russica*에서 관찰되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간접 현상은 활동체 여격 형태의 사용에서 나타난다. 특히, 러시아어에서 전치사 없이 여격만으로 충분한 상황에서 전치사 ‘къ’를 불필요하게 첨가하는 오류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상은 라틴어와 독일어의 대응 문장에서도 여격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다음의 예문들은 이러한 오류를 명확히 보여준다.

- (18) Ѧ пиль къ сосѣду моему. ‘나는 내 옆사람에게 술을 따랐어요.’

lat. Propinavi vicino meo.

ger. Ich habe meinem nachbar zugetruncken. (p. 51)

- (19) Ѧ посулилъ ужь къ инному. ‘나는 이미 다른 사람과 약속했어요.’

lat. Jam tum alii promifi,

ger. Ich habe schon einem andern zugefaget, (p. 56)

이 두 예문에서 러시아어는 단순 여격만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къ’가 첨가되었다. 이는 라틴어와 독일어에서 전치사 없이 여격만 사용된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다음 예문은 라틴어와 독일어의 전치사 구문이 러시아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볼 수 있다.

- (20) ѡнеси бушмаки къ сапожнику и вѣли ихъ починить. ‘구두를 구두 수선공에게 가져가서 수선해달고 해라.’

lat. Porta calceos ad futorem & jube eos farciri.

ger. Frage die schue zum schuster, und laffe sie flicken. (pp. 56~57)

상기의 경우, 루돌프가 실제 문법 기술에서 러시아어 전치사 ‘къ’를 라틴어 전치사 ‘ad’에 대응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sup>7)</sup> 라틴어의 ‘ad + 대격’ 구문과 독일어의 ‘zum + 여격’ 구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루돌프가 러시아어의 여격을 라틴어와 독일어의 특정 구문들과 대응시키려는 과정에서 과잉 일반화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여격이 가진 다양한 의미 기능을 구분하려는 시도로, ‘къ + 여격’을 통해 수령자나 목적지의 의미를 더 명확히 하려 했을 수 있다. 셋째, 모국어인 독일어에서의 여격 사용 방식이 러시아어 분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라틴어 문법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은 이를 잘 보여준다.

(21) какой эму промысль?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lat. Quodnam ipſi artificium?

ger. Was iſt feine handthierung. (p. 63)

여기서 라틴어의 지시대명사 ‘ipse’의 여격 형태가 러시아어에 그대로 이식되어, 러시아어의 일반적인 표현인 ‘у него’가 아닌 인칭대명사 여격 형태로 제시되었다. 반면 독일어에서는 인칭대명사 3인칭 남성 단수 ‘sein’의 속격 형태가 사용되어 있다.

**2.1.4.** 그리고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간섭 현상은 러시아어의 특징적인 생격 사용에 관한 것이다. 특히, 생격을 요구하는 동사와 부정된 타동사의 격 지배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루돌프의 라틴어 및 독일어 배경이 러시아어 문법 기술에 미친 영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러시아어에서는 특정 동사들이 생격을 요구하며, 부정된 타동사의 경우 목적어가 대격이 아닌 부정 생격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Grammatica Russica*에서는 이러한 구문들이 라틴어와 독일어의 대격 형태에 대한 간섭으로 인해 생격이 아닌 대격의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예문들은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준다.

(22) мы не дожидали са гости, <...> ‘우리는 손님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

lat. Non exſpectavimus convivas,

ger. Wir haben keine gafte vermuthet, (p. 49)

(23) нечемь дѣти не кормишь ‘아무것도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없어요.’

lat. Nihilō liberos non alis.

ger. Mit nichts kan mann die kinder nicht ernehren. (p. 65)

예문 (22)에서 러시아어 동사 ‘дождаться’는 생격을 지배하는 동사로, ‘гости’는 복수 생격의 ‘гостей’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라틴어에서 ‘convivas’(conviva의 복수 대격)와 독일어에서 ‘gafte’(Gast의 복수 대격)가 사용된 영향으로, 러시아어에서도 대격 형태가 사용되었다. 이어 예문

7) Ibid. 42.

(23)의 경우, 부정문에서 ‘дѣти’는 부정 생격 ‘дети’의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라틴어의 ‘liberos’(liber의 복수 대격)와 독일어의 ‘kinder’(Kind의 복수 대격)의 영향으로 대격 형태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루돌프가 러시아어의 특수한 생격 사용 규칙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혹은 라틴어와 독일어의 문법 체계를 통해 러시아어를 해석하려 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17세기 말 외국인 학자가 러시아어의 복잡한 격 체계, 특히 생격의 다양한 용법을 이해하고 기술하는 데 겪었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 2.2. 부정문의 간섭 현상

*Grammatica Russica*에서 관찰되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간섭 현상은 부정문의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본 영역에서 라틴어와 독일어가 공유하는 문장 어순과 구조가 러시아어 부정문 기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간섭 현상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첫째, 부정소사의 위치에서 라틴어와 독일어의 어순이 그대로 이식되는 경향이 있다.

(24) длачєво ты вчєрась нє ку мнѣ пришоль. ‘어제 왜 나에게 오지 않았나요?’

lat. Quare heri non ad me venifti.

ger. Warum feyd ihr geftern nicht zu mir kommen. (p. 47)

(25) <...> а жалѣ мнѣ что денги нє въ мошнѣ держаль. ‘<...> 돈을 주머니에 넣지 않은 것이 후회됩니다.’

lat. fed pœnitet me, quod nummos non in crumena fervaverim.

ger. aber es gereuet mich, daß ich das geld nicht im beutel behalten. (p. 64)

본 예문들에서 러시아어 부정소사 ‘нє’의 위치가 ‘нє пришоль’과 ‘нє держаль’와 같이 동사 직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와 독일어의 어순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둘째, 부정대명사 ‘никто’와 결합한 부정문에서 러시아어 특유의 이중 부정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이 드러난다. 러시아어에서는 부정대명사와 함께 부정소사 ‘нє’가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라틴어와 독일어의 단일 부정 구조의 영향으로 이러한 특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있다.

(26) нє бои сѧ ещє ꙗ никово пианово напоиль, кажеть сѧ мнѣ что наше пиво очень житко.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저는 아무도 취하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맥주는 매우 묽다고 생각해요.’

lat. Noli timere. adhuc neminem ebrium reddidi, videtur mihi, quod cerevifia nostra valde tenuis fit.

ger. Furchtet euch nicht, ich habe noch niemand voll getruncken, mich dunckt, unfer bier fey zu dunne.

(p. 52)

이 예문에서 ‘не напоилъ’ 대신 ‘напоилъ’만 제시되어 있어, 러시아어의 이중 부정 구조가 반영되지 않았다.

셋째, 이러한 부정문의 구조적 간섭으로 인해 *Grammatica Russica*에서는 부정대명사 ‘некто’의 사용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는 라틴어의 ‘nemo’와 독일어의 ‘niemand’ 등에 대응하는 형태로 보인다.

(27) некто удоволить ся въ томъ что богъ дастъ.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lat. Nemo contentus est sua forte.

ger. Niemand ist zufrieden mit dem was Gott bescheeret. (p. 65)

(28) хотѣ ты рано спать лежишь однакожде некогда прежде седмого часа тебѣ вижу. ‘비록 네가 일찍 잠자리에 들더라도, 나는 일곱 시 전에 너를 본 적이 없다.’

lat. Quanquam mature cubitum eas, tamen nunquam ante septimam horam te video.

ger. Wenn du gleich fruh schlaffen gehst, so sehe ich dich doch niemahl vor sieben uhr. (p. 54)

이러한 현상들은 루돌프가 러시아어의 부정문 구조, 특히 이중 부정과 부정소사의 위치에 대한 특수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대신 그는 자신에게 친숙한 라틴어와 독일어의 부정문 구조를 러시아어에 적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 2.3. 인칭대명사의 간섭 현상

*Grammatica Russica*에서 관찰되는 인칭대명사의 사용은 루돌프의 언어학적 통찰력과 실용적 접근을 동시에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특히, 2인칭 대명사의 처리 방식은 단순한 문법적 대응을 넘어 언어 간 기능적 등가성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라틴어와 러시아어, 그리고 독일어의 2인칭 대명사 체계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틴어와 러시아어는 비존칭 2인칭 단수형(‘tu’와 ‘ты’)만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당시 독일어는 비존칭 2인칭 단수 ‘du’와 존칭 2인칭 복수 ‘ihr’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현대 독일어의 공식적 존칭 ‘Sie’는 아직 사용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언어 간 차이에 직면하여 루돌프는 독특한 전략을 채택했다. 그는 라틴어와 러시아어의 비존칭 2인칭 단수형에 대응하여 독일어 번역에서 ‘ihr’를 사용하였다.<sup>8)</sup> 이는 단순한 문법적 대응이 아닌 기능적 번역(functional translation)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문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29) Где ты былъ. ‘너 어디 있었어?’

lat. Ubi fuisti?

ger. Wo seyd ihr gewesen? (p. 43)

8) Roth K. “Learning Russian via Latin in the 17th century,” *Graeco-Latina Brunensia* 18-1 (Brno: Masaryk University, 2013) 177.

(30)  $\Delta$  давно теб $\Delta$  не видалъ. ‘나는 오랫동안 너를 못 봤어.’

lat. Diu te non vidi.

ger. Ich hab euch lange nicht gesehen. (p. 47)

루돌프가 ‘ihr’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첫째, 당시 독일 사회에서 ‘ihr’이 존칭으로 더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둘째, 비록 러시아어 ‘ты’와 라틴어 ‘tu’가 비존칭이지만, 당시 독일어 사용자들은 대화 상대방을 더 공손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ihr’을 사용함으로써, 독일어 화자들의 실제 언어 사용 습관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모든 상황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다. 특정 맥락, 특히 하인과의 대화나 질책의 상황에서는 독일어 번역에 2인칭 단수형 ‘du’가 사용되었다.

(31)  $\Delta$  знаю, что всегда быть то дуракъ  $\bar{\omega}$ твѣчаешъ. ‘나는 네가 항상 바보처럼 대답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lat. Hoc scio, te femper instar stulti respondere.

ger. Das weis ich, dafs du allezeit wie ein narr antwortest. (p. 58)

이러한 인칭대명사 사용의 변화는 루돌프가 단순히 기계적인 번역이 아닌, 맥락과 사회언어학적 요소를 고려한 유연한 접근을 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본 현상은 언어 간 간섭의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모국어에 의해 외국어 학습이 방해받는 현상을 순행간섭, 그 반대의 경우를 역행간섭이라 한다. 그러나 루돌프의 경우, 러시아어와 라틴어의 2인칭 대명사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히려 자신의 모국어인 독일어의 사용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간섭 현상이라기보다는 다중언어 환경에서의 전략적 언어 사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4. 기타 간섭 현상

*Grammatica Russica*에서 관찰되는 간섭 현상은 앞서 논의한 주요 영역 외에도 다양한 문법적 측면에서 나타난다. 여기서는 특히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추가적인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4.1. 러시아어 의문문 구조에 대한 루돌프의 기술에서 라틴어의 영향이 뚜렷이 관찰된다. 특히, 의문소사나 의문접미사의 사용 방식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32) крылоди или ногу? ‘날개를 드릴까요, 아니면 다리를 드릴까요?’

lat. Alamne vel pedem?

ger. Einen flugel oder ein bein. (p. 52)

(33) лучели тебѣ ѣхать водою или горои. ‘당신은 수로와 육로 중 어떻게 가는 것이 더 좋나요?’

lat. Mavifne aqua vel terra proficifci?

ger. Reiffet ihr lieber zu waffer oder zu lande? (p. 61)

상기의 (32)와 (33) 예문들에서 러시아어 의문조사 ‘ли’가 라틴어의 의문접미사 ‘-ne’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라틴어에서 ‘Alamne’는 ‘ala’에 의문 접미사 ‘-ne’가 붙은 형태이며, ‘Mavifne’는 동사 ‘malo’의 2인칭 단수 형태 ‘mavis’에 ‘-ne’가 결합된 것이다. 루돌프는 이러한 라틴어의 구조를 러시아어에 적용하여, ‘ли’를 단어에 직접 접미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러시아어의 실제 사용과는 차이가 있는 구조로, 러시아어에서 ‘ли’는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위치하거나 문장 내 다른 위치에 올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루돌프가 라틴어의 문법 구조를 통해 러시아어를 이해하고 설명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2.4.2.** 루돌프의 러시아어 기술에서는 때때로 독일어 관용구의 직접적인 번역이 관찰된다. 이는 언어 간 의미적, 구조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34) куда думаетесь? ‘어디로 생각해요?’

lat. Quorfum tendis? ‘어디로 가세요?’

ger. Wo dencket ihr hinaus? ‘어디로 갈 생각하세요?’ (p. 47)

본 예문에서 러시아어 표현 ‘куда думаетесь?’는 독일어 ‘Wo dencket ihr hinaus?’의 직접적인 번역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어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며, 라틴어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례는 루돌프가 때로는 독일어의 관용적 표현을 러시아어에 그대로 적용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언어 간 의미 전달 방식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17세기 외국어 교육에서 직면했던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III. 나가며

본 발표문은 하인리히 빌헬름 루돌프의 *Grammatica Russica*에 나타난 문법적 간섭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17세기 말 러시아어와 유럽 언어 간의 접촉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당대 러시아어의 실제 사용 양상과 외국인 학자의 러시아어 인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Grammatica Russica*의 분석 결과, 다양한 문법적 간섭 현상이 관찰되었다. 먼저, 전치사 및 격 형태의 사용에서 독일어와 라틴어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독일어 전치사의 직접적 이식, 러시아어 조격의 오용, 활동체 여격 형태의 과잉 사용, 그리고 생격 사용의 오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부정문 구조에서 라틴어와 독일어의 간섭이 현저하게 드러났다. 부정소사의 위치 선정, 이중 부정 구조의 미사용, 그리고 부정대명사 ‘некто’의 사용 등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칭대명사 사용에 있어 루돌프는 독특한 전략을 채택하여, 라틴어와 러시아어의 비존칭 2인칭

단수형에 대응하여 독일어 번역에서 존칭 ‘ihr’를 사용하는 등 기능적 번역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문문 구조에서 라틴어의 영향과 독일어 관용구의 직접적 번역 등 기타 간접 현상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17세기 말 러시아어-유럽어 간 언어 접촉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루돌프의 사례는 개인의 언어 경험이 목표어 인식과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생생히 보여줌으로써, 개인적 차원의 언어 접촉 연구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또한, *Grammatica Russica*는 17세기 말 유럽의 다중언어 환경에서 외국어로서의 러시아어가 어떻게 인식되고 기술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당시의 언어학적 방법론과 외국어 교육 접근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더불어, 루돌프의 오류와 독특한 접근 방식은 러시아어와 서유럽 언어들 간의 구조적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어, 초기 대조언어학적 연구의 한 사례로서 가치가 있다.

결론적으로, *Grammatica Russica*의 문법적 간접 현상 연구는 17세기 말 러시아어의 실제 모습과 당시의 언어 접촉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이는 단순히 한 외국인 저자의 오류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언어 간 상호작용과 문법 체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각주 참고문헌 참조.



# 러시아어의 энантиосемия 현상에 대하여

길윤미 (경북대)

## I. 들어가는 말

언어 체계 안에서 어휘는 다른 어휘와 다양한 상관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 그러한 상관관계에는 동의관계, 반의관계, 다의관계, 동음이의관계 등 잘 알려져 있는 것들 외에, 하나의 어휘가 그 자체에 반의관계를 담고 있고 있는 энантиосемия(enantiosemy)란 현상도 있다.

지금껏 국내외 어휘의미론 분야에서 энантиосемия 현상은 크게 주목 받지 못해왔다. 그 이유는 이 현상이 동의관계나 반의관계처럼 큰 부류를 이루지 못하는데다가 속어나 방언 등 표준어 규범 밖에서 나타나곤 한다는 데 있을 것이다. 언어를 막론하고 이 분야가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관련 연구가 조금씩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다른 어휘의미관계에 비해 연구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황이다. 19세기 연구자 Шерцль(1883:1)이 “이 중요한 언어현상은 알려진지 오래지만 지금껏 충분한 관심을 받아오지 못했으며 많은 부분이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다”고 한 말은 현 시점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이 현상이 언어에 왜, 어떻게 출현한 것일까, 이를 지칭하기 위해 энантиосемия란 용어가 사용된 연유는 무엇일까, 이 용어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와 같은 기본적 물음에 답을 찾고자 시작되었다.

## II. 어휘의미론 체계에서 энантиосемия의 위상

어휘의미론 체계에서 энантиосемия를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오랜 시간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다. 연구자들은 저마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견해를 피력해 왔는데 반의관계, 다의관계, 동음이의관계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널리 나타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셋 중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러시아학계에서는 Новиков(1973)를 필두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것을 반의관계의 일종으로 간주

해왔다. 이러한 관점의 강력한 논거는, энантиосемия가 어휘의미론적 측면에서 반의성의 속성(‘부정(negation)’, ‘작다-크다(more-less)’, ‘좋다-나쁘다(good-bad)’ 등의 대립)을 공유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энантиосемия를 반의관계에 포함시킨다면, 반의관계와 구별되는 이것의 차별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가령, энантиосемия는, 반의관계와 달리, 반대 의미들 중 하나가 구어, 방언, 고어 등으로 제한됨으로써 문체적 유표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Балалыкина 2012:112). 더 나아가 의미들이 통사적 혹은 어휘적 결합성의 차이를 보인다거나,<sup>1)</sup> 반의성의 실현에 맥락의 도움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보통의 반의관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성이다. 이들 특성은 энантиосемия의 본질적인 속성, 곧 하나의 단어 안에 반대 의미들이 담겨있음으로 해서 수반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상황은 энантиосемия를 반의관계보다는 다의관계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Пете 1964, Бацевич 1987 등)에 힘을 실어준다. 이 둘은 한 단어 안에 복수의 의미가 결합되어있다는 공통분모를 토대로 그 밖의 여러 특성도 공유하기 때문이다. 다의어의 의미들은 최초의 의미에서 관련성(인과관계, 인접성 등)의 원리에 따른 은유나 환유의 방식으로 파생된 것들이나 의미적 유관성이 짙다. энантиосемия의 의미들도 궁극적으로 다의어의 생성 원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출현하여 서로 간에 밀접한 관련성을 보존한다. 더욱이 여러 의미 중 어떤 의미가 실현되는지가 맥락 의존적이라는 점도 둘의 공통점이다.

그런데 энантиосемия와 다의관계가 공유하는 의미적 관련성은 그 성격이 상이하다. 다의관계에서는 의미들이 긴밀한 파생적 의미망으로 연결되어있고 따라서 유사성이 두드러진다면, энантиосемия에서는 양극단의 상호 모순적 의미가 실현되는바 의미들 간 차이점이 부각된다. 이는 энантиосемия를, 동의어나 다의어와 같이 의미적 ‘공통점’을 부각하는 어휘의미관계보다는 ‘차이점’에 초점을 둔 동음이의관계와 묶도록 만든다. 대표적으로 Шанский(1959)가 이 입장을 고수하는데 그(1959:165)는 하나의 단어 안에서 반대 의미가 발전하여 양극단으로 떨어진 경우, 즉 우리가 энантиосемия라 부르는 것을 동음이의관계로 취급한다.

문제는 이러한 생각이 Шанский 본인이 내린 반의관계의 정의와 양립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의 말대로 반의관계란(동음이의관계와 달리) 상반되지만 “상호 관련된” 개념을 표현한다고 할 때(1959:165), энантиосемия는 동음이의관계보다는 반의관계에 더 가깝다. 이것의 상반된 의미들은, 반의어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공통 의소들을 토대로 변별적 의소에 의해 대립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름답다’와 ‘느리다’를, 그 의미적 간극에도 불구하고, 반의어로 간주하지 않는 이유는 둘의 공통 의소가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가리키는 의미 범주도, 결합하는 대상도 모두 다르다. 마찬가지로, энантиосемия라 부르기 위해서는 의미들 간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명사 слабость는 ‘쇠약함’이라는 기본 의미 외에 구어에서 ‘(끊기 힘든) 특별한 관심’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энантиосемия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두 의미가 ‘육체’와 ‘심리’라는 상이한 범주에

1) 예컨대, одолжить는 ‘빌려주다’와 ‘빌리다’의 의미를 가리킬 수 있어 энантиосемия로 간주되는데 각각의 의미가 상이한 결합성을 보인다(‘빌려주다’의 의미일 때는 N<sub>여격</sub>과, ‘빌리다’의 의미일 때는 u+N<sub>생격</sub>과 결합: Он одолжил мне 100 рублей vs Я одолжил у него 100 рублей).

속하는 등 공통 의소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Кравцова 2006: 82-83). 이렇듯, энантиосемия의 반대 의미들은 의미적 공통분모를 지니며 이는 동음이의어와 변별되는 속성이다. 다의어의 의미들 간 상호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질 때 동음이의어의 출현을 논할 수 있다면,<sup>2)</sup> энантиосемия는 반대 의미들이 공통된 의미 기저를 토대로 대립하는바 동음이의어로 간주하기 힘들다.

### III. 개념의 정의와 용어의 문제

살펴본 바와 같이, 어휘의미론 체계에서 энантиосемия의 위상은 여러 관점이 난립한 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남아있다. 지금껏 반의관계, 다의관계, 동음이의관계의 일종으로 보는 관점이 널리 나타났다면, 최근에는 이것을 독립적인 범주로 취급하는 관점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본고에서도 지지하는 이 관점은 энантиосемия가 기존의 어휘의미관계로 수렴되지 않는 고유한 속성을 지닌다는 데 기반을 둔다. 요컨대, энантиосемия는 하나의 단어에 담겨있는 두 의미 간의 관계라는 점에서 보통의 반의관계와 다르고, 두 의미가 대립적인 극성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다의관계와도 차이를 보이며, 두 의미 간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동음이의관계와 구별된다. 이와 같은 핵심적인 변별적 특성을 토대로 우리는 энантиосемия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1) 하나의 어휘항목(lexical item)<sup>3)</sup>에 두 개의 상반되는 의미가 결합되어 있을 때, 이 두 의미 간의 관계

энантиосемия의 정의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난제는 ‘상반되는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를 энантиосемия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는데 상반되는 의미를 명확히 한정하지 않는다면 다의관계와 경계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연구자에 따라 энантиосемия로 간주되어 온 다음의 두 가지 ‘의심스러운’ 후보군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첫째, 하나의 단어가 맥락 혹은 공기하는 성분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되거나, 또는 시대별로 평가적 뉘앙스의 역전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두 개의 개별적 의미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다.

(2a) светить: Ему светит премия ‘그는 상을 타게 될 것이다’ vs

Ему светит пожизненное заключение ‘그는 종신형을 선고 받을 것이다’

2) 다의관계와 동음이의관계를 구분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이다. 기표가 동일한 어떤 단어의 의미들이 상호간에 “의미론적 사슬(семантическая связь)”을 지닌다면, 즉 하나의 토대적 의미에서 다른 의미들의 파생 관계가 나타나다면 다의어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으면 동음이의어로 분류되지만 이 “의미론적 사슬”을 판단하는 기준과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Ахманова(1957:105)의 지적처럼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데 동음이의어로 분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3) 본고에서는 단어뿐만 아니라 어근이나 접사, 어구(語句)에서도 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개념의 정의에 ‘단어’라는 말 대신 ‘어휘항목’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 (2b) оставить: Он оставил всё как было ‘그는 모든 것을 그대로 남겨놓았다(보존했다)’ vs Он оставил всё и уехал ‘그는 모든 것을 남겨놓고(버리고) 떠났다’  
 (2c) консервативный ‘보수적인’, безбожник ‘무신론자’

Ермакова(2008:67)가 모순어의 사례로 제시한 (2a)의 светить는 공기하는 성분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라도 그 어휘의미(‘예정되다, 예상되다’)가 다르지는 않다. 이와 유사하게, Прохорова(1976:161)는 (2b)의 оставить를 상반된 해석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모순어로 분류하지만, 두 의미는 оставить의 기본 의미(‘남겨놓다’)의 맥락적 실현일 뿐 어휘의미의 차이라고 볼 수 없다. (2c)의 консервативный, безбожник처럼 평가의 역전이 통시적으로 발현된 사례들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두 단어는 혁명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에 긍정성과 부정성이 역전된 사례이다. консервативный는 중립적, 긍정적 뉘앙스에서 부정적 뉘앙스로, безбожник은 부정에서 중립, 긍정으로 뉘앙스의 변화를 겪게 되지만(Скляревская 1998:69-70), 그렇다고 긍정/부정의 역전이 어휘의미의 변화로까지 이어진 것은 아니다. 이들 케이스는 ‘의미는 하나’이되, 공기하는 성분이나 맥락, 시대상황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의 뉘앙스가 발현될 뿐이므로 모순어로 간주하기 힘들다.

둘째, 두 의미가 상당히 다르기는 하지만 전형적인 반의관계와는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 (3a) лихой ‘악한, 나쁜’ vs ‘용감한, 날쌔’  
 (3b) зараза ‘병원, 전염’ vs ‘매력, 아름다움’

лихой는 ‘악한, 나쁜’이라는 옛 의미와 ‘용감한, 날쌔’의 현대적 의미가 대립한다는 점에서 통시적 энантиосемия로 간주되곤 한다(Балалыкина 2012:111). зараза는 최초의 의미 ‘병원’과, 18세기에 출현한 ‘(여성의) 아름다움, 매력’이 의미적 대립을 이루다가 현대어에서 다시 옛 의미로 회귀하였다는 점에서 통시적 энантиосемия의 특이 케이스로 분류된다(Балалыкина 2012:123). 그렇지만 각 단어의 두 가지 의미는 긍정-부정의 대립은 보일지언정 전형적인 반의관계<sup>4)</sup>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энантиосемия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앞서의 사례들과 달리, 이 경우는 긍정-부정의 대립이 어휘의미에 반영되어 의미의 간격을 벌리고 있다는 점에서 энантиосемия와의 접점을 인정할 수는 있겠다. 무엇보다도 한 단어 안에 양극화된 평가 성분이 출현하게 된 배경, 반대 의미의 고착화 과정 등은 энантиосемия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 부류를 ‘진짜’ энантиосемия와 구분하되 그 유사성을 인정하여 ‘의사(квази)’ энантиосемия로 간주

4) 전형적인 반의관계란 일반언어학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을 말한다(러시아어 용어는 Новиков(1982:251-254), 영어 용어는 Lyons(1968:460-469)의 것임)  
 i) 정도(контрарная/antonymous) 반의관계: 정도, 등급에 따른 반의관계. 예) лёгкий-трудный, хороший-плохой  
 ii) 상보(коплементарная/complementary) 반의관계: 한쪽의 부정이 다른 쪽의 단언을 함의하는 반의관계. 예) холостой-женатый (не холостой=женатый)  
 iii) 방향(противоположная направленность/converseness) 반의관계: 시점이나 위치에 따른 반의관계. 예) начинать-кончать, продавать-покупать

하기로 한다. 이렇게 본고에서는 전형적인 반의관계에 수렴되는 의미관계만을 고유한 энантиосемия로 간주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들은 제외할 것이다.

이제 энантиосемия의 정의를 토대로 이 용어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자. 지금까지 우리는 적절한 한국어 용어를 찾지 못한 채 러시아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용어가 난립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하나의 용어로 정착하지 못한 때문이다. 영어권의 경우 연구자별로 auto-antonymy, self-antonymy, contronymy, contradictianymy, enantiosemy, antagonymy, Janus word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러시아학계에서는 용어 энантиосемия의 대표성이 어느 정도 확립된 상황이다. 비록 внутрисловная антонимия(‘단어내적 반의관계’), автоантонимия(‘자체반의관계’), антонимическая омонимия(‘반의적 동음이의관계’), омоантонимия(‘동음이의적 반의관계’) 등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이들 용어는 대체로 энантиосемия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энантиосемия란 용어는 Шерцль(1883)이 처음으로 언어학 용어로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Шерцль(1883:1)은 “하나의 단어가 두 개의 상반되는 의미를 지니는 현상”을 가리키기 위해 이 용어를 제안하면서 이것이 완전히 “성공적인” 용어는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현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더 적절한 용어가 없는 까닭에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энантиосемия는 고대그리스어 ἐναντίος(‘반대의’) + σῆμα(‘기호’)를 어원으로 한다. 단순히 αντι(anti ‘반대’)가 아니라 접두사 ἐν(en ‘내부에, 안에’)가 붙음으로써 ‘내적’ 반의관계를 표상한다는 점에서 Шерцль의 겸손한 고백보다는 잘 만들어진 용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용어의 강점은 기존의 어휘의미관계를 가리키는 용어들과 변별된다는 점이다. ‘반의관계’(antisemy)의 의미를 지니되, 기존의 반의관계를 가리키는 антонимия(antonymy)와 형태적으로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이 현상의 고유하고도 독립적인 특성을 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리키는 우리말 용어도 영어권의 상황만큼이나 복잡하다. 영어 용어 self-antonym, auto-antonym에 상응하는 ‘자기반의어’, ‘자체반의어’란 용어를 사용하는 연구자가 있는가하면, 형태는 같되 의미적 대립에 초점을 두어 ‘동철대립어’란 용어도 나타난다. 국내 러시아어학계에서는 ‘단어내적반의어’(김진규 2003), ‘동음대립어’(백경희 2023)가 제안되기도 하였다. 비록 여러 용어가 혼재하고는 있으나 국내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우리말 용어는 이선영(2011)이 제안한 ‘모순어’이다.

본고에서도 энантиосемия에 상응하는 우리말 용어로 ‘모순관계’를 사용하고, 이 특징을 지니는 어휘항목을 ‘모순어’라 부르하고자 한다. ‘모순관계’, ‘모순어’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의 장점을 지닌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첫째, энантиосемия 현상의 고유한 특성, 곧 하나의 기표 안에 상호 모순적인 두 의미가 공존함을 드러내기 용이하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는 있으나 그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나타낼 수 없다”(이선영 2011:268)는 특성이 ‘모순’이라는 용어에서 잘 드러난다. 둘째, 기존의 용어와 중첩되지 않음으로써 이 현상이 별도의 독자적인 어휘 범주임을 드러낼 필요성을 충족한다. 이에 반해, ‘자체반의어’, ‘자기반의어’, ‘단어내적반의어’ 등은 그 안에 ‘반의

어’를 지냄으로써 энантиосемия를 반의관계의 일종으로 간주하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 요컨대, 기존의 용어에 기댄 것들은 энантиосемия를 하나의 독자적인 어휘의미관계로 간주하는 본고의 기본 전제에 상응하지 않는다. ‘동음대립어’, ‘동철대립어’ 등은 용어 자체가 (‘동음이의어’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기표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энантиосемия의 정의에 합당하지 않다. 셋째, 우리 말 용어를 제안할 때 기존에 국내 학계에서 수용되고 있는 정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모순어’가 완전히 합의된 용어는 아닐지라도 상대적으로 널리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들보다 앞선다.

이후부터는 энантиосемия를 ‘모순관계’라 부르고, 이러한 어휘의미 관계를 지니는 어휘항목을 ‘모순어’라 부르기로 한다.

#### IV. 발생원인 1: 고대 어근(단어)의 의미적 비변별성

이 분야의 초기 연구자 중 한명인 Шерцль(1883:1-3)은 모순관계 출현의 근본적인 원인을 고대 어근들이 보이는 의미적 비한정성, 비분리성에서 찾았다. 고대인들의 통합적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고대의 어근, 혹은 이 어근을 지니는 단어는 의미적 비분리성, 모호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것이 모순관계의 태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고대의 단어들 중 폭넓은 의미를 지녔던 것들이 점차 의미적 한정과 변별이 이루어지면서 상반된 의미를 표현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그의 견해를 지지해준다. 가령, 라틴어 altus는 애초에 사물 간 거리와 관련된 광범위한 의미를 지녔는데 이로부터 ‘위-아래’의 대립적 의미가 형성됨으로써(altus mons ‘높은 산’ vs altus puteus ‘깊은 우물’) 모순어가 된 경우이다(Шерцль 1883:1)

이 측면에서 전형적인 반의어 начало(‘시작’)과 конец(‘끝’)의 관계도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해 준다. 전혀 상이한 어원에서 유래했을법한 두 단어가 실제로는 같은 어근을 지닌다는 사실은 이 최초의 어근에서 모순관계를 보도록 해준다. 두 단어는 공통슬라브어 어근(더 멀리는 인도유럽어 어근) кон-(<\*ken-/\*kon-)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 어근은 ‘경계’와 관련된 폭넓은 의미를 지녔다. 이로부터 ‘경계로부터 시작’과 ‘경계에서 끝’의 의미가 발전하면서 한 단어 안에 ‘시작’과 ‘끝’의 의미가 담기게 된 것이다(Шанский&Боброва 2002:143). 아래의 단어들은 이 고대 어근의 의미적 비한정성과, 이로부터 연원한 모순관계의 노선을 잘 보여준다. конец와 동일 어근을 지니는 (4a)의 단어들은 다 ‘시작’의 의미를 환기하고, 일견 반의처럼 보이는 (4b)의 두 단어는 실제로는 ‘영원한’을 뜻하는 동의어이다.

(4a) искони(‘애초부터’), испокон веков(‘예로부터, 태고로부터’), коновод(‘주모자, 우두머리’)

(4b) безначальный, бесконечный ‘영원한’

고대 어근의 의미적 비분리성은 친족어의 유사 어휘들 사이에 모순관계가 발생하는 주요 통로이기도 하다. 이 종류의 모순관계는 비한정적이고 모호한 의미를 지니는 하나의 어근으로부터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두 개의 의미가 발전하면서 출현한다(Мельчук 2012: 148).

- (5a) čerstvý (체코어) ‘신선한’ vs чѣрствый ‘신선하지 않은, (굳어서) 딱딱한’
- (5b) zapomnieć (폴란드어) ‘잊다’ vs запомнить ‘기억하다’
- (5c) vůně (체코어) ‘향기, 향수’ vs вонь ‘악취’

(5a)의 두 단어는 공통의 어근에서 유래한 언어 간 모순어이다. ‘딱딱한’이라는 중립적, 일반적인 의미로부터 체코어 čerstvý는 딱딱한 것의 긍정적 측면(‘신선하여 무르지 않고 딱딱한 (과일)’→‘신선한’)을, 러시아어 чѣрствый는 그 부정적 측면(‘오래되어 딱딱한 (빵)’→‘신선하지 않은’)을 초점화하는 양상으로 의미 발전이 이루어짐으로써 모순관계가 형성된 경우이다. (5b-c)의 단어들이 모순어가 된 것도 유사한 원리이다. 각각 ‘기억’, ‘냄새’라는 공통의 의미가 슬라브어에서 양극화된 방향으로 의미적 한정이 이루어지면서 반대 의미가 태동한 것이다(Маркова 2010: 632-633).

원천어의 의미적 비한정성이 모순관계 태동의 발판이 될 때, 이 원천어의 역할이 접두사에 할당되기도 한다. 특히, 복합적 의미를 지니는 접두사 за-(예 6)와 про-(예 7)가 붙은 동사 중 모순어가 많다.

- (6a) задуть ‘끄다’ vs ‘켜다’: задуть свечу ‘촛불을 끄다’, задуть лампу ‘전등을 끄다’ vs задуть домину ‘용광로를 켜다, 달구다’
- (6b) завязать ‘시작하다, 맺다’ vs ‘중단하다, 끊다’: завязать разговор(переписку, дружбу, близкие отношения) ‘대화(펜팔, 우정, 가까운 관계)를 시작하다, 맺다’ vs завязать работать по ночам ‘야간근무를 중단하다’ Не пью: с этим делом завязал. ‘나 술 안 마셔. 끊었어.’
- (7a) просмотреть ‘보다’ vs ‘보지 못하다, 간과하다’ прослушать ‘듣다’ vs ‘듣지 못하다’
- (7b) Я прослушал симфонию. ‘나는 교향곡을 들었다/듣지 못했다.’

(6)의 접두사 за-가 붙은 유형은 의미별로 상이한 논항과 결합하는 까닭에, 단어 자체는 모순어일지라도 해석의 오류를 야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задуть는 결합하는 명사에 따라, 가령 свеча, лампа와 결합하면 ‘끄다’의 의미로, домина와 결합하면 ‘켜다, 달구다’의 의미로 실현된다(Пете 1964:23-24). завязать는 ‘시작하다’의 의미로는 직접목적어(N<sub>대격</sub>)를 취하고, ‘끝내다’의 의미일 때는 전치사구(c+N<sub>조격</sub>)나 V<sub>부정사</sub>를 취한다. 이에 반해, просмотреть, проглядеть, прослушать 등은 반대 의미 중 어떤 의미가 실현되는지를 논항이 예견해 주지 못해 중의성이 불가피한 것이다. (7b)의 прослушал이 뜻하는 바가 두 가지 상반된 의미 중 무엇인지는 오로지 맥락에 의해 드러날 뿐이다.

## V. 발생원인 2: 반어법(아이러니)

현대 언어에서 모순어 출현의 가장 일반적인 원천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단어를 실제 의미와 반대로 사용하는 아이러니(irony) 혹은 반어법(antiphrasis)이 그것이다. 거의 모든 단어가 이 방식에 의해 모순어가 될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지만, 보다 강력한 후보군은 (8a)의 단어들과 같이 긍정성, 부정성의 평가적 성분을 지니는 것들이다.

- (8a) осчастливить ‘행복하게 하다’ vs ‘불행하게 하다’, отблагодарить ‘감사를 표하다’ vs ‘감사하지 않다’, успокоить ‘안심시키다’ vs ‘걱정하게 만들다’  
 (8b) Ну, спасибо, осчастливили. ‘그래, 행복하게 해줘 참도 고맙군.’

이들 동사는 긍정의 디플트적 의미 외에 일상의 발화에서 아이러니적 용법으로도 사용된다. 예컨대, 달갑지 않은 정보를 누군가 알려주었을 때 (8b)와 같이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단어의 평가적 뉘앙스를 뒤집어 사용하는 방식은 구어, 속어, 문학작품에 만연해 있으며 최근에는 매체언어에서도 널리 나타난다(Ермакова 2008:65).

아이러니에 의해 형성되는 모순어는 처음에는 개인적 용법(индивидуальное употребление)으로, 이른바 ‘임시어’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임시어는 단순히 개인적 용법으로 머물다 사라질 수도 있고, 사회적 승인을 받아 어휘화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만 진짜 모순어의 출현을 논할 수 있는데, Bauer(1983:45-50)의 ‘단어의 역사(history of a vocabulary-item)’ 3단계를 통해 이 과정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자.

- (9) 임시어형성(nonce formation) → 공인화(Institutionalization) → 어휘화(lexicalization)

모순어의 ‘씨앗’은 ‘임시어형성(nonce formation)’ 단계에서 태동한다. 러시아어로는 흔히 *оказионализм*이라 부르는 ‘임시어’(nonce word, occasionalism)란 개별 화자/필자가 즉각적인 필요(immediate need)에 의해, 문학적 효과를 배가하거나 언어유희를 위해 만들어낸 단어를 말한다. 모순어와 관련하여 임시어형성 단계는 기존 단어의 새로운 의미(반대 의미)가 출현하는 단계로, 이때 의미의 변화는 지시적 측면보다는 평가적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애초에는 긍정적 특성을 가리키던 단어가 개별 화자들에 의해 부정적 의미로 (혹은 그 반대로) 사용되는 단계이다. (8)의 단어들은 아직까지는 임시어, 곧 모순어의 씨앗들로, 이 단계를 벗어나 진짜 모순어가 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개인적 용법으로 머물다 말 수도 있다.

이렇게 1단계의 ‘임시어-모순어의 씨앗’이 다수의 언중에 의해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이 되면 사회적 승인을 받은 공인화(Institutionalization)의 단계로 넘어갔다고 본다. 러시아 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말하자면 ‘임시적(оказиональная)’ 모순관계가 ‘관습적(узуальная)’

모순관계로 전환되는 단계이다. 아래의 어휘가 여기에 해당한다.

- (10) весело ‘기쁘다’ vs ‘슬프다’, конечно ‘물론, 당연히(확신)’ vs ‘과연 그럴까?(의심)’, очень надо(нужно) ‘매우 필요하다’ vs ‘전혀 필요 없다’

현대 러시아어에서 이들 어휘의 아이러니적 의미가 점점 더 확산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시하는 사전도 등장하고 있다. 가령, <Ожегов&Шведова 사전>(2006:76, 290, 423)은 세 단어의 아이러니적 의미를 명시하고 각각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제공해준다.

- (11) Всё лето будут дожди. — Весело! ‘여름 내내 비가 올 거야.’ 「슬프군!」  
 (12) Бросаю курить, последняя сигарета. — Конечно! ‘담배 끊을 거야, 이게 마지막 담배야.’ 「물론 그러시겠지!」  
 (13) Поговорить с ним? — Очень надо! ‘그와 이야기를 좀 해볼까?’ 「참도 필요하겠다!」

아직까지는 <Ожегов&Шведова 사전>을 제외하고는 반대 의미가 명시된 사전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세 단어의 아이러니적 의미는 이미 개인적 언어 사용을 넘어서 공인화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언젠가는 세 단어 모두 ‘진짜’ 모순어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다. 특히, нужно와 надо가 2단계, 혹은 이를 넘어서 3단계로 이동 중임은 동사 상 및 어순의 상관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어에서 필요성의 표현은 긍정문(14a)과 부정문(14b)에서 상의 사용이 달라진다. 그런데 (14c)에서 보듯, нужно의 아이러니적 용법은 불완료상 동사를 요하며, 여기에 더해 여격주체와 нужно의 어순 도치도 동반한다(Shmelev 2016:70). 요컨대, нужно, надо의 아이러니적 의미가, Bauer(1983:50-61)가 어휘화의 지표 중 하나로 언급한, 일련의 형태적 자질을 통해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14a) Мне нужно туда пойти. ‘나는 거기에 가야 한다.’  
 (14b) Мне не нужно туда ходить. ‘나는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  
 (14c) Нужно мне туда ходить. ‘내가 거기에 갈 필요가 있겠어(≈필요 없다).’

이 단계를 거쳐 모순어가 하나의 어휘로 인정받는 단계인 어휘화(lexicalization)의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반되는 의미가 다수의 사전에 등재됨으로써 사전적 정의가 일관성을 획득한다. 엄격한 기준은 아니겠으나 사전들에서 ‘Ирон.’라는 표식으로써 아이러니적 의미를 구분하는 경우는 2단계로, 이러한 표식 없이 어휘의미로 제시하는 경우는 이미 3단계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хороший(‘좋다 vs 나쁘다’), бесценный(‘귀중한, 비싼’ vs ‘무가치한, 싼’), честить(‘모욕하다’ vs ‘명예롭게 하다’) 등은 어휘화된 모순어들로, 대다수의 사전에서 상반되는 두 의미를 모두 제공해준다. 가령, 현대 러시아어사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хороший의 1차적 의미(‘좋다’)뿐

만 아니라 아이러니적 의미(‘나쁘다’)도 기본 의미 중 하나로 명시한다. <Кузнецов 사전>(2000:1452)은 8번 의미로(15a), <Ожегов&Шведова 사전>(2006:867)은 6번 의미로(15b), <Евгеньева 사전(МАС)>(1988:621)에선 5번 의미로 제시하고 있다(15c). (16)은 <Евгеньева 사전(МАС)>(1988:621)이 хорошее дело가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즉 우리의 용어로는 모순어임을 보이기 위해 들고 있는 예이다.

- (15a) 8. обычно кратк.; разг., употр. для выражения неодобрительной или иронической оценки кого-, чего-л. ‘보통 단형으로; 구어적 용법. 사람/사물에 대한 비판적, 아이러니적 평가를 표현.’
- (15b) 6. обычно кратк. ф. Употр. в реплике, имеющей значение возражения, отрицания чего-н., а также вообще при выражении иронического отношения к кому-чему-н. (разг.). ‘보통 단형으로. 반박 혹은 부정적 반응에서 사용. 또한 사람/사물에 대한 아이러니적 태도 표현. (구어적 용법).’
- (15c) 5. обычно кратк. ф. Разг. Употребляется для выражения иронического отношения к кому-, чему-л., пренебрежительно-неодобрительной оценки кого-, чего-л. ‘보통 단형으로. 구어적 용법. 사람/사물에 대한 아이러니적 태도나 멸시적, 비판적 평가를 표현.’
- (16a) Конечно, письма хорошее дело. (Ф. Достоевский, Бедные люди) ‘물론, 편지 좋지요.’
- (16b) — Что у тебя с пальцем? — ... — Да вот, стукнул нечаянно, — сказал я очень небрежно. — Хорошее дело — стукнул! Он распух у тебя? как поп на пасху. (В. Беляев, Старая крепость.)  
 ‘「너 손가락 왜 그래?」 ... 「모르고 부딪혔어요.」 나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안 좋네, 부딪히다니! 부활절 주간의 사제 마냥 손가락이 부어올랐군.」’

## 참고문헌

- Ахманова О. С. Очерки по общей и русской лексикологии. М. (1957).
- Балалыкина Э. А. Метаморфозы русского слова :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М. (2012).
- Бацевич Ф. С. “О глаголах с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м значением.” Рус. язык в школе (4) (1987).
- Евгеньева А. П.(гл. ред.)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 в 4 т.(МАС) М. Т.4(1988)
- Ермакова О. П. “Семант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Современный русский язык. Активные процессы на рубеже XX-XXI веков. М. (2008).
- Кравцова В. Ю. “Критерии классификации лексической энантиосемии и ее типы.” Известия вузов. Северо-Кавказский регион. Общественные науки. Приложение (9) (2006).
- Кузнецов С. А.(гл. ред.) Большой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СПб. (2000).
- Маркова Е. М. “О причинах и проявлениях энантиосемии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в межславянском аспекте.” Вестник Нижегоро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Н. И. Лобаче (4-2) (2010).
- Мельчук И. А. Язык: от смысла к тексту. М. (2012).
- Новиков Л. А. Антонимия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М. (1973).
- Новиков Л. А. Семантик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1982).
- Ожегов С. И., Шведова Н. Ю.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2006).
- Пете И. “О противоположных значениях одного и того же слова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Материалы и сообщения по славяноведению (2) (1964).
- Прохорова В. Н. “Энантиосемия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Вопросы русского языкознания (1) (1976).
- Скляревская Г. Н. “Современная русская лексикография: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лексикографии. СПб. (1998).
- Шанский Н. М. Очерки по русскому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ю и лексикологии. М. (1959).
- Шанский Н. М., Боброва Т. А. Школьный этим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 происхождение слов. М. (2002).
- Шерцль В. И. “О словах с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м значением (или о так называемой энантиосемии).” Филологические записки. вып. 5-6. Воронеж. (1883).
- Bauer L. English Word-formation. New York. (1983).
- Lyons J.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London. (1968).
- Shmelev A. “Semantic Shifts as Source of Enantiosemy.” The Lexical Typology of Semantic Shifts. М. (2016).
- 김진규, “러시아 어휘론에서 단어 내적 반의어 관계의 위상.” 슬라브학보 (18-1) (2003).
- 백경희, “러시아어 단어내적반의어 연구.” 슬라브어연구 (28-2) (2023).
- 이선영, “국어의 모순어에 대하여.” 국어학 (61) (2011).

